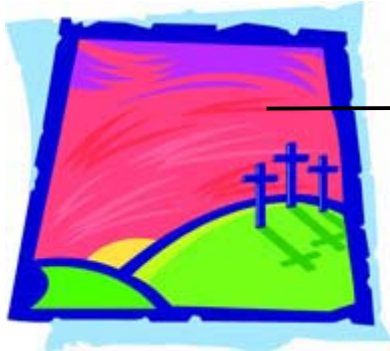


# 목 차



성경 공부를 들어가며 .....	2
제21과 요시아 .....	4
제22과 엘리야/엘리사 .....	8
제23과 히스기야 .....	12
제24과 마태 .....	18
제25과 마가 .....	22
제26과 누가 .....	26
제27과 사도 요한 .....	31
제28과 침례자 요한 .....	35
제29과 요셉/마리아 .....	39
제30과 베다니 마리아/마르다 .....	44
제31과 야고보 .....	49
제32과 가롯 유다 .....	54
제33과 도마 .....	61
제34과 베드로 .....	68
제35과 빌립 .....	73
제36과 스테반 .....	78
제37과 사도 바울 .....	82
제38과 바나바 .....	88
제39과 디모데 .....	93
제40과 예수님 .....	97

## 성경 공부를 들어가며

사랑침례교회는 청소년들이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 받으면서(엡6:4),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중고등부 주제별 공과>를 3년 과정으로 자체 제작하여 <주일 설교와 공과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차 교재 <성경편1.2>를 끝마쳤으며, 이제는 성경 66권 안의 대표적 인물 40명을 선정한 2년차 교재 <인물편1.2>도 완성되었습니다.<sup>1)</sup>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인간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거룩히 구분하여 바로 아는 것이며,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처한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분명히 깨닫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일들과 관련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책이며, 그 안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악된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본 교재 <인물편1.2>를 통해 성경 속 다양한 인물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보여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중고등부학생들이 순차적으로 성실하게 6년 동안 <주일 설교 및 공과 공부>를 접하게 된다면, <성경편1.2>와 <인물편1.2>를 대략 두 번 정도 반복해 공부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설교자 또는 선생님에 따라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세부적인 부분들로 선택하여 자유롭게 다루어 가면서, 주일 설교 및 공과 공부를 진행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본 교재는 <에스라 성경사전>, <에스라 성경지도.선도>, <사랑침례교회 강해설교>, <킵바이블>에서 많은 내용을 가져왔으며, <침례교 공과교재-요단출판>과 <인물별 성경연구-두란노>를 부분적으로 참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교재를 접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의 빛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특히 젊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성도로 든든히 성장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강건하고 기초 체력이 튼튼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119:105)

2016년 11월 14일

장 용 철

1) 현재 중고등부는 1년차 교재 <성경편1.2-총48과>를 교회 행사 및 중고등부 자체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대략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차 교재 <인물편1.2>는 총40과로 축소 제작하여 3년차 교재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계획된 3년차 교재 <교리편1.2>는 당분간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재로는 제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편집주

<인물편-1.2>-교육과정 소개

순서	주제	분기	월	과	단원	제목
2년차	인물편	1분기	1	1	구약인물	아담
				2	구약인물	이브
				3	구약인물	가인/아벨/셋
				4	구약인물	노아와 그의 아들들
			2	5	구약인물	아브라함
				6	구약인물	이삭
				7	구약인물	야곱
			3	8	구약인물	요셉
				9	구약인물	유다
				10	구약인물	모세
				11	구약인물	아론
		2분기	4	12	구약인물	여호수아
				13	구약인물	라합
				14	구약인물	기드온
			5	15	구약인물	사무엘
				16	구약인물	사울
				17	구약인물	요나단
			6	18	구약인물	다윗
				19	구약인물	솔로몬
				20	구약인물	요아스
				21	구약인물	요시아
		3분기	7	22	구약인물	엘리아/엘리사
				23	구약인물	히스기야
				24	신약인물	마태
			8	25	신약인물	마가
				26	신약인물	누가
				27	신약인물	사도 요한
			9	28	신약인물	침례자 요한
				29	신약인물	요셉/마리아
		30		신약인물	베다니 마리아/마르다	
		4분기	10	31	신약인물	야고보
				32	신약인물	가롯 유다
				33	신약인물	도마
				34	신약인물	베드로
			11	35	신약인물	빌립
				36	신약인물	스데반
				37	신약인물	사도 바울
				38	신약인물	바나바
			12	39	신약인물	디모데
				40	신약인물	예수님

## 제21과 요시야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8세에 불과했으며, 당시는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쇠퇴하여 바빌론이 신흥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던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비록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우상을 섬기며 백성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 왕이었지만, 요시야는 그런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백성을 향한 사랑을 간직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요시야(Josiah)는 “여호와께서 고치신다”는 의미이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열왕기하 22:1-20; 23:1-37      ▶ 역대하 34:1-33; 35:1-27

3. 인물배경

요시야(재위 B.C. 640년경 ~ 609년경)는 경건한 왕으로 성전 예배를 개혁하고 유다 민족의 종교를 대부분 개혁한 인물이며, 어떤 왕도 요시야와 같이 그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죽은 제사장들의 무덤에서 캐낸 뼈들을 뱀엘에 있던 우상들의 제단 위에서 불태움으로써, 그 제단을 더럽게 하였는데(왕하23:16), 이것은 3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다(왕상13:2). 또한 제사장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깨끗이 하고 수리하는 중에 율법서를 발견하였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서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요시야 왕도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크게 감명을 받은 것으로 보면, 이전에는 율법서를 읽지 않은 듯하다. 이에 요시야는 곧바로 거기 기록된 심판들을 되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백성이 회개토록 하였고, 백성이 주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도록 하여, 처음에 유월절이 제정되던 때와 같이 엄숙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다. 비록 요시야 당시에 백성의 회개는 형식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되돌려지지 않았지만, 요시야는 다행히 다가오는 재앙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죽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가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오는 이집트의 파라오느고를 대적하다가 부상을 입어 먼저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시야가 죽자 당시 예레미야 대언자를 포함한 모든 백성이 그를 위해 비통한 애가를 부르며 애곡하기도 하였다(슥12:11).

### 요시야의 조상들

1. 아버지 아몬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로 유다의 열네 번째 왕이며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주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자기 아버지의 죄악과 같은 죄악을 범했고 그의 신하들이 음

모를 일으켜 그의 집에서 그를 죽였으나, 백성이 그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왕하21:18-26; 대하33:21-25).

## 2. 할아버지 므낫세

므낫세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로 12세에 왕이 되어 55년 동안 치리하였으며, 그의 우상 숭배와 폭정 그리고 잔인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치 22년에 그가 바빌론에 죄수로 끌려가게 하셨다. 여기서 그는 자신을 낮추었고 이에 하나님은 아시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돌려보내어 그가 다시 왕권을 유지하게 하셨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행한 악을 되돌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기가 숭배하던 우상들과 자신이 조연을 받던 점치는 자들을 제거하고 자기 왕국의 영적·물질적 번영을 위하여 많은 것을 개혁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 방어벽을 보수하고 유다의 견고한 도시들을 강화시켰으며,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다가 평안히 죽어 예루살렘에 묻혔다(왕하21; 대하33).

## 3. 증조할아버지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유다의 경건한 왕으로 사악한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그의 통치는 주님께 경배하는 일을 회복시킨 것과 아시리아 사람들을 격퇴시킨 것 그리고 질병에 들었다가 회복해서 15년 동안 평화롭게 지낸 것 등으로 유명하다.

## 4. 고조할아버지 아하스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로 유다의 열두 번째 왕이며, 20세에 왕위에 올라 16년 동안 통치하였다(왕하16:1-20). 그는 우상숭배와 참 하나님을 경멸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대언의 말씀을 주셨지만(사7:1-25), 그는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불 속을 지나 우상들에게 이르게 하였고, 예루살렘에 시리아의 신들을 가져와서 시리아 식으로 성전을 바꾸고 그것을 폐쇄시키기도 했다. 주님의 도움을 버린 그는 결국 베가와 르신(Rezin)과의 전쟁에서 고통을 당하였고, 에돔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반역했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경계를 위협했다. 그는 고통 중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하였으며, 아시리아의 불(Pulu) 왕에게 원조를 구하였고, 이 일로 인해 불에게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디그랏빌레셀Ⅲ세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는 점점 더 우상숭배를 강화하여, 36세에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한 채 죽어서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절당하는 수치를 겪게 되었다(대하28:1-27).



##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야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하였고,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통치자였습니다. 또한 요시야는 그의 통치 18년에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서 주의 집(the house of LORD)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토록 한 것은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보수하던 중 대제사장 힐기야는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모세의 신명기 말씀이라고 생각되며, 요시야 왕과 백성들은 신명기 말씀들을 통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신 4:15-31).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오직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섬기며”(신10:12)

당시 서기관 사반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율법 책을 건네받고 요시아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였습니다. 이에 요시야는 율법 책의 말씀들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자신의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을 향해 타오른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고 고백하였습니다(왕하22:8-13).

참고로 고대 이스라엘서 옷을 찢는 행위는 극한 슬픔을 당하거나 회개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 책의 말씀들을 듣고, 큰 슬픔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옷을 찢은 것입니다. 이는 요시야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마음이 부드럽게 준비된 상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종교개혁<sup>2)</sup>을 단행한 요시야

요시야 왕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주민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온 백성의 귀에 낭독하였습니다(왕하23:1-2). 그리고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키며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참여하게 하여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하나님 곧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 언약을 굳게 지키며 행하게 됩니다(왕하23:3, 대하34:29-32). 요시야는 종교개혁의 조치로 모든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시야는 우상 숭배의 모든 기구들을 성전에서 나가게 하여, 그것들을 불태우고 그것들을 재로 만들어 뱀엘로 가져갔으며,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제거하였고, 주의 집 옆에 있는 남색 하는 자들의 집들을 헐고, 더러운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며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제단들 위에서 죽인 뒤 그들의 뼈를 제단들 위에서 태웠습니다(왕하23:4-20).

2) 요시야는 율법 책의 내용을 깨달은 후 정결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율법 중심의 제2의 종교개혁과 영적 대각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 그 언약을 온전히 좇게 하였고, 각종 산당과 우상들 및 그와 관련된 부정한 것을 모조리 파괴하고 빨아서 가루를 만들거나 불살랐고, 신접한 자나 박수 등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시켰다(왕하 22:3-23:25). 이 개혁의 칼바람은 유다 지경을 넘어 당시 아시리아 치하에 있던 북이스라엘 지경까지 영향을 미쳤다(왕하 17:28; 23:15-20). 이렇게 정결 작업을 진행한 뒤, 요시야는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킴으로써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된다(왕하 23:22-23). 요시야에 의해 정착된 경건한 분위기는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에 여러 모양으로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라이프성경사전>

이처럼 요시야 왕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감행한 것은 가나안 정착 시기부터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우상숭배 사상으로 인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BC 722년), 남왕국 유다도 그러한 전철을 뒤따라 동일한 패망을 견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무엇보다도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울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 책을 들려주었고,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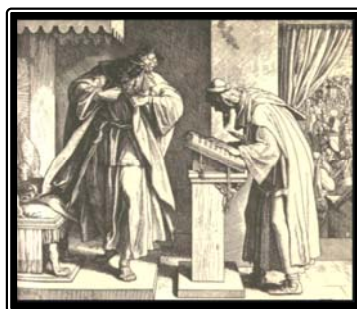
### 모든 것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

“그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왕하23:25)

성경은 모세의 율법대로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말씀으로 요시야 왕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요시야가 더 훌륭한 왕이라는 것을 언급해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을 만 큼, 그의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듯 패망해가는 유다왕국은 요시야 왕을 통해 한 줄기 빛을 발산하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지만, 얼마 뒤에 요시야 왕은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와 함께 종교개혁은 중단되어서 요시야 왕이 죽은 뒤(BC 609년) 약 20년 만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BC 586년).

### 유월절을 지키는 요시야

요시야는 종교개혁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월절 어린양을 잡고, 제사장들에게 주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행하게 하며,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귀를 솔로몬이 건축한 집에 두게 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합니다(대하 35:1-3). 특히 요시야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재물의 일부인 어린양과 어린 염소 삼만 마리 그리고 수소 삼천 마리를 가축 떼에서 취해 유월절 헌물로 주었으며,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 통치자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헌물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대하35:7-8). 이제 이 모든 유월절 준비가 예비 될 때, 요시야 왕은 명령을 내려 유월절을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규례대로 지키게 되는데, 이러한 유월절 준수는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그 어떤 왕들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른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발견된 율법 책을 받아보는 요시야 왕>

## 제22과 엘리야·엘리사

엘리야는 히브리 대언자들 중 가장 뛰어나고 담대하며 곧바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인 인물이었다. 그의 전 생애와 성격은 아주 특이한 것이었는데, 그의 이야기 안에는 많은 교훈이 담겨 있다. 특히 엘리야는 당시로부터 수세기가 지난 뒤, 예수님 시대에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영광을 얻은 인물로, 천국의 존재를 입증하며 그분의 위엄과 죽음을 보여 주었다(눅9:28-35). 또한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대언자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을 체험한 뒤 그의 옷으로 요르단 강을 나누고 대언자들의 학교에서 우두머리가 된 인물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이스라엘의 공적인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일으킨 인물이다.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엘리야(Elijah)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의미이며, 엘리사(Elisha)는 “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이다.

### 2. 중요한 성경 구절

- |               |                  |             |
|---------------|------------------|-------------|
| ▶ 열왕기상 17-21장 | ▶ 열왕기하 1-8장      | ▶ 말라기 4:5-6 |
| ▶ 마17:1-13    | ▶ 눅 4:25, 9:8-21 | ▶ 약 5:17-18 |
|               |                  | ▶ 계11:3-12  |

### 3. 인물배경

☞ 엘리야는 길르앗 디셉 출신의 대언자(왕상17:1)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며, 특히 이스라엘의 죄들로 말미암아 그 땅에 몇 년 동안 가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 예언함으로써 아합과 이세벨의 노여움을 샀다. 하나님의 지시로 그는 그릇 시내에 거하며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페니키아에 있는 사렙다로 가서 기적을 베풀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를 대접한 여인의 아들의 생명을 구했으며, 그 뒤 아합에게 나아가 바알의 대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으고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고 거짓 대언자들을 죽였으며 곧바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많은 비가 떨어지게 해서 가뭄을 해소시켰다.

☞ 엘리사는 주전 903-838년경에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시대에 활동하였고, 아벨므홀라 출신이었으며, 엘리야가 그를 부를 때에 쟁기질을 하고 있었다(왕상19:16). 그는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여기에는 여리고의 물을 고친 것, 과부의 기름병을 채운 일,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의 연합군에게 물을 제공한 일,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일, 게하시의 죄를 발견하여 벌을 준 일 등이 포함된다(왕하2-13). 그가 죽자 요아스 왕과 백성은 크게 애도했으며, 후에 죽은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을 때에 죽은 자가 소생하여 자기 발로 일어서는 일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왕하13:21).



## 엘리야의 삶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뒤에도 민족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자 절망에 빠졌고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보여 주는 환상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다. 그 뒤 그는 다마스쿠스로 먼 여행을 떠나 시리아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며 엘리사를 불러 대언자의 일을 하게 했다. 그는 또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에게 행한 죄악을 책망하고 아하시야 왕의 죽음을 예언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자기를 붙잡으려 온 그의 군사들을 불태우게 했다. 또한 그는 땅에서 떠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대언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 기적으로 요르단 강을 건너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바람에 실려 하늘로 들어갔다(왕상17:1-24; 18:1-46; 19:1-21; 21:29; 왕하1:1-18; 2:1-18). 대략 그의 휴거는 주전 809년경에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그는 아무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나서 주님의 일을 하고 기적을 통해 사라진 인물이며, 초자연적인 ‘하늘의 사자’로서 오직 한 가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마침내 그것을 성취하고 돌아갔다. 성경은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의 대언자 엘리야와 비슷한 삶과 특성을 가지고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올 것을 예언하였는데(말 4:5-6; 마17:10-13), 주님의 초림 때에도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로 왔듯이 그분의 재림 때에도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계시록의 두 증인 중 하나가 엘리야의 영으로 올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계11).

## 변화(Transfiguration)

마가복음 9장 2절-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의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건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놀라운 일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 멀지 않은 헤르몬 산이나 다른 산에서 일어났을 것이다(마17:1-9; 벰후 1:16-18). 이때에 우리 주님의 옷과 형체는 완전히 영광 중에 있었고 율법과 대언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복음을 대표하는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였다. 바로 이때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속죄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신약과 구약의 조화를 증명하였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와서 그분에게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신성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죽은 사람들의 영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다.

## 구약성경이 말하는 엘리야

### 1. 아합과 엘리야

주전 918년경에 자기 아버지 오므리를 이어 왕이 된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 아합은 22년간 통치하였고, 그의 아내는 두로의 옛바알의 딸 이세벨이었다. 그녀는 야망이 큰 인물로 열정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으며 이로 인해 바알과 작은 숲 숭배가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때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집을 세우고 바알의 형상들과 작은 숲을 세웠으며 그 결과 우상 숭배와 사악함이 두려울 정도로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되었다. 사실 아합은 그 전의 모든 왕보다 주의 분노를 더 크게 일으킨 인물인데, 이러한 배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엘리야를 통해 3년의 기근과 가뭄으로 그 땅에 저주를 내리셨고, 갈멜 산에서는 하늘에서 불을 보냄으로 바알의 대언자 450명을 죽이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섭리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으며 무죄한 나뭇을 살해한 후에도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숭배를 계속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어 그와 그의 씨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낮추자 이러한 심판은 잠시 연기되었으며, 그 뒤 그는 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라못길르앗으로 가서 시리아 사람들로부터 그 도시를 회복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싸움에서 패배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사마리아의 못에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왕상16-22).

#### 2.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자연적인 보살핌을 받는다(왕상17:1-7).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신의 말이 있지 아니하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는 대언을 한 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게 되었다. 가뭄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오도록 하사,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자연적인 보살핌으로 도우셨다.

#### 3. 사르밧 과부 이야기(왕상17:8-16)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사이의 지중해에 있는 항구였다(왕20). 이곳은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거하게 된 곳이며, 죽을 만큼 빈곤한 상태에서 엘리야를 도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름과 밀가루를 공급해 주신 곳이다. 한편, 그녀의 아들은 심히 병이 들어 숨이 끊어졌지만, 엘리야의 부르짖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녀가 행한 말과 행동은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으며, 우리 모두가 값지게 배워야 할 것들이라 생각할 수 있다(왕상17:9-24). 참고로 이곳은 후에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 '사렘다'라 불렸다(눅4:26).

#### 4.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도전했다(왕상18:17-40).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험되는 사건이기도 한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도록 불로서 응답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도전하였다. 마침내 바알의 대언자들은 실패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 에 응답해 주셨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에 뜻에 따른 능력 있는 기도와 그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일 중의 하나이며, 이런 면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한 하나님의 대언자였다고 볼 수가 있다. 또한 큰 비가 내리기 전에 갈멜 산의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참고 기다린 엘리야를 통해 그의 믿음과 신실함 그리고 인내를 잘 살펴 볼 수 있다(열상18:41-46).



### 엘리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들

1. 엘리아는 무명한 자요,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지도 않았으며, 가정도 없이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인물이었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보여준 하나님의 위대한 대언자였습니다.
2. 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의 종들을 통해 선포해 주셨으며,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에는 그들을 완전하게 보살피 주셨습니다.



### 휴거(Rapture)

우리는 엘리아를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변화된 휴거의 인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비밀리에 지구의 대기권 내로 들어오시며,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 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져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통 휴거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휴거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해 잘 알려 주셨으며(요11:25-26), 사도 바울은 불멸의 부활 장에서 휴거의 급박함에 대해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고전15:51). 휴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며, 그분은 마치 집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갑자기 오시게 됩니다. 도둑은 자신이 오는 시각을 미리 알리지 않으며 특별한 목적을 갖고 들이닥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다 털어 가지 않으며 금과 은 그리고 보석과 귀중품만 훔쳐갑니다. 또한 도둑은 결코 그 집에 머무르려고 오지 않으며 귀중한 물건만 챙기면 즉시 떠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공중 강림하실 때 즉 휴거 시에 자신의 보배인 성도들만 데려가시며, 믿음이 많은 자든지, 적은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생명을 받은 자는 다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한 성도들과 휴거 받은 성도들은 어린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며, 우리 주님은 이러한 결혼을 위해 신부를 데리러 7년 환난 전에 공중 강림하시고 혼인 만찬이 끝나면 신부와 함께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을 묘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 주리라”(눅12:36).

우리 주님은 하늘의 결혼식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리시킬 휴거는 우리 시대에서 가장 놀랄 만한 사건이 될 것이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사건을 더욱 고대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성도들의 복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 제23과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유다의 경건한 왕으로 사악한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그의 업적은 왕하18-20, 대하29-32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의 통치는 주님께 경배하는 일을 회복시킨 것과 아시리아 사람들을 격퇴시킨 것 그리고 질병에 들었다가 회복해서 15년 동안 평화롭게 지낸 것 등으로 유명합니다.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히스기야(Hezekiah)는 “여호와는 힘이시다”라는 의미이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열왕기하 16-21장 ▶ 역대하 28-32장 ▶ 이사야 36-39장 ▶ 예레미야 15:4; 26:18-19

3. 인물배경

히스기야의 부모님은 유다 왕 아하스(Ahaz)와 스가랴의 딸 아비야(Abia)이며, 아비야는 사가랴의 딸 아비(Abi)로도 표현되고 있다(왕하18:2, 대하29:1).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로 유다의 열두 번째 왕이며, 20세에 왕위에 올라 16년 동안 통치하였다(왕하 16:1-20). 그는 우상숭배와 참 하나님을 경멸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대언의 말씀을 주셨지만(사7:1-25),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불 속을 지나서 우상들에게 이르게 했고 예루살렘에 시리아의 신들을 가져와서, 시리아 식으로 성전을 바꾸고 성전을 폐쇄시키기도 한 인물이다.<sup>3)</sup>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2-7, 역대하 29:1-2을 볼 때, 왕위에 오른 뒤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는 25세의 나이로 통치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며,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트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 내고 모세가 만든 놋 뱀을 산산조각 내었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한 왕이었고, 이후의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이전에도 없었다는 성경의 평가를 받는 인물이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킨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사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인도해주셨다.

3) 결국 주님의 도움을 버린 아하스는 결국 베가와 르신과의 전쟁에서 고통을 당하였고, 에돔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반역했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경계를 위협했다. 그는 고통 중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했으며 아시리아의 불 왕에게 원조를 구했고 이 일로 인하여 불에게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디그랏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는 점점 더 우상숭배를 강화하였고 36세에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한 채 죽어서 자기 조상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절당하는 수치를 겪었다(대하28:1-27).-<에스라성경사전>



#### 히스기야 이야기4)

##### 1. 인생의 고난은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생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수고와 심지어 죽음까지 우리 인생에 펼쳐져 있다.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도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당하는 시험이 존재하므로(고전10:13), 인생의 고난은 결코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이러한 시험과 아픔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히스기야와 같이 고치기 힘든 중병에 걸리는 일일 것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질병과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였는데, 우리는 히스기야의 일들을 통해 인생에게 닥치는 질병과 고난 등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대하며, 극복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다.

##### 2. 어려움을 극복한 신실한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되면서 등장한 초대 왕 사울 이후로 다윗, 솔로몬, 남 왕국 르호보암 등의 왕권을 계승한 유다의 13번째 왕이다. 참고로 북 왕국은 여로보암 이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남 왕국에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의 선한 왕이 많이 있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 히스기야가 좋지 않은 가정과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는데(왕하16:2-4),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다(왕하18:2-4).

##### 3. 히스기야의 성공 비결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열왕기하 1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배경과 부모와 상황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왕이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행통했다고 말한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인생의 아픔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셨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행통케 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주셨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불우한 환경과 지난날의 어두웠던 악몽 가운데서 불평하고 있는가?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앞으로 한걸음씩 전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 구약성경은 히스기야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 1.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촉구했다(왕하18:3-7, 대하29:3~30:13).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케 하는 일로서 그의 통치를 시작했으며, 그의 부친 아하스 때 행해졌던 우상숭배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 내고 이스라엘 자손이 분향했던 모세가 만든 놋 뱀(느후스탄)<sup>5)</sup>을 산산조각 내었다. 또한 그는

4) 사랑침례교회 주일설교 中-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2014.11.30)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고 다시 제정하였으며, 모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 2. 아시리아는 예루살렘을 위협했다(왕하 18:3-37, 대하 32:9-19,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제십사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올라와 유다의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였고, 아시리아 군대는 북쪽까지 모두 정복하였지만 히스기야가 그들을 저지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듣고 많이 놀라고 당황했다. 산헤립은 그의 대변자 랍사게를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권하게 하였으며, 그는 아주 불경스런 방법으로 히스기야와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 3.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찾았다(왕하 19 : 1-7, 이사야 37:1-4; 14-20).

히스기야는 산헤립과 랍사게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굶은 베를 입고 성전에 들어가 집안을 감독하던 자들과 제사장들 중 장로들에게 굶은 베를 입혀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에게 보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말한 말들 곧 내가 들은 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내리니 그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였더라”(사37:6-7).

## 4.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왕하 19 : 14-19, 대하 32: 20, 이사야36-38)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서 똑같은 설명이 3번 씩이나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의 중요함을 인식시켜 주시는 방법이다.

이사야 37:16-20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그가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주시게 된다. 그리고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쳐서,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며, 이후 아시리아 왕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는 악한 일이 생겨나게 된다.

## 5.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왕하20:1-11, 사38:1-8)

히스기야에게는 나라의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된 뒤에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며, 그는 이사야로부터 “네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

5) 모세가 광야에서 늦으로 만든 뱀에게 히스기야가 붙여 준 이름(민21:8).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왕국의 말기까지 이 늦 뱀을 보존하였으며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화했으므로 히스기야는 그것을 불사르고 그 이름을 느후스탄 즉 값어치 없는 한 조각의 늦이라고 하였다(왕하18:4).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품 등은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기 쉬우며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가리는 경우가 많다(요3:14-16).-<에스라성경사전>

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며, 이사야에게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신다(왕하20:5-6).

“주 곧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내가 네 날들에 십오 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 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 6.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 받았다(왕하20:6-11, 사38:5-8).

하나님께서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으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들을 행한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와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그 표적으로 아하스의 해시계(Dial)<sup>6)</sup>에서 내려간 각도들의 그림자를 뒤로 십도(ten degrees) 물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 사랑침례교회를 위한 성도의 기도<sup>7)</sup>

우리의 구원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산헤립 왕의 위협 앞에서 자기 옷을 찢으며 스스로 굵은 베를 입고 고난과 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 때, 아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산헤립 왕에게 돌풍을 보내시고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 곧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시리아 왕 산헤립을 대적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의 간청에 응답하신 것도 성경을 통해 보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한 산헤립의 손으로부터 히스기야 왕과 유다 왕국을 보호하고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모든 왕국이 오직 주 만이 주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성도들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투는 자들에게 우리의 사정을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싸우는 자들과 친히 싸우사,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길을 막아주시고, 그들이 당황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우리를 해하려고 꾀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혼란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랑침례교회를 주의 천사를 통해서 둘러 진을 치시고 현재 우리 교회가 당면한 모든 두려움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하신 하나님!

6) 시계가 발명되기 전에 해의 그림자가 나아간 것을 통해 낮의 시간을 알려 주던 기계. 아하스의 해시계(왕하20:11; 사38:1-9)는 구조와 크기에 있어서 독특했으므로 아마도 바빌론이나 다마스쿠스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왕하16:10).-<에스라성경사전>

7) 참조-<사랑침례교회 주일 특별기도> 중 발췌(2016.07.31)

예수님의 값진 희생과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된 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부당하게 우리를 누르며,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험악한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느 때 보다 선한 열매를 주실 심판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침례교회 온 성도들이 옛 성도들이 당한 고난과 인내의 본을 기억하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일의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내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중략)

이제 우리 교회를 형통케 하여 주시는 데로, 사랑침례교회가 큰일을 하는 큰 교회 보다는 조용히 주님이 맡겨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 재림의 소망 가운데 평안하며, 혼란한 세대 가운데 평화롭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누구가의 꿈을 이루어주는 교회, 이 세대를 죽기까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살아있는 교회, 화평의 때는 띠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보호하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바로알기-질병(Diseases)과 병 고침(Healing)

1. 질병은 죄에 의해 이 세상에 도입되었고 특히 부패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사치하는 관습에 의해 크게 증가해 왔다.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질병이 생기고 악한 영들이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욥2:7; 막9:17; 눅13:16; 고후12:7),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질병이 생기는 것을 인정했다(시39:9-11; 90:3-12). 질병은 아비멜렉, 게하시, 여호람, 웃시야, 미리암의 경우처럼 특정한 죄로 인해 특별하게 생기기도 했고,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대하지 않음으로 질병이 생기기도 했다(고전11:29-3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고치심으로 자신의 선하심과 권능을 드러내어 보여 주셨는데, 아사 왕의 사례(대하16:12)에서처럼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의원들의 기술이나 노력이 소용이 없다.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유행하던 병에는 악성 열병, 마비 병, 이질 설사, 눈병 등이 있으며, 육체의 질병은 사람의 혼에도 병을 가져다준다.

2. 병 고침 즉 치유의 선물(은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병을 고치는 일은 다르다. 치유의 선물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체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것을 뜻한다. 신약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수만이 이런 능력을 지녔으며 그들은 온갖 종류의 병자들에게 나아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그들을 치료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치유의 선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따라서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새로운 계시를 전하는 자가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기적적인 능력의 일부이다(히2:3-4). 그러나 치유의 선물도 다른 기적들처럼 성경 역사의 어느 특정한 때에 일어난 표적이었으며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병이 났을 경우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유의 선물(은사)을 소유한 자는 거의 없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치유의 선물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역이 마무리될 무렵 성경이 완성되면서 자기의 형제요 동역자요 동료 군사인 에바브로디도를 고칠 수 없었으며(빌2:25-27), 선교 여행 때는 자기와 동행한 드로비모를 고치지 못하고 그가 아픈 채로 밀레도에 남겨 두었다(딤후4:20). 또한 바울은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를 고칠 수 없었고 대신에 일반적인 처방을 디모데에게 권했다(딤후5:23). 심지어 바울은 자신도 고칠 수 없었다(고후12:7-10).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적절한 약을 사용하였다.

3. 바울이나 다른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본이 된다. 즉 아프면 기도하고 의학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약5:14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병든 그리스도인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처방으로써 기름을 바를 것을 가르친다. 이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의학적인 처방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를 위해 몸을 문지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4. 성경은 또한 성도들이 치유의 선물(은사)을 바라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몸이 확실하게 고쳐지는 것은 내세의 약속이다(롬8:23).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몸을 구속하실 것이고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죄가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벗어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말세에 여러 기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살후2:9-10), 마귀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나타낼 수 있기에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고후11:14-15). 치유의 선물은 표적의 선물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전하는 자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일이 끝나자 치유의 선물은 곧 사라지게 되었다. 바울의 예나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보더라도 치유의 선물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다. 사도행전과 에베소서를 비교해 보더라도 치유의 선물은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5. 현 교회 시대에는 모든 질병에 대해 기도와 의학적인 처방을 의지해야 하며 이것만이 병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자세이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뜨거운 기도에 응답하시 자신의 뜻 안에서 기적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으며 지금도 고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특별히 그런 선물(은사)을 받아 병자에게 손만 대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



## 제24과 마태

마태(Matthew)는 사도요, 복음 전도자로서 갈릴리에서 알패오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마9:9; 막2:14; 눅6:15). 다른 사람들은 그를 레위 즉 그의 히브리 식 이름으로 불렀으나(막2:14; 눅5:27), 그는 항상 자신을 마태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아마도 세금을 거두는 그의 직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마태복음 9-10장    ▶ 마가복음 2-3장    ▶ 누가복음 5-6장    ▶ 사도행전 1장

3. 인물배경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만들어 주셨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려는 마음에서 레위라는 히브리식 이름 대신에 항상 자신을 ‘마태’라고 불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쩌면 레위라는 히브리식 이름은 그가 레위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데, 이런 면에서 어쩌면 마태는 제사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이는 주님이 그의 이름을 마태로 바꾸어 놓으셨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을 스스로 선택하였다고도 본다. 어쨌든 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마태라고 불려졌다. 마태는 평상시에 가버나움에 거하였고, 그의 사무실은 디베랴 바다 근처 큰길에 있었으며, 그는 여기서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마 9:9; 막2:14). 아마도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기적들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여러 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에 속하여서 구약 성경과 역사에 대해 상당히 정통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마태가 남긴 위대한 업적이라 볼 수 있다.

### 신약성경은 마태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마태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눅5:27-28).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셨던 것처럼(요1:43), 레위를 부르실 때에도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신 채 다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명령이 처음 떨어졌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

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환경과 세리의 직업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푼 마태

마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자신의 삶을 축하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세리들과 이웃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그 연회가 자기 집에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와 누가는 그 장소가 마태의 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막 2:15, 눅 5:29). 참고로 성경의 세 기록자 모두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그 곳에서 잡수시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 자신이 메시아를 영접하였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이것은 마태가 세리들과 죄인들로 알려진 그의 옛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죄인의 무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불평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서는 불평하는 그들에게 공간복음에 나오는 위대한 말씀 중의 하나를 하시게 됩니다(마9:12, 막2:17, 눅5:31-32).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눅 5:31-32)

## 3. 마태는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라는 말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한 자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제자(Disciple)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 사람들과(마10:24) 요한의 추종자들에게 적용되었고(마22:16) 특별히 열두 사도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었으며(마10:1; 11:1; 20:17),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의 교리를 믿고 그분의 희생 예물을 의지하며 그분의 영에 사로잡혀 그분께서 하신 대로 행하고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 4. 마태는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말을 기록하였다.

사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다 나오지만, 오직 마태만이 교회에 관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16:17-18을 보면 교회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내 교회’(I will build my church)가 천주교에서 말하듯 초대 교황 베드로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에서 반석(rock)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것이고(벧전2:4,8; 고전 10:1-4; 마21:42,44; 단2:44-45; 신32:31), 또 하나는 마16:16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사도(Apostle)

사도는 사자(使者) 혹은 특사를 말하며, 이 말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사이신 예수님께도 적용되었으나(히3:1)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께서 보내신 특사들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그분의 주요 제자들이었고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권위와 성령님의 충만을 주셨고 자신의 교리를 맡기고 자신의 교회를 일으켜 세울 것을 부탁하셨다. 그들은 열두 지파에 상응하여 열두 명이었으며(마19:28) 평범하고 배우지 못했으며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책무를 맡은 뒤에(마10:5-42) 자신들의 주인을 섬기며 그분의 일들을 증언하고 그분의 영을 흡수하며 점차로 복음의 교리와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에 그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게 하셨다(요15:27; 고전9:1; 15:8; 고후12:12; 살전2:13). 그들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큰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 혹은 레위, 가나안 사람 시몬, 다대오라 하는 렵배오 혹은 유다, 알패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가룟 유다(마10:2-4; 막3:16-19; 눅6:14-16) 등이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달아 죽었으며 후에 그를 대신해서 맛디아가 사도로 뽑히기도 하였다(행1:15-26).

참고로 사도행전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행하며 고난을 당하는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였으며 특히 사도임을 입증하는 사도의 표적들인 죽은 자를 살리고 안수하는 사람마다 병이 낫게 하는 것 등을 보였다(막16:17-18; 고후12:12). 그러나 사도들은 초대 교회에만 존재하였으며 지금 이 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세리(Publican)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며, 로마 정부에는 두 부류의 세금 거두는 사람이 있었다. 한 부류는 자기 밑에 부관들을 두고 제국의 세금을 거두어들여 황제에게 보고하는 사람들로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세력이 막강하였다. 그러나 그 밑에서 일하는 부관들 즉 유대인들이 경멸한 세리들은 말 그대로 강도와 소매치기 수준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이지만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세리와 기생충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극도로 미워하였고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세리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였으며 세금 바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신17:15), 자기 민족 중에서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교도로 취급하였다(마18:17). 그래서 세리들은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기도 어려웠고,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거부되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에 세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 삭개오는 세리들의 우두머리로 불리므로 아마도 부관들을 거느린 주요 세금 징수자였을 것이다(눅19:2). 그러나 마태는 부관 노릇을 하는 세리였다(눅5:27).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였지만(눅7:34),

우리 주님은 그들의 불신과 위선을 아시고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마21:31). 참고로 우리는 눅18:10-14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 생각해보기-그리스도인의 직업

마태의 직업인 세리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죄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마태의 처음 이름이 레위였던 것으로 보아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보이며,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많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후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세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이렇게 로마 정부의 관리로 일하기 위해서는 아랍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해야 했으므로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미움을 받던 계급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정치적인 이유인데, 세리는 식민지배자였던 로마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 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과중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부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신들의 주머니로 채워나갔습니다. 참고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도 세리였는데,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동안 자신이 부당하게 거둬들이던 세금을 되돌려 주겠다는 위대한 결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양한 직업들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올바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혹여 우리의 직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힘으로 빼앗거나,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해치는 일이며,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행실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직업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넓은 길이라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균형 잡힌 크리스천의 자세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모두 전도자나 목사 그리고 전임 사역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힘겹게 직업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자기가 선택한 일과 직업 그리고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계 보고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모두가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기쁨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 제25과 마가

마가는 마가복음의 기록자로 후에 베드로와 함께 바빌론에 갔으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이 그의 집에 자주 들렀으므로 베드로에 의해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벧전5:13; 딤후1:2; 딤후1:2).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마가라는 이름의 뜻은 “큰 망치”라는 의미가 있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 사도행전 12:12, 12:25, 15:36-41      ▶ 골로새서 4:10-11
- ▶ 디모데후서 4:9-11                              ▶ 베드로전서 5:13

3. 인물배경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가가 행12:12, 25; 13:5, 13에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 즉 ‘요한 마가’라는 인물로 그를 바나바의 생질(누이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골4:10). 그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스를 통과하고 안디옥, 벡가, 밤빌리아에 이르는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하였으나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바울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행13:13; 15:37-39). 그럼에도 그는 키프로스에서 바나바와 함께 신실하게 사역을 하였고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서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그를 맞이 하라고 말했다(골4:10-11; 딤후4:11; 몬24).

참고로 마태복음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록된 것이라면 마가 요한으로 알려지고 있는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누구보다도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에서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인 반면에 마가라는 이름은 그의 로마식 별명인데,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부였으며, 그녀의 남동생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으로서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마가의 어린 시절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베드로와 바울도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렇게 성장한 마가는 사도들의 조력자로서 바울과 누가의 기록에도 언급 되고 있다.

### 성경은 마가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 기도의 장소였던, 마가의 집(행12:12)

신약성경에서 마가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된 것은 그의 집에서 놀랄만한 기도회가 있었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둡니다(행12:2-4). 하지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당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장소가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주의 천사를 통해 감옥에서 구출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행12:1-12).

### 2.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행 했던 마가(행12:24-25)

안디옥에 거하던 바나바와 바울은 대언자들 중의 한 사람 곧 아가보<sup>8)</sup>라는 사람이 온 세상에 두루 큰 기근이 들 것을 표적으로 보여 주게 되자, 제자들이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에 따라 구호금을 가지고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가게 됩니다(행11:22-30).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여행(행13:1-14:28)을 위해 성령님을 통해 따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는데(행13:4), 그들은 자신들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그들의 일을 조력해 주고, 섬기는 인물로 ‘마가 요한’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 3. 마가로 인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대립(행15:36-41)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밤빌리아의 버가(Perga)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은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아마도 마가가 되돌아간 이유는 이후 바울의 반응으로 볼 때, 마가가 이교도 세계에 도착한 뒤 자신이 큰 어려움에 직면될 것이 두려웠다는 사실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마가의 행동에 대해 바울은 크게 불만을 나타냈고, 2차 선교여행(행15:36-18:22) 때는 다시금 마가를 데려 가려고 결심한 바나바의 의견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려 하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격렬한 다툼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비록 두 사람의 다툼과 결별로 어려움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일을 통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서 형제들을 방문하였으며, 바울은 실라를 택한 뒤에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게 됩니다.

### 4. 마가의 침묵과 그의 회복(골4:10)

마가가 다시 성경에서 언급되기까지는 대략 20여년의 시간이 경과하게 됩니다. 그동안 마가는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 최초로 기독교인 교회가 세워졌던 이집트로 가서 보다 큰 사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옥중서신에서 ‘마가’를 또 언급하게 되는데(골4:11, 몬1:24), 바울과 같이 마가도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던 것 같으며, 이 서신들에서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마가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로마에서는 오직 세 사람의 유대 기독교인만 바울에게 끝까지

8) 초대 교회의 대언자. 그는 수에토니우스와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는 기근 즉 주후 44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에 있었던 기근에 대해 예언을 했고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조물을 보냈다(행11:27-30). 그 뒤 몇 년 지나서 아가보는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고난당할 것을 다시 예언했다(행21:10-14).-<에스라성경사전>

충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명예로운 지위로 완전히 회복된 마가였습니다(골 4:10-11).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니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골4:10-11)

#### 5. 마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바울(딤후4:10-11)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에게로 마가를 데려다 줄 것을 디모데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 바울은 순교에 직면하고 있었고,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 마가가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 6.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말했다(벧전5:13).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베드로가 회심시킨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마가'임을 잘 알게 되는데, 이처럼 성경에서 마가의 모습은 바울에게는 동료 일꾼이요(몬1:24), 베드로에게는 그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내 아들'로서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마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1. 마가의 어머니는 믿음의 인물로 마가의 생애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녀의 가정과 집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졌다.
2.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삶으로 공유하듯, 마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력하고, 그들을 세우는데 많은 힘을 쓴 믿음의 사람이다.
3. 마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사도들을 돕고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들을 기록하였으며, 이렇게 마가와 같은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우리들이 말씀을 소유하게 하셨다.
4. 마가는 20여년의 오랜 세월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 거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때에도 마가를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단련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려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가의 성경 기록과 그의 행적들을 통해 잘 살펴볼 수 있다.



#### 어느 구경꾼의 회심<sup>9)</sup>

난 당신을 먼발치에서 몇 번 보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당신을 따르고 있었고 나도 그 무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버리고 생업과 가족도 뒤로 한 채 당신을 따르는 이도 있었지만,  
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니다. 그런 광신자로 분류되는 것도 싫었고  
솔직히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니기에는 당신의 말씀과 행실이 너무 놀라웠고

9) 김준희자매님(피아니스트)이 1988년 달라스에 계실 때 창작하신 시입니다.



그렇다 하기에는 당신의 배경과 행색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당신 주위엔 온갖 병든 자들과 냄새나는 이들이 득실거렸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란 소문마저 나다니  
난 당신의 주위를 맴돌았을 뿐 그 문하로 들어가는 것은 망설였습니다.  
한 소년의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무리를 먹이실 때 나도 그 빵을 좀 떼었으나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잡아들인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먼발치에서만 바라본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메시아도 아닌 것이 메시아 행세를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금요일 그 골고다 언덕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쫓아다니느라 밀려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계획대로 그렇게 무력하게 끌려갔다 하더군요.  
온갖 조롱과 채찍 속에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차마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었다 하더군요.  
그들은 가시로 엮은 관을 씌어 유대인의 왕이라 놀려대며 침을 뱉었다 하더군요.  
십자가에 벗기운 채 매달려 있는 당신을 보며  
그래도 어떤 이들은 당신이 삼손처럼 마지막 힘이라도 좀 써 주길 바랬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입니까  
온 세상이 당신을 포기한 바로 그때에 성막 휘장이 찢기어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왜 말입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당신이 살아나다니요.  
당신이 구름타고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무엇이여  
다시 오리라라는 말을 남겼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당신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말입니까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엘 갔었습니다.  
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앉았고 그것은 나에게도 임하였습니다.  
내 몸은 떨렸고 나의 마음은 신비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옛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만질 수 없었지만 꼭 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극진한 사랑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 내렸고  
나의 방관과 배신으로 찢기운 당신을 생각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난 마가의 다락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 위로자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죽음을 각오하고 촛불을 밝히며 카타콤으로 향합니다.  
내가 사자의 밥이 되고 사지가 찢기어지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당신께서 내게 힘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나, 베드로 아니고 바울 아니나, 이 작고 무명한 자 당신이 안다 하시매  
나는 마냥 행복합니다.

## 제26과 누가

누가(Luke)는 사도바울의 동역자이며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 ‘사랑받는 의사’라고 불렀습니다(골4:14). 그는 신약성경의 기록자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풍부한 문학과 교양을 가진 인물로, ‘루카스’ 혹은 ‘루카누스’와 동일한 이름이며,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대부분을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누가라는 이름에는 ‘총명하다’ 혹은 ‘빛을 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 누가복음 1:1-4                      ▶ 골로새서 4:14                      ▶ 디모데후서 4:11
  - ▶ 빌레몬서 1:24                      ▶ 사도행전 1:11, 6:1-7, 20:5-21; 17, 27:1-28; 16

### 3. 인물배경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행16:11에서 처음에 ‘우리’라고 기록하여 자신이 트로아<sup>10)</sup>(Troas)와 그의 첫 번째 마케도니아 여행에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들은 빌립보에 닿은 뒤에 잠시 헤어졌다가 바울이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에 다시 합치고 그 이후에 그는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하며 여행하고 고난당하였으며,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옥에 갇히게 된다(행17:1; 20:5-6, 13-16; 21-28장; 딤후4:11; 몬24).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 전과 후에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학식과 판단과 충성과 의료 기술 등으로 인해 초대 교회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는 것이다.

### 누가 이야기<sup>11)</sup>

#### 1. 의사 누가

사도 바울은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라고 불렀는데(골4:14), 누가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일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의 병을 고치는 의사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에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며, 천대받던 여인들의 기사와 아이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부자와 나사로(16장), 가난한 과부의 기도 이야기(18장), 나인 성의 과부(7장) 등의 이야기가 있다.

10) 소아시아의 북서쪽에 있던 무시아의 해양 도시. 이 도시는 마케도니아와 로마의 식민지로 번창하였다. 사도 바울은 주후 52년경 잠시 이곳에 있다가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갔고(행16:8-11) 주후 57년경에 두 번째 방문해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였다(고후2:12-13).-<에스라성경사전>

11) 참조: 정동수목사님 <누가복음 강해 제1과>

## 2. 음악인 누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마리아의 노래(1:46-55), 사가랴의 노래(1:67-79), 천사들의 노래(2:14), 시므온의 노래(2:28-32)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며, 특히 누가복음 19장 1-10절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선포의 말씀이 맞물리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나오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의 기쁨과 천사들의 감격의 찬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 3. 이방인 누가

성경기록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기록하였으며, 사도와 대언자 그리고 초기 사역자들의 대부분도 유대인이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게 된다(요4:22).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과 그분의 교회 설립에 관한 기록은 이방인 출신인 누가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무 차이가 없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롬3:30, 고전7:18, 갈5:6, 갈6:15, 골3:11).

## 4. 성경기록자 그리고 역사가 누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24장)과 사도행전(28장)은 도합 52장이며,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 분량의 25%에 해당된다. 또한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 대부분에 바울과 함께 하였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면 처음으로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이 말씀을 통해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며 여행하고 고난당하며 결국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끝까지 그와 함께하며 그의 임종을 지켜본 인물이다(딤후4:11).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누가는 성령님께서 자기를 움직이시는 대로 성경을 기록하였고(벧후 1:20-21), 자기만 진리를 알지 않고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 진리의 전달 사명<sup>12)</sup>

AD 90년경 성경 기록이 완결된 이후로는 온 세상에 성경이 번역되면서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수많은 진리의 전달자들은 성경 말씀을 보존하고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신앙과 양심을 따라 기꺼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쳤습니다. 위클리프는 1380년경 친구약이 완역된 최초의 영어 성경을 만든 인물이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땅의 어떤 사람이든 하늘의 어떤 천사이든 성경과 모순되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피하고 멀리하되 마치 지옥으로부터 온 괴물을 멀리하듯 멀리해야 한다. 우리는

12) 참조: 정동수목사님 <누가복음 강해 제1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우리에게 준 진리와 자유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세기 롤라드 파 사람들은 성경과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영국에서 개신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 산 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위클리프의 성경 역본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그 성경책을 목에 매단 채 사람과 책이 모두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고, 로마 카톨릭교회는 1428년에 위클리프가 죽은 지 44년 이 지났음에도 그의 뼈를 기어이 찾아내서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영어 성경을 들려주기 위해 화형대에서 목숨을 바친 인물인 틴데일은 천주교회의 박사가 주장한 “성경이란 필요 없소.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황뿐이오.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낫소.”라는 도전 앞에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결코 내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의 단 한 음절도 바꾸지 않았으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즉 명예와 쾌락과 재산을 내게 준다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경 번역에 대한 놀라운 확신과 믿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가, 바울, 베드로, 요한, 위클리프, 틴데일 등과 같은 믿음의 선진이자, 진리의 전달자들이 흘린 눈물과 피와 땀과 희생과 수고로 1611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완전하게 보존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순수한 믿음과 양심 그리고 바른 신학을 따라 우리말의 문법에 맞게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와 바울, 위클리프, 틴데일 등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애를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 양심에 다음과 같이 물어 보아야 합니다.

- ▶나는 누가처럼 확실히 믿는 바가 있는가?
- ▶나는 누가처럼 이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 ▶나는 누가와 바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복음 선포자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쓴 것처럼, 애를 쓰고 있는가?
- ▶나는 불신자든 신자든 모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실히 알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 누가복음 11장 2-4절과 마태복음 6장 9-13절의 주기도문은 서로 다른가요?<sup>13)</sup>

Q.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서로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분명히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13)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qna&write\\_id=122](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qna&write_id=122)

A. 이러한 차이는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샘플 기도를 주신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샘플 기도는 산상수훈의 일부분으로서 제자들은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샘플 기도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그치시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하니"(눅11:1)

이 두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이라는 구절을 포함시켰으나 누가는 이 부분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차이가 생긴 이유는 마태와 누가의 복음서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으며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의 왕국이 있으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하늘의 왕국(kingdom of heaven)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다섯 개의 서신서에서 발견되며, 마태복음의 하늘의 왕국이 궁극적으로 정치적 왕국이라면(마11:12),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마11:12)

또한 하늘의 왕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속한 것으로(마8:11) 유대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마태복음에만 나오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누가복음 등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이라는 구절을 빼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주축인 교회와 함께 하늘의 왕국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계20:4). 그러므로 이 두 기도의 차이는 복음서의 대상을 살펴봄으로써 쉽게 해결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주신 목적은 주문처럼 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주어진 다음의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마6:7-9)

따라서 위의 샘플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마땅히 구할 것을 요점 정리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예수님의 의도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기도의 중간 대목 즉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의 빛을 용서하옵시며"는 이 세대에 맞지 않으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의 빛 혹은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의 기도 안에 들어 있는 이 구절은 구약 시대 즉 의로움을 기반으로 하는 세대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십자가 전까지는 여전히 구약시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righteousness)를 요구하시고 성도들은 거기에 부응해야 합니다.

#### 틴데일<sup>14)</sup>

틴데일(William Tyndale, 1494-1536)이 살던 시절에 영국(잉글랜드)은 여전히 카톨릭 국가였으며 성직자들은 미사에서 오로지 라틴어만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라틴어는 평민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였습니다. 당시 틴데일은 라틴어를 알았지만 그리스어를 공부해서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 했습니다. 틴데일은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여 1515년에 이미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신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중략) 젊은 시절 틴데일은 울시 추기경과 언쟁을 벌였는데 그는 고위 성직자일 뿐만 아니라 영국의 왕 헨리 8세의 대법관이기도 했습니다. 틴데일 박물관 관리인인 베르코우틴(Johann Verkoutin)은 울시 추기경과 틴데일 사이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울시가 케임브리지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금반지를 비롯한 호화 액세서리를 하고 있자 틴데일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위 성직자라는 양반은 저렇게 평평거리며 사는데 평민들은 너무 가난해서 교육도 못 받고 라틴어를 몰라 성직자가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 말을 들은 울시는 노발대발한 채 돌아가 버렸고 틴데일은 이내 학교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 후 웰쉬(혹은 웰치)의 도움으로 그는 리틀소드베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틴데일은 성경을 알기 쉽게 백성들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는 것만이 그들이 진리 안에 서는 길이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중략)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यो.” 틴데일은 이 선언으로 인해 인생에 큰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폭스의 순교사화’(Foxe's Book of Martyrs)의 기록에 따르면, 틴데일은 결국 해당 지역의 종교 재판소에 출두하여 심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관리들은 틴데일을 개 취급하며 거칠게 대했지만 그 어떤 것도 소몰이꾼까지도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는 그의 열정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리틀소드베리에 있을 때 창문을 통해 저 멀리서 밭을 가는 아이들을 실제로 보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다면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옮겨야겠다는 그의 열정, 바로 이것이 그를 움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소몰이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겠다는 틴데일의 선언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평생의 과업이 되었으며 이 때문에 그는 로마 교회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뎌온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딤후2:9-10).

14) 참조: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그리스도 예수안에> P47-49

## 제27과 사도 요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사도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 갈릴리 벳새다 출신이며, 세베대와 그의 아들들은 어부의 일을 하면서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막1:20; 15:40; 요18:15; 19:27). 또 요한의 성격은 온유함과 강력함이 혼합되어 있었는데, 성격은 그가 매력적이며 평온하고 겸손하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요한의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요한복음 1-7장, 20-21장 ▶ 마가복음 1:19-20 ▶ 마태복음: 20:20 ▶ 요한계시록 1:1-10

### 3. 인물배경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에도 침례자 요한, 사도요한,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요한이 나온다. 이 가운데서 사도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이 많고 조용히 묵상할 줄 아는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내면에는 강인함과 결정력이 들어있는 인물이었다(눅9:54). 그는 유순해 보이지만 확고하고 두려움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도 그분과 함께 하였고(요19:35), 예수님의 무덤에 일찍 달려가 기도 하였으며, 그분의 승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옥에 갇히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다(행4:13). 또한 요한은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면서, 야망도 있었기에 그분의 오른편에 앉게 해 달라고 간구하기도 하였다(마20:20-24).

요한은 처음에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님께 인도되어 즉시 그분을 따르다가 잠시 갈릴리로 돌아와 어부 생활을 하였으며, 다시 부름을 받아 주님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눅5:5-10). 우리 주님은 사랑스럽고 열정이 넘치는 요한과 깊은 우정을 나누셨고(요13:23; 19:26; 20:2; 21:7), 마지막 만찬에서는 요한이 주님 옆에 눕기도 하였으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그에게 부탁하기도 하셨다. 또한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보았으며,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교회의 기둥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갈2:9). 이후 요한은 주후 65년경 에베소로 가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선포한 것으로 보이며,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는 그곳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주후 95년경 밧모 섬으로 유배되어 거기에서 계시록의 환상을 보았으며 그 뒤 에베소로 돌아와 늙도록 살면서 복음을 선포하였고, 늙어서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언제나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었다. 참고로 요한은 요한복음과 계시록 그리고 세 개의 서신서를 기록하였다.



## 신약 성경은 요한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 1.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셨다(마4:17-22).

예수님은 약 서른 살 정도 되셨을 때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시작 하였고, 처음에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던 어부(漁夫) 형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선택하 셴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택된 두 사람이 자기들의 배 안에서 그물들을 고치고 있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다.

### 2. 요한은 사도가 되었다(마10:1-6).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제자'라는 의미가 말해주듯, 학습자 혹은 학생으로도 소개되지만, 마 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부정한 영을 대적하여 내쫓고, 온 갖 종류의 질환과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열두 사도(the twelve apostles)를 내보내셨 다는 말씀이 나온다. 2절을 보면 '사도'라는 호칭이 성경에 처음으로 사용되는데, 예수님께서 서는 열두 사도들에게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고 선포하라 명령하셨다. 참고로 사도(使徒)라는 말은 '전달자' 곧 '명령을 지니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더 나아가는 이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자이며, 그리스도의 부 활의 증인이라 할 수 있다(행1:21-22).

### 3. 요한과 야고보<sup>15)</sup>는 열심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눅9:51-56).

예수님께서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친히 보아너게(boanerges) 곧 '천둥의 아 들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막3:17).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복음 선포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을 지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할 것을 주님께 요청한 것에서 이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생각 하는 사람도 있다(눅9:53-54).

### 4. 야망의 인물 야고보와 요한(마20:20~ 28)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이 여행하실 때 종종 예수님께 시중을 들던 여인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하루는 두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야고보와 요한을 위하여 주의 왕국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을 수 있도록 요청하 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마실 잔을 마시고, 자신을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망설임 없이 그리고 용기

---

15) 이 사람은 다른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 큰 야고보라 불렸으며 열두 제자 중 하나였다. 그는 요한과 형제였으며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었다(마4:21; 27:56; 막15:40 비교). 그는 갈릴리 벳새다 출신이 었으며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막1:20, 29). 야고보와 요한은 원래 그들의 아버지 세 베대와 함께 어부였다(막1:19). 그들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마17:1-2)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죽일 것을 바랐다(눅9:54). 아마도 이런 급한 성격 때문에 그들은 천둥의 아들이란 이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막3:17).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영예를 누렸다(막1:29; 5:37; 9:2; 13:3; 14:33; 눅8:51). 주님의 승 천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주후 44년에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 사도들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자가 되었다(행12:1-2).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야고보서의 기록자라고 생각한다.-<에스 라성경사전>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의욕과 열심과 야망이 가득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 나머지 열명의 제자들은 두 형제에게 분개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서는 종으로서 섬기는 자세와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마10:25-28, 막10:45).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마20:25-28)

#### 5.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다.

요한은 그의 세 서신들에서 ‘사랑’에 관해 많은 말씀을 전해주었다(요일3:10-28, 요일4:7-21, 요일5:1-3 등). 그의 성격은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에서 보듯, 매우 급하고 과격하며 다혈질이었는데, 그가 ‘사랑의 사도’로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기까지 그의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인생의 변화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이 등장하는 대목에서 자신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적었기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한은 침례자 요한을 말하고, 사도 요한 자신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요일4:7-8),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아 누리보지 못한 사람은 참 사랑을 알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이런 면에서 요한은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은 인물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 자신의 자화상이요, 자아정체성이었고, 비록 요한은 성미가 급하고, 냉혹하고, 과격하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으며(요일4:10),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 할 수 있다(요일4:11).<sup>16)</sup>



####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요한(요20:19-30)

주의 첫날 일찍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돌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요한)에게 가게 되고,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돌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이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하신 성경 기록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과 함께 문들을 닫고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그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한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16) 편집-[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3\\_05&write\\_id=4387#c\\_](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3_05&write_id=4387#c_)

말씀하시며, 자신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보이셨고, 그제 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20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일들 뒤에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리라는 말씀에 따라, 디베랴<sup>17)</sup>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 요한이 기록한 책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3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요1:18, 16:28). 또 요한은 요한서신을 기록하면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쓴 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함이라 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일서에서는 요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확증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것은 안다(know)라는 말이 마흔 번 가까이나 나타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 외에도 요한서신을 기록하는 3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요일1:4)
2.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요일2:1)
3.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해 경계하도록 함(요일2:26)

요한은 요한이서에서 선택 받은 부인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과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요일1:1-6). 또 9절에서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교리(doctrine)는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주는 중요하고 큰 권위를 가지는 기독교의 진리를 명문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이서는 속이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요일1:7). 요한삼서는 요한이 진리 안에서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며, 가이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사람을 지목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를 조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요한의 계시록은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의 예언을 알 수 있으며, 역사의 처음과 나중을 앞으로 진리의 원을 완성시키고 성경 전체의 요약과 결론을 잘 알 수 있도록 기록된 책입니다(계1:3; 22:7).

17)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헤롯 안디바가 세운 갈릴리의 도시로 예전에 같은 자리에는 긴네롯이 있었다. 이곳은 게네사렛 호수의 서쪽 연안에 있었고 그래서 이 호수는 종종 디베랴 호수 혹은 바다라 불린다(요6:1, 23; 21:1).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디베라는 유대인들의 학교들로 유명하였다. -<에스라성경사전>

## 제28과 침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간 사람이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고 예수님보다 여섯 달 먼저 태어났습니다(눅1:26). 또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은 침례자 요한에게서 성취되었고(사40:3; 마3:3; 말3:1; 4:5; 마11:14),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면서, 엄격하게 나사르 사람으로 살았으며 그의 모습은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거의 비슷합니다.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침례자 요한의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마태복음3장 ▶ 누가복음 1,3장 ▶ 요한복음1장 ▶ 이사야 40:3-5 ▶ 말라기 3:1, 4:5-6

### 3. 인물배경

침례자 요한은 부모님들이 모두 아론의 자손들이었기에, 순수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고, 신실한 믿음과 경건함을 가진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중요성을 충실하게 배우며 성장하였을 것이다(눅1:5-6). 또한 침례자 요한은 초기에 동부 유대에서 지냈고 30세 쯤에 주님의 대언자로 나타났는데, 많은 무리들은 그의 입에서 들려나오는 자기들의 죄를 정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기 위해 필요한 ‘회개의 침례’를 기쁘게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도 그에게 나아와 침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성취하셨는데, 이때에 그는 이미 정해진 표적 즉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앉는 것을 보고 그분이 주님의 그리스도인 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곧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선포하였다(요1:29; 갈3:24). 그 당시에 요한은 큰 명성이 있었고(눅3:15) 산헤드린 공회는 그에게 물어 보기 위해 사자들을 보내며(요1:19-28), 헤롯 왕 역시 그에게 듣기를 기뻐하였지만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구원자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요1:27; 3:30).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으며(마9:14; 눅5:33; 요4:1) 그의 영향력은 후에도 지속되었는데(행 18:25; 19:3), 그는 사람들을 개혁하기 위해 신실하게 수고하였으며 그 뒤에 이 일로 인하여 헤롯 안디바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옥에서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물었으며(마11:3),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은 요한이 대언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메시야의 대언자들 중에서 오직 그만 모든 사람이 보기 원하던 그분의 일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왕국의 확립을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한의 지상 사

역은, 헤롯이 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이 점점 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보고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끝나게 되었다. 결국 그녀의 딸 살로메는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한 뒤 그의 목을 요구함으로써 요한은 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고 그의 제자들은 그의 몸을 가져다가 묻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하였다(마 14:3-12).



### 신약성경은 침례자 요한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 1. 천사 가브리엘은 그의 탄생을 알렸다(눅1:11-19).

가브리엘<sup>18)</sup>은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천사이다. 가브리엘은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기는 동안 침례자 요한의 출생과 이름과 직무에 대하여 예언하기도 하였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자신의 사촌인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와 요한의 출생과 이름을 짓는 일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눅1:1-80).

#### 2.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말을 의심하였다(눅1:5-20).

사가랴는 아비아 계열 즉 여덟 번째 계열에 속한 제사장으로서(대상24:1-31), 엘리사벳의 남편이며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였다.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의 직무 수행 중 성전에서 가브리엘을 보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은 늙은 나이의 사가랴에게 아들을 약속하였지만, 사가랴는 주저하면서 이 약속을 믿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 3. 침례자 요한의 출생(눅1:57-66)

요한은 성경에서 기적 중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Sarah)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엘리사벳의 육체적 출산을 가능하게 하셨다. 결국 엘리사벳은 해산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녀의 이웃과 사촌들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여드레째 되는 날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아이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불렀지만,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글을 쓰는 판에다 정확히 주의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썼으며, 즉시 사가랴는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 4. 침례자 요한의 성장과 그의 사역

요한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게 되었다(눅1:80).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십오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는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게 되었다.(눅3:1-3, 마3:1-6).

---

18)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천사. 구약시대에 그는 대언자 다니엘에게 가서 그의 환상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단8:16; 9:21). 신약시대에 그는 사가랴에게는 침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눅1:11-20) 그리고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눅1:26-38).-<에스라성경사전>

## 5.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침례자 요한(마3:13-17)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였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말리며,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예수님께서서는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며,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 침례자 요한의 삶

#### 1.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메시지(마3:2, 요1:29)

예수님을 만나기 전,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이었습니다(마3:2).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된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요1:29-34).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용어를 통해, 수천마리의 양들이 죽임을 당해도 그것은 죄를 잠시 덮는 것이며, 오직 예수님께서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단번에 속죄하시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자신은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는 믿음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놓치지 않았습니다(요3:30).

#### 2. 침례자 요한에게 돌아간 최고의 찬사(마11:9-13)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례자 요한이 ‘대언자 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에게 특별하고 위대한 명예를 주신 것이며, 구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요한을 특별하게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 3. 침례자 요한의 죽음(막6:14-29)

헤로디아<sup>19)</sup>의 증오심은 요한의 죽음을 야기 시켰습니다. 요한은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였을 때, 헤롯에게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라고 그의 잘못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고, 마침 헤롯의 생일날에 자신의 딸을 통해서 춤으로 헤롯을 기쁘게 하고, 요한의 머리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헤롯은 심히 근심하였지만, 결국 요한의 목을 베도록 하며,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 속에 두게 됩니다.

비록 요한의 공생애는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으나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끼친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부분에 미쳤으며, 요한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대언자 보다 더 나은 자’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19) 헤롯 대왕의 손녀. 그녀는 헤롯 아그립바 1세의 누이였으며 처음에 자기 삼촌 헤롯 빌립과 결혼했다가 그를 버리고 그의 형제 안디바에게 시집갔다. 침례자 요한이 이 일을 비난하자 그녀는 앙심을 품고 헤롯을 선동하여 그의 목을 베게 하였다(마14:3-6; 막6:17; 눅3:19).-<에스라성경사전>



###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

1. 요한은 외모 상으로 거칠고 말끔하지 못했지만 백성의 마음을 회개로 촉구하는 일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2. 그는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를 증거하고 전파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 하는 것임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진실 되게 살아가야 한다.
3. 요한은 그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자신은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는 믿음과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놓치지 않았다(요3:30).
4. 요한의 위대한 점은 그의 메시지에 있었다. 그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켰으며, 언제나 그의 메시지는 쉽고 누구나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5. 요한은 진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을 나타냈으나 그의 마음 중심은 늘 진실하였다.



### 메뚜기(Locust)와 꿀(Honey) 이야기

요한은 유대의 광야에서 생활하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 꿀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메뚜기와 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1. 메뚜기(Locust)

고대와 현대 동방 국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곤충으로, 성경에는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이 열 가지나 되며 이것들은 같은 종류에 속한 여러 단계의 메뚜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경은 메뚜기가 떼를 지어 다니는 것으로 표현하며 종종 그것이 죄 지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됨을 보여 주는데(신28:38-42; 왕상8:37; 대하6:28), 이집트에서도 열 가지 재앙 중 하나로서 메뚜기 떼가 날아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고 그것들은 우박이 남긴 땅의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먹어 치웠다(출10:4-19). 또한 메뚜기 떼의 공포는 욥2:3-10에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욥1:4에 나오는 털벌레, 메뚜기, 자벌레, 썩기벌레 등은 히브리말에서 메뚜기가 알에서 깨어나 성충이 되기까지의 여러 형태로 볼 수도 있다.

참고로 유대인들에게 메뚜기는 정결한 곤충이어서(레11:22) 먹어도 되었고, 마3:4에는 침례자 요한의 음식 중 하나가 메뚜기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계9:7-10에는 환난기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들 즉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풀려나와 전갈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주는 존재들이 메뚜기 같다고 표현되어 있다.

#### 2. 꿀(Honey)

과거에 팔레스타인에는 꿀이 많았으며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한다(레20:24). 이렇게 야생 벌꿀은 나무의 오목한 곳이나 바위틈에서 발견되는데(신32:13; 시81:16) 침례자 요한도 바로 이런 꿀을 먹었다(마3:4). 또한 성경에서 꿀은 큰 칭송을 받은 것으로 나오며(시19:10; 잠5:3; 27:7), 보통 꿀벌이 만드는 꿀은 나무에서 흘러내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요나단의 이야기에 나오는 꿀도 잘 이해할 수가 있다(삼상14:25, 27).

## 제29과 요셉.마리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가계는 위로 다윗과 유다와 아브라함까지 이르며(마1:1-15),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 거하면서 목수의 일을 하였습니다(막6:3).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유다 지파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이름은 히브리말로 '미리암'<sup>20)</sup>이라 불립니다.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요셉(Joseph)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더 하시리라'는 의미가, 마리아(Mary)의 이름에는 '괴로움', '슬픔'이라는 의미가 있다.

### 2. 중요한 성경 구절

요셉 관련	마리아 관련
마태복음1-2장, 누가복음1-4장, 요한복음1-6장, 마태복음27:57-60, 요한복음19:38-42	마태복음1-2장, 누가복음1-2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19:25-27, 사도행전1:14

### 3. 인물배경

☞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보아 매우 경건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열두 살이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눅2:41-51), 그 이후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아마도 예수님께서서는 죽을 실 때에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아 요셉은 그분의 십자가 처형 전에 죽은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 잘 알려진 것 같다(막6:3; 요6:42).

☞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행1:14)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성격을 가졌고, 예수님의 출생 관련 이야기는 마1:18-25; 2:1-23, 눅1:1-80; 2:1-52에 기록되어 있다. 또 마리아를 통한 구원자 예수님의 계보 즉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한 계보는 눅3:23-38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곧 그분께서 육체로는 고대의 대언에 따라 출생하셨음을 보여 준다. 마리아는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후에 복음서에서 다섯 차례 언급되었는데, 이 중 세 번은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관련되어 있고(마12:46-50; 눅2:49-50; 요2:4) 또 한 번은 그분께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것과 상관이 있으며(요19:26)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문 일과 관련이 있다(행1:14). 그 이후로는 사도행전부터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마리아는 등장하거나 언급되지 않는다.

20) 모세와 아론의 누이. 그녀는 모세를 궤에 넣어 강에 보낼 때에 앞뒤를 살펴보고(출2:4-5; 민26:59; 미6:4) 또 대언자로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익사시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게 하였다(출15:20-21). -<에스라성경사전>



## 마리아 그리고 요셉

### 1.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은총을 받아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 받았다(눅1:28-35).

사람이나 짐승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완전한 희생예물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러기에 아들 하나님은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고(히10:4-5), 이를 위해 어머니가 필요하셨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 놀랍고 귀중한 것이며, 특히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 곧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라는 고백은 눅1:38의 말씀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마리아는 대략 15세 정도에 이러한 고백을 하였는데, 그녀는 종교적, 인간적 관점에서 성경지식도 적고, 가난하며, 이러한 처지에서 살다가 평범하게 결혼하여 가난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게 되어 보통의 삶을 살게 될 처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천하고 영이 가난하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으며, 그녀는 대제사장이나 왕의 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영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로 드러났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신 것이다.

### 2.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눅1:46-55)

마리아는 자신의 사촌 엘리사벳이 찾아 왔을 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으며, 이 내용은 ‘찬양의 송가’라는 의미로서 ‘마리아의 송가’(Magnificat) 라고 불려진다. 또한 마리아의 노래는 가장 훌륭한 시적, 예언적, 문학작품들 중에 하나이며, 마리아의 내적 기쁨과 장차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녀의 신앙은 그녀의 찬양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능하신 분께서 큰일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흠시키고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고  
주린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 3. 복을 받은 마리아(눅1:26-38)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출생하는 큰일을 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 드러나는 마리아 숭배, 하늘의 여왕, 하나님의 어머니, 공동 구원자, 무염시태, 몽소승천 등의 교리는 마리아의 긍정적인 면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도록 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를 무시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성경 신자는 마리아를 숭배하지는 않지만, 그녀가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여인’인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마리아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겸손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을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 4. 마리아와 요셉(눅2:1-7)

역사(History)는 그분의 이야기(His story)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 가운데 그 당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였으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도록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도록 하였다. 따라서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한 요셉도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일로 마리아와 요셉 역시 세상 치리자의 명령에 따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100km나 떨어진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예언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그 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일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의 인생에 무슨 거창하고 큰 목표를 두지 않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로 이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롬8:28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이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림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재림의 역사도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 가운데 조용히 이루어 주실 것을 사모해야 한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거룩하게, 더욱 의롭게,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요, 삶이 될 것이다.



####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는 성경이 엄격히 금하는 일이다. 특히 천주교회는 마리아의 무염시태 즉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는 가증한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는 성경과 전적으로 배치된다(롬3:10, 23; 갈3:22; 요일1:8). 우리는 마리아가 자신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 즉 죄인임을 고백하였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눅1:47). 또한 천주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평생토록 처녀로 즉 동정녀로 지냈다는 ‘평생 동정 교리’를 주장하는데 이것 역시 허구이다. 마1:25; 눅2:7 등은 그녀가 낳은 예수님을 ‘맏아들’(firstborn son)이라고 하며 이로써 그녀에게 다른 자녀가 있음을 보여 준다. 마13:55-56 등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을 보여 주며, 요6:42는 마리아가 근 30년 동안 요셉의 아내였음을 보여 준다. 아마도 성령님께서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숭배하여 평생 동정녀라 부를 자들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녀의 ‘맏아들’(firstborn son)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 혹은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는 것은 극도의 신성모독이다. 또한 그녀를 중재자로 여기고 그녀에게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 역시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는 우상숭배이다(딤후2:5; 히4:16). 마리아는 구약시대의 야엘(Jael)<sup>21)</sup>처럼 여인들 가운데서 하나

21) 겐 족속 헤벨의 아내. 그녀는 자기 장막으로 피신한 가나안 족속의 군대 대장 시스라를 죽였다(삿 4:17-23). 드보라의 노래는 그녀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다(삿5:1, 24-27, 31).-<에스라성경사전>

님의 호의를 입어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삿5:24; 눅1:2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녀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다(눅11:27-28).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만(딤후2:5),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마리아도 중보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 드리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천주교의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코 하늘의 여왕이 아니다. 참고로 ‘하늘의 여왕’은 마리아가 태어나기 수세기 전 이교도들이 숭배한 어미 여신의 칭호였으며, 대언자 예레미야 시대에도 유대 백성은 하늘의 여왕을 숭배했고 그녀를 위해 구별된 의식들을 행하였다(렘7:17-20).

### 요셉 살펴보기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밴 것이 드러났는데, 그 때에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마리아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마리아를 버리려고 마음먹게 됩니다(마1:18-19). 마리아가 아이를 밴 일이 요셉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지만, 요셉은 의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는 마리아의 일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그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분명 요셉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감정을 가진 자로서 자신과 정혼하였고 자신이 진심으로 신뢰했던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큰 충격과 상상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일련의 일들을 깊게 생각하게 되었고, 요셉의 꿈속에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는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요셉을 안심시키고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하게 됩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자기 아내를 취하고, 마리아가 그녀의 만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게 됩니다(마1: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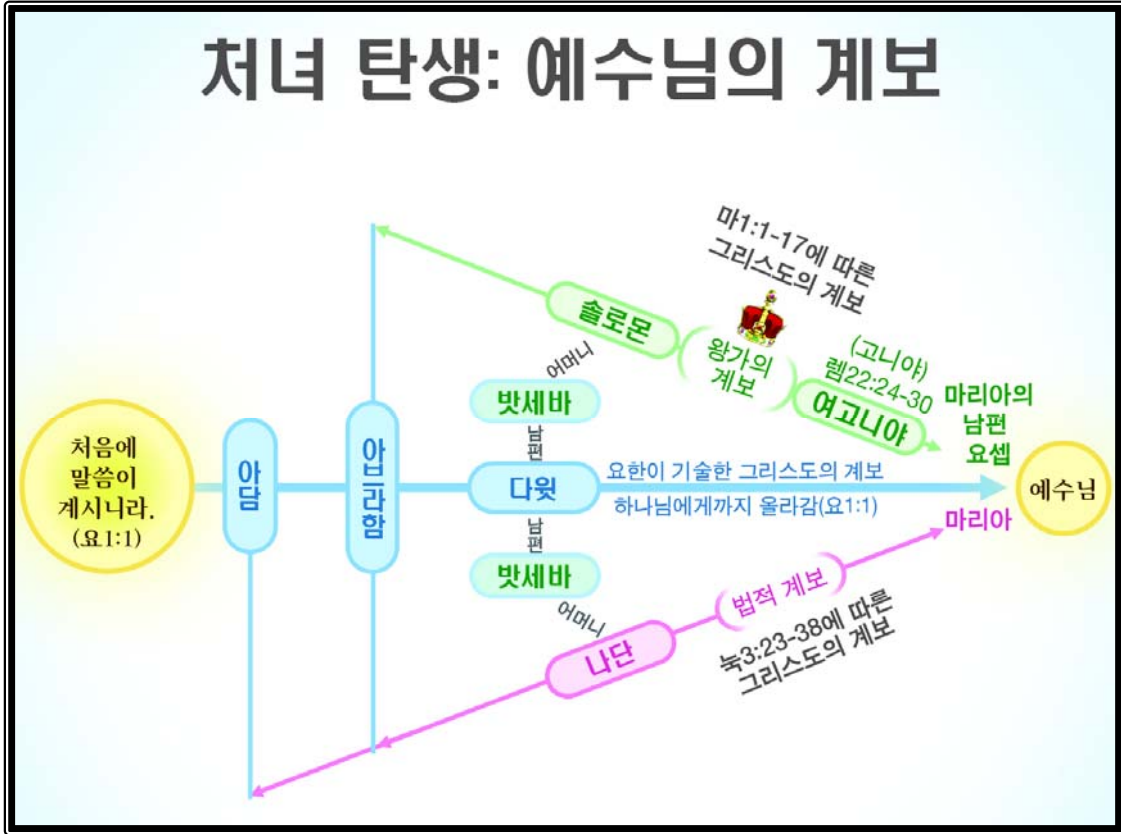
### 생각해보기-크리스마스 이야기

예수님 탄생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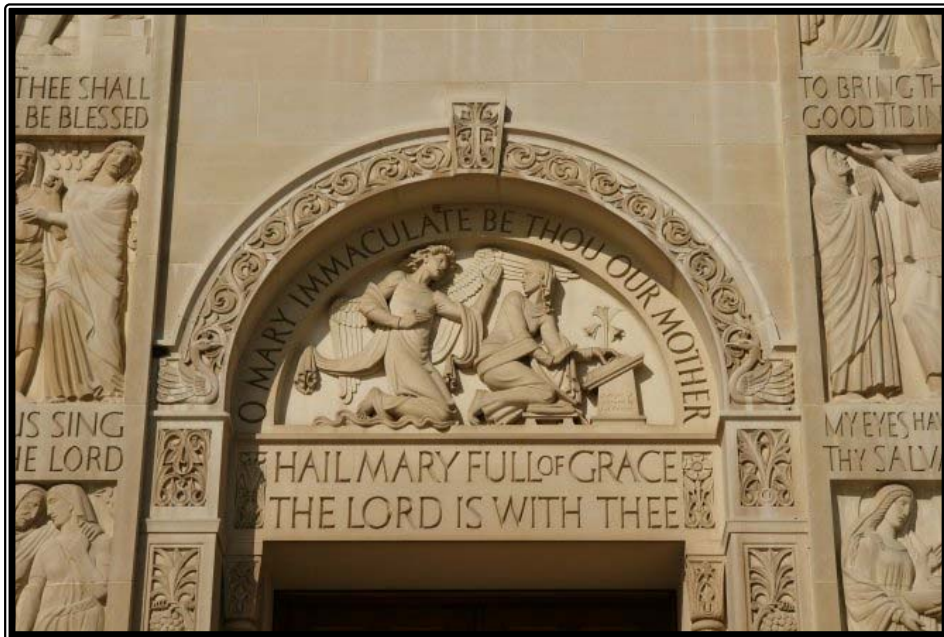
1.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자.
2.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의 삶에서 욕심을 버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힘을 다하자.
2.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요,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자.
3.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빵이시다. 당신은 그분을 먹었는가?
4. 예수님을 모실 공간과 여유가 당신의 삶 가운데에 있는가?
5.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인가?
6. 우리는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참조 그림

1. 예수님의 계보



2. 워싱턴의 마리아 무염시대 성당의 글귀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다.>

## 제30과 베다니 마리아.마르다

베다니 마리아는 그의 언니 마르다와는 대조적으로 조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며, 그녀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눅10:39-42). 또 마르다는 비록 마리아와 다른 성품을 지녔지만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으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다(요11:5).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마리아(Mary)의 이름에는 ‘고통.슬픔’이라는 의미가 있고, 마르다(Martha)는 ‘숙녀.여주인’이라는 의미가 있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마태복음 26:6-13 ▶마가복음 14:3-9 ▶누가복음 10:38-41 ▶요한복음 11장, 12:1-3

3. 인물배경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만찬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현저히 다른 성격의 소유자로 드러난다. 이곳에서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무엇이랴도 기꺼이 드리려 하였고, 마리아는 주님을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요11:1-57; 12:1-8). 또 이 사건은 눅7:37-50의 기사와 구분해야 하는데, 주님은 마리아에 비해 좀 더 능동적이고 감정적이던 마르다를 조금 책망하셨지만 이것은 결코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눅10:38-42). 따라서 우리는 마르다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진심으로 섬겼던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요11:20-28; 12:1-2).

### 마리아와 마르다

1.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인 마르다(눅10:38)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녀는 섬기는 일에 열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정성과 마음을 다해 모셨다. 그녀의 섬김은 주님께 은혜롭고 따뜻한 인상을 주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살고 있는 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다니에 있는 이 집을 가끔 방문하시곤 했다. 예수님은 이 가정에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환대를 받으셨으며, 예수님은 이 곳에서 편히 쉬실 수 있으셨다.

2.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마리아와 마르다(눅10:39)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베풀어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는 말씀을 보게 된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도 보게 된다. 그래서 많

은 사람들은 마리아는 섬기는 일에 집중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열심이였다고 생각하면서, 마리아의 신실하고 겸손한 행동에 대하여 많은 칭찬을 하는 반면, 마르다는 시기심과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리아에 비해 많이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누가복음 10장 39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마리아 뿐 아니라, 마르다도 함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개역성경은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마리아만 주의 발아래 앉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성도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에 관한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는 면도 있다.

흠정역: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KJV: And she had a sister called Mary, which also sat at Jesus' feet, and heard his word.

개역: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결론적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 모두는 예수님의 발아래 앉아 있었고, 그러한 와중에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 한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고 하시며,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마도 마르다는 그 집의 주인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실제로 예수님께 봉사하기를 원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일에 관하여 근심하는 것보다 한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어쩌면 마르다가 택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은 분주하고 분열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믿음이었을 것이다.



### 예수님의 선포와 마르다의 신앙 고백

#### 1. 예수님께서서는 마르다에게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셨다(요11:25-26).

예수님이 마르다를 통해서 보여 주신 것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 되는 말씀 중의 하나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과 권세에 관한 것이다. 특히 26절에서는 누구든지(whosoever) 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예수님께서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누구에게나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다.<sup>22)</sup>

“25.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요11:25-26).

22) 예수님께서서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을 때 요한복음 11:25-26절을 통해서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휴거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해 잘 알려주셨다. 교회의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리시킬 휴거는 이 시대에서 가장 놀랄 만한 사건이 될 것이며 그래서 믿는 신자들은 이 사건을 고대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소망이 있다.-<에스라성경사전 ‘휴거’ 요약>

## 2. 마르다의 신앙 고백(요11:27)

예수님은 26절에서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으셨다. 그리고 그때 마르다는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하게 된다.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 구약으로 살펴보는 마르다와 마리아

1. 구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들이 믿고 의지하여 살았던 중요한 진리들은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있다.

2.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마르다에게 필요한 ‘한 가지 일’은 시편 21:4의 다윗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사오니 곧 영원무궁토록 많은 날을 주셨나이다.”

3.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셨고, 마르다는 그녀의 신앙을 고백했다. 이처럼 과거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성도들은 마르다와 같이 아래의 성경 구절처럼 믿음을 고백하였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갓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in my flesh) 하나님을 보리라.”(욥19:25-26)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의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단12:2)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다.”(사26:19)

4.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sup>23)</sup>,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는다. 참고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으며,<sup>24)</sup> 마태복음 26장 7절에는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는 장면도 나온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놓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사61:1)

23) 유대인들과 고대 동방 족속들의 일반적인 관습. 그들은 머리와 머리털과 수염에 기름을 발랐으며(시 104:15; 133:2) 명절과 기쁜 날에는 온 몸에 혹은 머리카발에 기름을 발랐다(시23:5; 마6:17; 요 12:3).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름을 바르지 않는 것이 종종 애곡의 표시였다(사61:3). 이것은 또한 손님을 존중히 여기는 표시였다(눅7:38, 46).-<에스라성경사전>

24)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가 없지만 대언자나 사도들이 말하는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내적/영적 기름 부음이다. 비록 구약시대에 제사장이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은 다 상징이요 비유에 지나지 않았고 실체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에스라성경사전>

 이 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

1.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마르다의 실제적인 면과 마리아의 영적인 면을 둘 다 가진 바른 인격의 소유자다.
2. 교회는 두 가지 형태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마르다와 같은 면과 마리아와 같은 면이 주님의 사역에서 필요한 것이다.
3.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일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의무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였다.
4.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아래 앉아서 배웠듯이, 우리도 겸손히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과 믿음을 배울 수 있다.
5.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지낼 날을 대비하여 향유를 간직하였다가, 예수님께 자신의 최선을 다하였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서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감사하면서, 성도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베다니(Bethany)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으로 올리브 산 동쪽 능선에 있던 마을이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종종 이곳을 방문하셨다(마21:17; 막11:1, 12; 눅19:29).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자기들의 오라비 나사로와 함께 여기에 살았다(요11:1-57). 여기서 마리아는 주님을 장사지내는 일을 대비하여 그분께 기름을 부었으며(요12:1-50)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자신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곳 근처에서 승천하셨다(눅24:50).





##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 1. 예수님의 어머니(행1:14)

### 2.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집에 모이곤 하였다.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 감옥에서 구출된 뒤 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다(행12:12). 초대 교회에는 이렇게 손님들을 잘 접대하던 크리스천 가정이 많았으며 바로 이런 곳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곤 하였다.

### 3. 글로바의 아내

그녀는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였다(마27:56, 61; 눅24:10; 요19:25). 참고로 요19:25의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일찍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의 여행 중에 함께 하였으며 그분께 시중을 들고 그분을 따라서 갈보리까지 와서 그분의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어머니와 함께 하였다. 그녀는 또한 그분이 장사될 때에도 있었고 그분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고 그분의 부활의 날에 일찍 그분이 계신 돌무덤으로 왔다.

### 4. 나사로의 누이

### 5.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섬긴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명예를 차지한 인물이었다(마28:1-10; 막15:47; 16:1-10; 눅24:1-12; 요20:1-2, 11-18). 예수님께서 그녀의 속에 들어 있는 마귀들을 내쫓아 주셨으므로 그녀는 특별히 예수님에게 헌신하였다(눅8:2-3). 그녀는 부활의 날 아침 일찍 그분의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이 여인이 방탕한 사람이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는 없다.

### 6. 바울의 서신서에서 언급된 사랑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롬16:6)



## 두 명의 나사로(Lazarus)

### 1. 다시 살아난 나사로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친구이자 제자이다.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으며 예루살렘 근방의 베다니에 살았다. 우리 주님은 세 사람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나사로가 아플 때에 그가 아프다는 소식이 주님께 왔다. 우리 주님은 그가 무덤에 누운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베다니에 가서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침으로써 그를 살리셨다. 이 기적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모여들었고, 이로 인해 그분의 원수들은 그와 더불어 그분도 죽이려 하였다(요11:1-57; 12:1-11). 참고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그를 위해 우시며 죽음을 물리쳐 주는 분임을 보여 준다. 우리 주 예수님은 생명의 통치자요 사망과 무덤을 이긴 분이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분을 친구로 둔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행복한 것이다(요11:25).

### 2. 거지 나사로

예수님께서서는 비유가 아닌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 지옥의 참상을 보여 주시면서, 부자의 대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를 언급하셨다(눅16:19-31).



## 제31과 야고보

신약 성경에는 세 명의 동명이인으로 야고보(James)가 40번 이상 나오는데, 우리는 이번 과에서 세 명의 야고보 중에서 예수님의 형제이자 야고보서의 저자이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서 예루살렘에 거하였던 야고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행15:13).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야고보(James)의 이름에는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야고보는 히브리말 야곱(Jacob)을 영어로 표현한 이름이다.

### 2. 중요한 성경 구절

- ▶ 마태복음 13:55-57      ▶ 마가복음 6:1-6      ▶ 사도행전 1:13-14; 15:13-23
- ▶ 고린도전서 15:7      ▶ 갈라디아서 1:19; 2:9-12      ▶ 야고보서 1-5장      ▶ 유다서 1장

### 3. 인물배경

복음서는 분명하게 야고보와 요세<sup>25)</sup>와 유다와 시몬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며 그분의 어머니와 누이들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그들의 이름을 밝힌다(마12:46; 13:56; 막3:31; 6:3; 눅8:19). 또한 성경의 기록자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사도 야고보와 유다를 구분하고 있다(요2:12; 7:3-10; 행1:13-14). 그러므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실제로 주님의 형제였음이 확실하다. 참고로 야고보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알패오의 아들로써 예수님의 사촌인 야고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대개의 경우 마리아의 영구적 처녀성을 주장하는 데서 오는 논쟁이지만, 신약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과 여러 자매들을 둔 가정에서 성장하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James)

#### 1. 세배대와 살로메의 아들

그는 다른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 ‘큰 야고보’라 불렸고, 열두 제자 중 하나였으며 사도요한과 형제였다(마4:21; 27:56; 막15:40 비교). 또한 그는 갈릴리 벳새다 출신이었으며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막1:20, 29). 주님의 승천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주후 44년에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 사도들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자가 되었다(행12:1-2).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야고보서의 기록자라고 생각한다.

25) 참고로 요세(Joses)는 성경에 다음과 같이 세 명이 있다. 1. 예수님의 형제 중 하나(마13:55; 막6:3)

2. 알패오(글로바)와 마리아의 아들(마27:56) 3. 바나바(행4:36)-<에스라성경사전 요약>

## 2. 알패오<sup>26)</sup>와 마리아의 아들

그는 '작은 야고보'로 불리며 또 다른 사도였다(마10:3; 막3:18; 눅6:15). 그의 어머니는 다른 마리아였으며 그의 형제는 요세였다(마27:56; 막15:40). 참고로 알패오는 마리아의 남편(요19:25)으로 그는 글로바(Cleophas)라고도 불렸다. 단, 눅24:18의 글로바는 다른 사람이다.

## 3.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갈1:19)



### 야고보 이야기

#### 1. 마태복음은 야고보를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한사람으로 기록했다(마13:55-56).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기간에 자신이 30년 동안 사셨던, 예수님의 도시 곧 나사렛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있는 일들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궁금해 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형제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 ▶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 ▶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 ▶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 ▶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 ▶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 2. 마가복음도 야고보를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한사람으로 기록했다(막6:2-3).

마가복음 또한 예수님의 형제 관계에 대해 마태복음과 같은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에게는 예수님의 형제 관계들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며, 마가는 사실적인 인물들을 간단명료하게 기록했습니다.

#### 3. 야고보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믿는 자가 아니었다(마13:57-58, 막6:4-6).

예수님께서서는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상히 여기시기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아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분명하게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한 집에 살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격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에게 끼친 예수님의 영향력은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

26)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마10:3; 눅6:15).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자매인 다른 마리아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다(요19:25). 요19:25, 눅24:18, 마10:3을 비교하면 알패오가 글로바임을 알 수 있다. 즉 알패오는 그리스 이름이고 글로바는 히브리 혹은 시리아 이름이다.-<에스라성경사전>

#### 4.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고전 15:1-7).

야고보가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나타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는 열 두 제자 그리고 오백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으며, 그 뒤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야고보를 언급했는데 아마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 야고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유력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바로 그 야고보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야고보를 주의 형제(the Lord's brothe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5.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분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사람들은 올리벳 산(올리브 산)에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의 제자,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에 힘썼다고 이야기하며, 대략 이곳에 함께한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행1:12-15). 당연히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 6.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된 야고보

야고보는 게바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으며,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조직에서 지도자요, 수석장로요, 목회자로 나타납니다. 또 그는 예루살렘 회의를 관장했으며, 확정된 회의 결과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갈2:9-12, 행12:17; 15:13-34; 21:18).



#### 야고보서 살펴보기

야고보서의 저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이며,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이 서신을 보냈다(약1:1).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 하지 않고, 종(servant)이라고 칭하며, 대략 이 서신은 A.D. 45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sup>27)</sup> 어떤 이는 야고보서를 신약성경의 잠언이라 부르며, 이 서신은 1차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야고보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1.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믿음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재림의 소망을 보여준다.
2. 야고보서는 초기 사도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거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친다.
3. 야고보서는 로마서처럼 상세하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서 어떤 행위가 나와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실제적인 생활지침서이다.

27) 참고로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야고보 즉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한 사도 야고보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서 유래되었다(1:1). 또 주님의 승천 이후에 큰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주후 44년에 해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 사도들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자가 되었는데(행12:1-2),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야고보서의 기록자라고 생각한다. -<에스라성경사전>

4. 야고보서는 성도들이 고통과 핍박 중에서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권면한다.
5. 야고보서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 가운데서, 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악한 행습을 지적하고 그들의 위선을 비판한다.
6.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임을 확증한다.

### 야고보서 요약

장	요약
1장	<p>■야고보는 실제적이며 경험적으로 야고보서를 썼는데, 그는 서신의 서두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완전하게 이루어,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한다(약1:2-4).</p> <p>■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하며(약1:5-6),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약1:22), 이것은 각 사람에게 거울을 주는 것과 같으며, 이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유(liberty)를 가져다준다(약1:22-25).</p>
2장	<p>■야고보는 신자들의 신앙태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는 강력한 충고를 준다(약2:1-13).</p> <p>■야고보는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약2:14-26). 그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했는데, 이 설명이 행함에 대한 오해를 방지해주고 있다.</p> <p>■믿음으로 인한 아브라함의 칭의(창15:6)는 언약의 인침인 할례 전에 있었다(창17:10).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희생물로 드리려 한 것도 20여년 후에 있었던 일이다(창세기 22장).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은 이미 이십여 년 동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행함은 믿음을 의롭게 한다.<sup>28)</sup></p>
3장	<p>■야고보는 또다시 실제적인 문제로 붙이요, ‘불법의 세계인 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약3:5-10). 그렇기 때문에 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제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p>
4장	<p>■야고보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말했다(약4:1-10). 특히, 야고보서 4장 7-8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실천적인 부분의 말씀 중 하나이다(약4:7).</p>
5장	<p>■기도에 관한 야고보의 가르침은 실제적이며 근본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약5:13-18).</p>



## 행위(Works) 이야기

성경에서 행위(Works)는 믿음과 대조해서 쓰일 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율법의 행위는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롬4:2, 6; 갈2:16).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는 말씀(롬4:2)과 야고보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약2:21)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데, 이것은 사도 야고보가 말한 행위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약2:14-26). 물론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믿음 더하기 행위 혹은 행위로 인한 구원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오직 은혜든지 행위든지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롬 11:6). 또한 기록하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물이 자기 행위의 선함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 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선한 행위를 하는 데 힘을 써야 하며(엡 2:10) 참 생명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편은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며(시33:4; 92:5; 104:24)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일들을 자세히 보여 주는데(요10:25-38), 사람의 일 혹은 행위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며 이 두 부류가 종종 함께 언급됩니다(롬13:3, 12; 히6:1, 10).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바른 행위 혹은 일을 나타내야 하며(마5:16; 계3:8), 어둠의 일들(롬13:12; 엡5:11)과 육신의 일들(갈 5:19)은 나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고전3:13에 나오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는 말씀에서도 일(work)이라는 말은 '수고하다' 혹은 '일하다'를 뜻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행한 행위나 업적 등을 말합니다(고후5:10 참조).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그분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며(요6:29), 사람의 선한 일 혹은 선한 행위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엡2:8-10).



## 야고보 관련 구약성경 구절들

-아래 몇 가지 구절들은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설명해줍니다.

1. 요한복음 7장 2-3절의 장막절<sup>29)</sup>은 레위기 23장 34절, 느헤미야 8장 14-15절과 관계있다.
2. 요한복음 1장 3-5절은 시편 69편 8절의 성취이다.
3. 사도행전 15장 5절은 레위기 12장 3절에 대하여 설명한다.
4. 사도행전 15장 29절은 창세기 9장 4절에 관하여 언급한다.
5. 야고보서 1장 10-11절은 이사야 40장 8절에 대하여 설명한다.

28) 의롭게 됨(be justified)과 관련한 성경의 두 용례는 1.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칭의(롬 3:28; 롬4:2) 2.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 '옳다고 인정받는 것'의 의롭게 됨(딤후3:16, 롬3:4; 마11:19)이 있으므로 잘 구분해야 한다.-<사랑침례교회 야고보서 강해 중>

29)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집의 지붕이나 뜰이나 거리에 나뭇가지 등으로 초막을 만든 데서 유래된 명절. 느헤미야는 그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올리브 산에서 올리브, 종려나무 등의 가지를 모은 것을 묘사하고 있다.-<에스라성경사전>

## 제32과 가롯 유다

가롯 유다(Judas Iscariot)<sup>30)</sup>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며, 그의 이름인 가롯 유다는 단순히 '가롯의 아들' 혹은 '가롯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의 신임을 얻어 돈을 관리하고 그들을 먹이는 일을 담당하였다.<sup>31)</sup>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유다(Judah)의 이름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있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 마태복음 10:2-6, 26:14-25, 26:47-50, 27:3-10
  - ▶ 요한복음 6:70-71, 12:3-8, 13:21-35                      ▶ 사도행전 1:16-19

### 3. 인물배경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여러 곳을 다니며 선포하고 기적을 행할 때에 유다도 함께 동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도 그는 그들의 공동 재산 중 일부를 취해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며(요 12:6) 마침내 돈을 받고 자신의 주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은 서른 개로 종교 지도자들과 약정을 맺은 뒤 밤에 무리를 이끌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을 안내하였지만, 모든 결과를 보고는 후회하고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 자신이 한 일을 되돌리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돈을 버린 채 목매달아 죽고 말았다(마27:3-10, 행1:18). 결국 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한 점의 죄도 없는 분임을 보여 주었으며(마27:4) 그의 종말은 위선과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마27:5; 요17:12; 행1:25).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의 유다라는 이름은 배신과 변절 그리고 죄악에 영합하는 이름이 되어버렸는데, 유다(Judas)는 히브리식 유다(Judah)라는 이름의 그리스말 이름으로, 시몬의 아들이다(요6:71). 가롯은 그의 별명이며 그것은 12제자들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다대오'라 불리는 유다(야고보의 아들, 마10:3)와 구별하기 위해 '가롯 유다'라 칭하였다(요 14:22). 이렇듯 가롯 유다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가 유대(Judea) 지역의 도시 출신인 반면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갈릴리 출신의 농부, 어부, 노동자 출신의 제자들 보다 어느 정도는 교육을 더 받은 자임을 보여준다.

30) 이스가리옷 유다(히브리어: קַרְיֹוֹת אִישׁ יְהוּדָה) 또는 가리옷 사람 유다, 가롯 유다는 신약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나,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기독교에서는 최대의 죄인이자 악마의 하수인, 배신자의 대명사로 불린다. '이스가리옷'이란 말에는 '가리옷(남부 유대의 지명) 사람' 외에 '암살자', '가짜', '위선자', '거짓말쟁이', '단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키백과>

31) 가롯 유다(Judas Iscariot)는 'Keriot'(케리옷) 지방에서 온 유다라는 뜻이다. 케리옷은 요르단 동쪽 시리아 지방이며, 유다는 그 지방 출신의 반(半)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마귀라고 하셨다(요6:70-71). -<마태복음강해 제72과 중>



## 신약성경이 말하는 가롯 유다

1. 복음서는 12제자들을 소개하면서 항상 유다를 마지막에 놓았다(마10:4, 막3:19, 눅6:16).

가롯 유다는 12제자들 중 항상 마지막으로 소개되며, 복음서 기자들은 각각 세 구절 모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며 배신자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 마10:4-“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롯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 막3:19-“가롯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 눅6:16-“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롯 유다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2. 예수님은 유다를 <마귀>라고 하셨다(요6:70).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택한 열둘 중에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마귀(a devil)이며, 자신을 팔아 버릴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참고로 요13:2에는 마귀(the devil)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요13:27에는 예수님께 빵 조각을 받은 뒤 사탄(Satan)이 유다 안에 들어갔다는 말씀도 나온다.

3. 요한복음은 유다를 <도둑>이라고 표현했다(요12:6).

요한복음 12장에는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나오며, 마리아는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된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어찌하여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며 마리아를 책망하였는데, 요12:6은 가롯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방을 맡아서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가는 도둑(thief)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참조-요13:29).

4. 예수님께서서는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 부르셨다(요17:12).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며, 특히 요17:12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함이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 구절에서 가롯 유다를 가리켜 멸망의 아들(the son of perdition)이라고 말씀하셨다.<sup>32)</sup>

5. 가롯 유다는 수제사장들과 은 서른 개의 언약을 맺어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마26:14-16).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장사지낼 날을 예비해 본인에게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비난하는 유다를 책망하셨는데(요12:7-8), 아마도 유다는 자신의 거짓된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서 마음속으로 크게 분개하였을 것이다. 이후 가롯 유다는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은 서른 개의 언약을 맺게 되며, 유다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게 되는데(마26:14-16), 결국 유다는 은 서른 개를 받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대언을 성취하게 되었다(슌11:13). 참고로 출애굽기를 보면 은 삼십 세겔은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그들이 죽게 될 때, 남종과 여종의 주인에게 주는 몸 값 정도였다(출21:32).

32) 멸망에 들어가기로 정해진 자. 가롯 유다와 적그리스도가 이 호칭을 받았다(요17:12; 살후2:3).

## 유다의 배반

1. 복음서는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사복음서의 기록자들은 마26:20-25, 막14:17-21, 눅22:21-22, 요13:21-27에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여 전해줍니다.

2.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서는 12제자 중 한사람이 주님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으며, 특히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마26:24, 막14:21).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겐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마 26:24)

3.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마26:47-50).

유다는 칼과 몽둥이를 가진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이들에게 자신이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표적(sign)을 주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유다는 ‘선생님이여, 안녕하십니까?’라는 잔인한 인사를 하게 되었고, 바로 그때 사악한 무리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게 됩니다.

## 유다의 돌이킴(마27:3-10)

가롯 유다는 마귀(요6:70) 혹은 마귀의 아들입니다.<sup>33)</sup> 결국 그는 뜻을 돌이키며 회개하였으나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마27:3-4). 참고로 회개(repentance)는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꾸어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인데, 가롯 유다처럼 단순히 자기가 행한 일을 후회하는 경우에도 영어로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마27:3). 분명한 것은 유다는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행위만을 가지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서른 개를 가져다주는 종교적 행위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서른 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주며”(흠정역-마27:3)

“Then Judas, which had betrayed him, when he saw that he was condemned, repented himself, and brought again the thirty pieces of silver to the chief priests and elders,”(KJV-마 27:3)

반면에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공언하고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배신을 직접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비통하게 울며 회개하였습니다(마26:69-75). 베드로의

33) 멸망의 아들, 마귀의 아들, 적그리스도, 가롯 유다 등에 관해 자세한 것은 <천사와 UFO 바로 알기, P95~1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편집주



회개는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함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회개였으며, 자신의 절망과 취약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은 바른 회개였습니다. 베드로의 회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를 용서하셨으며(요21:15-18), 그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사역자, 그리스도를 위한 으뜸 증인, 목숨을 바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 가롯 유다의 자살

성경 기록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전에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비통하게 우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또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긴 후 예수님이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키지만, 결국 스스로 목을 매서 목숨을 끊는 장면도 보여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는 뜻을 돌이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서른 개를 다시 가져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고 고백하지만,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차갑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가져온 은 서른 개도, 그의 죄의 고백도 단번에 내치게 됩니다. 결국 가롯 유다는 밀려오는 죄책감과 자괴감 속에서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는 그곳을 떠나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게 됩니다(마27:3-5).

☞ 어쩌면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정죄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마27:3-4절). 하지만 유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았으며(마12:14; 21:39, 45; 26:15 등), 혹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신다고 해도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고 무죄한 피 곧 그리스도의 피를 그의 손에 묻혔습니다(행20:28).

### 바르게 알기-그리스도의 피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기 때문에(레17:1-16) 구약시대에는 피를 제단과 궁핍의 자리에 뿌렸고 이것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과 깊은 관련이 있다(엡1:7; 요일1:7).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교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인데,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그분의 죽음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그분의 죽음에는 피가 흘러져야 한다(출12:6-7; 레16:6, 14-15). 왜냐하면 그것은 피가 혼을 속죄하기 때문이다(레17:11).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의 사면을 위해 흘려졌으며(마26:28)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것이다(행20:28).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신성하며(행20:28),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대속하고(엡1:7; 골1:14; 벧전1:18-19; 계5:9) 썩지 아니하며(벧전1:18-19) 사람과 하나님간의 화해를 도모하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며(롬5:9)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여준다(엡2:13). 또 그 피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골1:20) 우리를 용서하며(엡1:7; 골1:14; 히9:22)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히9:14) 하늘의 것들을 정결하게 하며(히9:23)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 깨끗하게 한다(요일1:7; 계1:5; 7:14).



### Q&A-그리스도인이 자살해도 구원이 유지되나요?<sup>34)</sup>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는 성도에게도 한 번 받은 구원이 유지되는가를 묻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구원과 그 구원의 유지는 사람의 힘과 능력에 따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이 나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롬 11:6; 히7:25).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곧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요3:15-16). 그러므로 구원받은 뒤에도 내가 행하는 일로는 구원의 유지와 구원의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영원한 구원을 취소하실 수 있는 분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직 하나님밖에 안계십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번 주신 구원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 받은 이후에 살인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음행과 살인 교사 등의 죄를 지은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다윗은 구원 받은 이후 그의 범죄로 인해 구원을 잃었습니까? 이에 대해선 다윗이 나단 대언자로부터 자신의 죄들 곧 총신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를 지적 받고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52편 12절에서 분명하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자살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멸하는 살인의 한 종류입니다. 분명한 전제 조건은 구원받은 성도가 자살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자살하면 구원을 잃는다는 주장이 팽배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에서 분명히 해 둘 말은 자살해도 구원이 유지되니 자살해도 좋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자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혹여 라도 성도가 자살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떼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롬8:38-39)

34) 사랑침례교회 정동수목사님 <성경Q&A NO.18> 요약

## 아겔다마(Aceldama)와 힌놈(Hinnom)의 골짜기

가롯 유다는 은 서른 개를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제사장들은 그 은들을 거두며, 그것은 피 값이므로 그것들을 성전 보고에 넣어 두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하고, 나그네들을 문기 위해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에 그 밭은 계속 피 밭(the field of blood)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의 성취였습니다.<sup>35)</sup>

### 1. 아겔다마(Aceldama)

‘피밭’이라는 뜻으로, 가롯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대가로 받은 30개의 은으로 수제사장들이 사들인 예루살렘 남단의 조그만 밭이다(마27:8; 행1:19). 이 돈은 피 값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 거룩한 용도에 쓸 수 없다고 판단되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매장지로 삼는데 사용되었다. 유다는 이 밭을 그의 돈으로 산 것으로 되어 있으며(행1:18), 유대 전통은 이곳이 남쪽에 있는 힌놈의 골짜기 부근의 경사진 언덕에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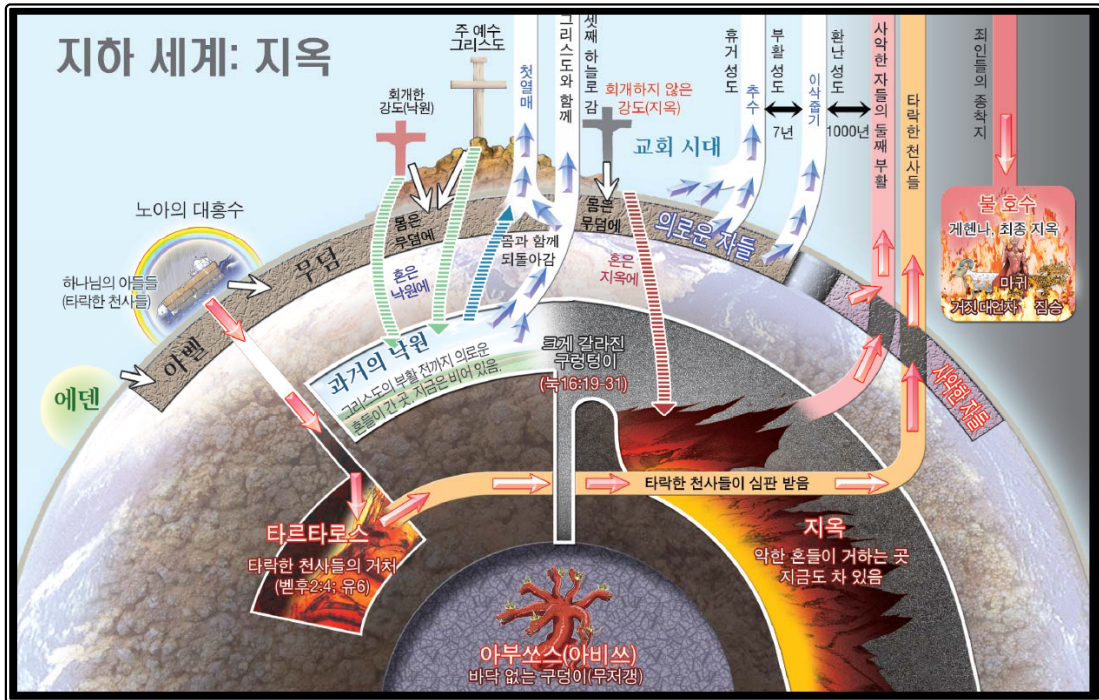
### 2. 힌놈의 골짜기 혹은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

예루살렘 남쪽의 좁은 골짜기로 기드론 계곡으로부터 서쪽으로 올라가서 기혼 계곡을 통과한다. 이곳은 예전에 물이 많고 나무가 많았다. 유다와 베나민의 경계가 여기를 지나갔으며(수 15:8; 18:16; 느11:30) 이곳의 남동부 깊은 곳 실로암 근처에서 우상숭배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자녀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서 몰렉에게 바쳤다(왕상11:7; 왕하16:3; 렘32:35). 이러한 가증한 희생을 드린 장소는 도벳이라 불리기도 하였는데(사30:33; 렘7:31) 이는 복을 뜻하는 히브리말 ‘토프’에서 나왔고 그 까닭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죽이기 위해 복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요시야 왕은 이곳을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만들어서 철저히 더럽혔으며(왕하23:10) 후대에 유대인들은 여기에 각종 쓰레기와 짐승의 사체 그리고 범죄자들의 사체를 던지고 역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불을 피웠다. 이런 것에서 게헨나(Gehenna)<sup>36)</sup>의 불이 유래되었으며 이것은 사악한 자들이 영원토록 불타는 것을 보여 준다. 후대의 유대인들은 이사야서의 두 구절을 사용하여 힌놈 혹은 게헨나의 골짜기의 불이 미래에 사악한 자들이 지옥 불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들은 이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런 연유에서 유대인들은 힌놈의 골짜기 즉 게헨나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사악한 자들이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 받는 장소로 확신하게 되었다. 이 게헨나는 신약에서 항상 지옥으로 번역되었다(마5:22, 29-30; 10:28; 막9:43, 45, 47; 눅12:5; 약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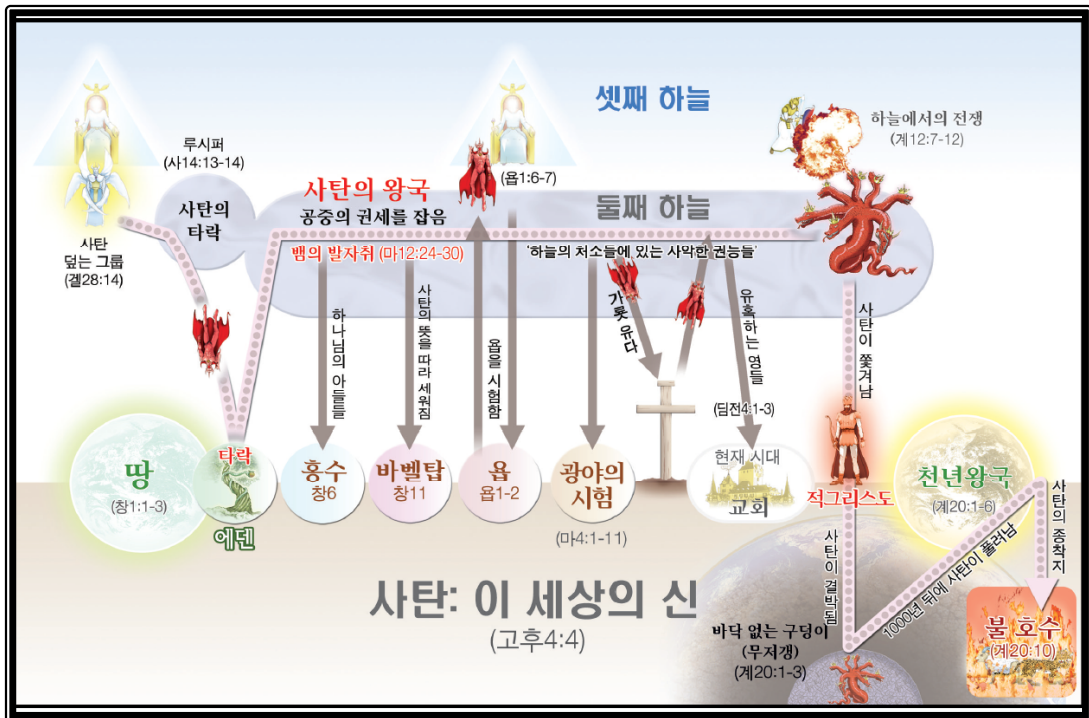
35)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9-10절 말씀은 대언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며, 스가랴 1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기억할 것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이 있으며, 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외친 말씀이 있다는 것이다(슌7:7). 따라서 마27:9-10절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사랑침례교회 정동수목사님 <마태복음 강해 74과> 中

36)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몰렉에게 바치던 골짜기. 구약성경에서 이곳은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불렸다(왕하23:10; 렘7:31; 19:2-6). 후에 여기에서는 쓰레기를 태워서 불이 끊이지 않았고 예수님은 게헨나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하셨다(사66:24; 마5:22, 29-30; 10:28; 18:9; 23:15, 33; 막9:43, 45, 47; 눅12:5). 게헨나는 불 호수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계 19:20; 20:10, 14-15).-<에스라성경사전>

**참조1-지하 세계(지옥)**



**참조2-사탄(이 세상의 신)**



## 제33과 도마

도마(Thomas)는 그리스말로 디두모(Didymus)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마10:3; 요 20:24). 아마도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갈릴리 사람이었을 터이지만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다(눅6:13-15). 그는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주님께 헌신하였으며, 자신이 확신한 일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옮기는 좋은 사람이었다. 처음에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나 나중에 그분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다(요11:16; 14:5-6; 20:19-29).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도마(Thomas)라는 이름에는 아람어<sup>37)</sup>로 '쌍둥이'라는 의미가 있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마태복음 10:1-6   ▶ 요한복음 11:1-16, 14:1-6, 20:19-31, 21:1-2   ▶ 사도행전 1:13
3. 인물배경

도마의 이름은 '쌍둥이'이라는 의미가 있기에, 아마도 도마는 쌍둥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형제 관계를 잘 알지 못하지만, 도마는 갈릴리 지방 출신이며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그의 부모님이나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없지만, 우리는 도마의 성품과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와 관련된 말씀들을 통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요20:24-29)

1. 위대한 신앙고백  
열두 제자 중의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자신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는 말을 전하자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할 만큼 큰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요20:24-26). 하지만 여드레가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한 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서는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주'(my Lord)이시며, '나의 하나님'(my God)이시라는

37)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매우 유사한 언어로 일반 사람들의 구어(口語)로 자리 잡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에스라성경사전>

위대한 신앙고백을 하게 되며, 예수님께서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20:27-29).

## 2. 믿음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복

예수님께서서는 도마의 불신과 연약한 행동들을 통해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지게 된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도마를 포함한 그분의 제자들의 전체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었고, 그들의 삶에 완전한 혁명을 일으켰으며 그들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된 것입니다.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께서 신자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는 곧 그분의 주권을 승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와 전 인류에 대한 유일한 주권자요, 세상의 창조주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시2:4; 8:1; 114:7). 그래서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요20:28)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 주(Lord) 바로알기

1. ‘주’는 LORD 혹은 Lord이며 성경에서 8,000여 번이나 나올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단어이다. 비록 권위자나 주인을 가리킬 때도 주(主)라는 호칭이 사용되지만(창45:8; 룻2:13; 요 15:20; 갈4:1) 구약성경은 거의 독점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창조물의 주라 부른다(창 15:1-2; 신3:3-24; 수7:8; 삿6:22; 삼하7:18; 시2:4; 8:1; 69:6).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창조물은 주라 불릴 수 없으며, 영어 성경에서 대문자 주(LORD)는 언제나 여호와를 가리킨다.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동일하시므로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기에 신약성경에서 주라 불리며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자주 언급된다(고전12:3).
2. 기존의 우리말 성경은 미국표준역의 영향으로 구약의 LORD를 여호와로 표현하였으나 이 경우에는 신약과 구약의 중요한 개념 특히 재림과 관련된 주의 날 개념이 변하게 된다. 즉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하고 신약에서는 ‘주의 날’로 하면 그 둘이 같음을 알기 어렵다.
3. 주와 관련해 주의 이름에 대해 언급하자면, 큰 글자 표기, LORD 즉 ‘주’는 결코 호칭이 아닌 이름이며 성경 자체가 이를 확증해 주고 있다(렘16:21). 따라서 구약성경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욘2:32) 등에 나오는 ‘주의 이름’(the name of the LORD)이라는 표현(총 88번)은 주의 이름이 따로 있어 그것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고, ‘of’가 동격의 of이므로 주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기도를 끝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러한 이유로 초대 교회 성도들은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기에 많은 핍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재림에 소망을 둔 마라타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이다(고전16:22; 계 22:20).



## 신약 성경이 말하는 도마

### 1. 도마는 감정에 움직이는 사람이었다(요11:16).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다시 들어가시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시려 하자 심히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도마는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을 전합니다(요11:16).

“그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도마의 말이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자포자기 하며 예수님에 대한 회의감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반응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염려와 근심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채로 예수님과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던 제자들 가운데서 도마야말로 가장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면서도, 동료 제자들을 향해서도 빠른 판단과 결정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 도마는 어떤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인물이었다(요14:5).

예수님께서 요14:1-4에서 제자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지만 도마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And whither I go ye know, and the way ye know.)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요14:4),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라고 즉각적이고 용감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마의 질문과 그를 향한 예수님의 응답을 통해 다시 한번 놀라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요14:6).

### 3. 도마는 의심의 사람이었다(요20:24-25).

보통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이름은 12제자의 이름에 들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사도들에게 명령들을 주실 때에 도마는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행1:8). 많은 부분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태국의 파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이교도 제사장들을 격노케 하였으며, 인도 코프만델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죽었다고 하며, 지금도 인도에는 성 도마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위대한 신앙고백을 하였고, 그의 삶은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삶으로 마감되었습니다.



### 아람어. 시리아. 히브리어

1. 아람어(Aramaic)-아람(Aram)은 시리아와 거의 동의어이며, 이것은 팔레스타인 북동부 즉 동쪽으로는 티그리스 강, 북쪽으로는 다소,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가리키는 히브리말이다. 히브리어와 매우 유사한 아람어는 일반 사람들의 구어(口語)로 자리 잡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지금도 모술 근처의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사용한다. 참고로 창31:47; 왕하18:26; 렘10:11; 단2:4-7:28; 스4:8-6:18; 7:12-26 등은 아람어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시리아(Syria)-시리아어는 시리아, 레바논, 터키,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중동의 기독교에서 사용된 고전어이며, 아프리카아시아어족 셈어파에 속하는 아람어의 일종이다. 중세 이후로는 시리아 정교회의 교회 언어로만 사용되고 있다. 시리아는 히브리말로 아람이며 지중해와 타우르스 산과 티그리스 사이의 지역을 포함하므로 히브리말로 '두 강의 시리아'를 뜻하는 메소포타미아도 포함한다. 레바논 산지를 제외하면 이곳은 평지이다. 시리아는 로마 제국에 넘어간 후에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 되었고 유대 땅은 비록 다른 총독이 있었지만 시리아에 부속된 상태였다. 그래서 시리아의 총독은 유대 땅의 총독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3. 히브리어(Hebrew)-구약성경의 히브리어는 셈족어에 속한 언어로서 아라비아를 포함한 서부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등지에서 폭넓게 사용되었다. 히브리어는 거룩한 말이라 불렸으나 바빌론 포로 때에 혹은 귀환 후에 아람어가 백성의 일상어로 자리 잡으면서 대개 종교적인 용도로만 쓰이게 되었고 특히 신약시대에는 아람어가 팔레스타인에서 일상어가 되었다. 구약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된 일부분(단2:4-7:28; 스4:8-6:18; 7:12-26; 렘10:11 등)을 빼고는 전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히브리어는 아래와 같이 22개의 자음으로만 구성되었고 오른쪽에서부터 쓰고 읽는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 부호 없이 읽었는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으면서부터 바르게 읽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마소라들이 모음 부호를 고안하고 이것을 자음의 상하에 붙여 전통적인 읽기 법을 표시하였다. 또 히브리어는 간결함, 곧바름, 웅장함 등에 의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가장 적합하였다.







### 성경이 말하는 이름(Names)

1.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아주 중요하였다. 그래서 이름은 가족의 특성이나 아이의 출생과 관련된 사건이나 한 사람의 삶에서 후대에 이루어진 어떤 특별한 사건 등을 기념하는 표적이었다. 참고로 이스마엘, 에서, 야곱, 모세, 이가봇 등을 비교해보기 바란다(창16:16; 25:25-26; 출2:10; 삼상4:21).
2.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복합 이름도 매우 흔하였으며 특히 하나님의 이름인 ‘야’와 ‘엘’ 그리고 ‘여호’가 이름에 함께 쓰이기도 하였고 엘리에셀, 사무엘, 요시야, 아도니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체 구절이 이름이 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엘로에네’는 “여호와께서 내 눈이시다.”(대상4:36)라는 뜻이다.
3.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대개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름 즉 한 가문의 성(姓)들이다(눅1:61).
4. 동방 사람들은 조그만 이유로도 이름을 자주 바꾸었으므로 성경에는 이름이 여럿인 사람이 많이 등장한다(룻1:20; 삼하23:8; 요1:42). 왕들도 종종 관원들을 임명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으므로(단1:6-7) 새 이름에는 종종 명예와 특권 등이 암시되어 있다(계2:17). 또 같은 히브리말인데도 어미 등이 조금 달라지면 영어나 한국어에서는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느6:1, 6의 ‘게셈’과 ‘가스무’를 보기 바란다.
5. 히브리 이름은 종종 그리스 이름으로 바뀌면서 거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Elijah에서 Elias 혹은 Elie로 바뀌었다. 한편 히브리 이름이 같은 뜻을 지닌 그리스 이름으로 완전히 대체되기도 하였는데 그 예로 도마와 디두모 그리고 다비다와 도르가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죽은 자의 이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룻4:1-22에 설명되어 있다. 한편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것은 그의 가족을 멸절시키는 것을 뜻하였다(시9:5).
6.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완전함을 대신해서 그분의 이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마28:19)는 말씀의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인격과 권능과 존재를 두고 행하라는 뜻이며 이것은 마치 판사가 “내가 법의 이름으로 이러한 선고를 내린다.”고 말할 때의 ‘이름’의 용례와 비슷하다.
7. 일부 교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예수 유일주의’(Jesus Onlyism)를 주장하면서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8.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요14:14)는 말씀에 나오는 이름 역시 그 용례가 비슷하며 기도를 끝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주문처럼 예수님을 언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전 인격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것을 뜻한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이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병자를 고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행4:10) 이런 것 역시 이름이 한 존재의 전 인격을 뜻함을 잘 보여 준다.

## 제자들의 최후<sup>38)</sup>

성경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제외하고는 사도들에 관한 최후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면했던 숭고한 죽음의 모습을 전승을 통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 1. 베드로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며,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만큼 자신이 고귀하지 못하다고 여겨,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후일 베드로의 시체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지하로 옮겨졌다.

### 2.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이며,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안드레는 터키 에데사에서 붙들려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 그가 달린 십자가는 두 끝을 땅에 수직으로 박은 X자형이었다.

### 3.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요한과 형제이며,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하다. 야고보의 순교는 스테반이 죽은 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당시는 헤롯 아그립바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직후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서운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는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로 참수형을 당했다

### 4.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이다. 에베소로부터 로마로 강제 송환 명령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끓는 기름 솥에 던져지는 형을 받았었다. 그러나 요한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데 성공했다. 요한은 그 후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에 의해 밧모 섬으로 추방되어 있을 때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다. 요한은 백 세 가까운 나이까지 살다가 조용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으며,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면한 사람이다

### 5. 빌립

북아시아에서 신실하게 주를 섬겼으며, 프리기아(터키 소아시아)의 해리오폴리스에서 순교했다. 그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A.D. 45년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

### 6. 마태

세리였던 마태는 태국 파티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사역 하였으며, A.D. 60년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다바 성읍에서 미늘창으로 살해당하였다. (\*미늘창 :도끼와 창을 결합시킨 형태의 옛날 무기)

### 7. 셀롯 시몬

시몬은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흑해 지역과 바벨론 등지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다. A.D. 74년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도 하며,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육신이 두 동강 나는 형을 받고 순교하였다고도 한다.

---

38) 참조: <http://blog.naver.com/bbs1383/220266788495>

#### 8. 도마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도마는 태국의 파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 제사장들을 격노케 하여 인도 코프만델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죽었다.

#### 9. 바들로매

바들로매는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잔인하게 폭행당하였으며, 포악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 10. 다대오

다대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이며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형으로 페르시아에서 순교하였다.

#### 11.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블레셋과 이집트에서 전도하다가 이집트에서 순교하였다. 그는 성전 높은 탑에서 아래로 던져져도 죽지 않아서, 나무망치로 머리를 맞고 순교했다.

#### 12. 맛디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된 맛디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하였으나 죽지 아니하여, 후에 참수형을 당했다.

#### 13. 사도 바울

처음에는 사울이라 불렸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수고를 치른 후 네로의 박해 아래 로마의 집행장에서 칼에 목이 베여 순교했다. 그가 처형당하던 당시 1만 8천여 명의 기독교인들도 함께 순교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숨어살면서, 때로는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느 시대에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참혹하게 죽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애통해 하시고 산천초목도 울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비록 한 떨기 이슬처럼 사라졌지만, 그들의 믿음과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자리를 깨닫게 합니다. 이제 신앙의 순교자들은 그들의 수고를 다 마치고 천국의 평안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던져 복음을 전해준 순교자들의 공로를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신앙의 선배들에게 버금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제34과 베드로

베드로는 열두 사도 중 하나이며 시몬(Simon)이라고도 불렸다(마16:17; 행15:14). 그는 갈릴리 벳새다 출신이며 요나의 아들로 어부였으며 결혼한 뒤에 가버나움에 거하였다(마8:14; 눅4:38). 그는 종종 자기 아내와 함께 여행하며 사역하였으므로(고전9:5)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초대 교황이 될 수 없으며, 자기 형제 안드레에 의해 예수님께 처음 소개되어 그분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다(요1:42). 아마도 이것은 그의 담대하고 확고한 성격 때문으로 추정된다.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지만, 예수님은 돌(stone)이라는 의미의 시리아 혹은 히브리 이름인 게바(Cephas)라는 이름을 주셨다. 참고로 베드로(Peter)는 게바를 그리스말로 번역한 것으로 '작은 돌'이라는 뜻이다.

#### 2. 중요한 성경 구절

▶ 마태복음 4:18-31, 16:13-23, 26:69-75, 28:16-20

▶ 요한복음 1:40-42, 20:1-8, 21:1-22 ▶ 사도행전 1-12장, 15장 ▶ 베드로전.후서

#### 3. 인물배경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son of Jonas)이었으며, 그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다(마4:18). 베드로는 '고기 잡는 곳'이라는 뜻의 벳새다<sup>39)</sup> 출신이며, 이후에 그는 가버나움에서 살았다(마8:5, 14; 요1:44). 또 마태복음 8장 14-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베드로가 결혼한 기혼자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터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주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가끔 시몬베드로와 함께 머무르셨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자기 집 근처에서 두 번째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마4:18-20; 눅5:1-11). 그의 성격을 보여 주는 기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바다 위를 걸었으며(마14:29)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증하였고(마16:16) 그분의 수난에 대해 잘못을 범하였으며(마16:22-23) 자신의 교사인 예수님을 굳게 붙들었고(요6:67-69) 성급하게 말고의 귀를 베었으며(요18:10)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공언하고는 곧 그분을 부인하였다(마26:74; 막14:29; 요13:37-38). 하지만 그는 곧바로 회개하였으며(마26:75) 우리 주님은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곧 그를 용서하였다(요21:15-18).

39) 이곳은 갈릴리의 도시로 가버나움에서 조금 북쪽으로 게네사렛 호수의 서부 기슭에 있었으며 사도 빌립,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며 주님도 여기를 자주 방문하셨다(마11:21; 막6:45; 8:22).



## 베드로의 사역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과 동반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후로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사역자가 되었다.

1. 오순절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으뜸 증인이 되었고 요한과 함께 성전 문에서 걸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으며 여러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산헤드린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였다(행4:8-21).
2. 베드로는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 부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으며(행5:1-11)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마술사 시몬을 책망하였다(행8:5-24).
3. 베드로는 룻다에서 애니아를 고치고 도르가를 살렸으며(행9:32-43) 옹바에서 환상 중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됨을 보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으며(행10:1-48) 헤롯 아그립바에 의해 옥에 갇혔다가 천사에 의해 구출되었다(행12:3-19).
4. 베드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건전한 발언을 하였는데(행15:7-11), 성경은 그 회의 이후에 그의 사역에 대해서는 잠잠하다. 참고로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했지만(갈2:9) 같은 장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9절과는 다르게 위선을 범하자 그를 면전에서 심하게 책망하였다.
5. 고린도전서와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는 고린도와 바빌론에서 사역한 것으로 보인다(고전1:12; 3:22; 벵전5:13).



## 신약성경이 말하는 베드로

1. 시몬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에 의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다(요1:35-42).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침례자 요한의 또 다른 제자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는 침례자 요한의 외침을 들었으며,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예수님이 거하시던 곳을 보고 그 날 예수님과 함께 그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온 밤을 새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2. 시몬은 예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다(요1:42).

이제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태어났을 때부터 베드로가 가졌던 그의 이름인데, 이렇게 그는 사람의 아들이자 그의 아버지가 가졌던 성품과 욕정과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할 평범한 인간의 아들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게바라 불리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이름은 새 사람에 대한 새 이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새 이름에 대한 약속은 이후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자신의 신앙고백을 한 뒤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 3. 옛 사람 시몬과 새 사람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그의 육신 곧 살과 피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요1:17). 이것은 사람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옛 성품(시몬)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고백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신앙고백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적용시키시면서 베드로에게 본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베드로야! 너의 처음 출생은 아담의 후손인 혈과 육이다. 지금 너는 믿음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곧 내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너의 옛 이름은 비록 시몬이지만 너의 새 이름은 게바(베드로)이다. 지금 너는 두 종류의 사람이다. 그것은 네가 ‘시몬’으로서는 자연인이며 죄인이지만, ‘베드로’로서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다. 너는 이제 시몬 베드로니 두 성품인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있다. 이제 너는 육과 영 사이에서 계속된 다툼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코 거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단다.”

베드로는 옛사람 시몬의 모습을 그의 육체적 생명이 다할 때까지는 결코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없었으며, 시몬이 새 사람 베드로가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옛 사람 시몬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모든 기록으로 볼 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시몬 베드로’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시몬 베드로’의 모습에서 옛 사람 시몬과 새 사람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 4. 부르심을 받은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장차 제자와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마4:18-20, 마10:2). 어느 날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베드로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한 반복된 노동과 고단한 세상사에 지치고 절망하며 고뇌하던 젊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인생의 비전으로 다가오셨고, 보잘 것 없는 어부 베드로를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길로 초대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즉시(straightway) 자신의 삶을 힘겹게 지탱해주는 자기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 5. 예수님께서서는 시몬 베드로를 통해 교회에 대해 처음 언급하셨다(마16:18).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신앙고백 뒤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흠정역)

“And I say also unto thee, That thou art Peter,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KJV)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코 교회가 시몬 베드로 위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게바'라는 이름은 그리스말로 페트로스(petros)이며, 이것은 '작은 바위' 혹은 '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8절의 반석(rock)이라는 말의 그리스말 페트라(petra)는 거대하고 강력한 바위(a mighty rock) 곧 산과 같은 반석을 말하므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 그 자신도 자신이 반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정 받은 돌', '보배로운 산 돌', '보배로운 으뜸 모퉁잇돌', '모퉁이의 머릿돌' 등으로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임을 보여주고, 성도들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영적 집으로 건축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벧전2:4-7, 참조-고전10:1-4, 마21:42-44, 단2:44-45, 신32:31).

#### 6. 베드로에게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주신 예수님(마16:19-20)<sup>40)</sup>

문(門)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 기회를 뜻하며(고전16:9; 고후2:12; 계3:7-8), 곧 이것은 복음 선포의 기회를 뜻합니다. 또한 이 열쇠는 하늘(천국)이 아니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에서 사용되어지는 열쇠입니다(마3:2; 4:17). 따라서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기회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사도행전 2장-유대인, 사도행전 10장-이방인). 참고로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는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으며,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는 권능'은 마18:18을 보면 베드로만이 아닌 열두 제자(심지어 가롯 유다에게도)에게도 주어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베드로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요20:23, 눅24:33을 보면 죄를 사면하고 그대로 두는 권능은 12명 이상에게 주어진다.
- ▶ 마16:18의 묶고 푸는 것은 실제로 갈2:1-8, 행1:15-26 등에서 이루어진다.
- ▶ 마18:18의 묶고 푸는 것은 실제로 고후2:10과 엡4:30-32 등에서 이루어진다.



#### 시몬 베드로의 마지막 행적(행15:7-10, 베드로전.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와 절망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던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양들을 먹이라는 고귀한 책무를 맡기셨다(요21:15-17).

1.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진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발언권을 얻었다(행15:7-10).
2. 베드로는 이방지역에서 자신의 두 서신을 기록했으며, 이 서신들은 베드로의 위대한 선교 사역 후에 기록된 것이다.
3.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요21:19에서 예언하신대로 죽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죽을만한 가치가 못됨을 생각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줄 것을 간청하였다고 한다.

40) 사랑침례교회 정동수목사님 <마태복음 강해 58과> 中



## 바로 알기-초대 교황이 베드로?

교황(Pope)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장이며, 우두머리 제사장으로서 ‘파테르 파트룸’ 즉 ‘아버지 중의 아버지’를 뜻하며 그래서 보통 ‘파파’(아버지)라 불린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따르면 교황이 지상 교회의 머리이며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인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임명하셨으며 그 이후에 그가 로마로 가서 25년 동안 이 직분을 가지고 그분께 봉사하였고 베드로로부터 오늘날까지 교황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있어 왔다고 주장하며 교황이 있는 교회만이 유일한 참 교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엡5:2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첨하는 말로 ‘아버지’ - 교황은 아버지를 의미함 - 랍비 또는 선생과 같은 종교적 칭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심으로써 평등의 개념을 가르쳤다(마23:8-10).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 위에 전체 교회가 세워졌으므로 그가 높은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가르치고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마16:18을 인용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글에서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라고 말한다(벧전2:4-8; 참조 행 4:11-12). 또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이며 다른 기초는 없다고 말한다(고전3:11). 하지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마16:18이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음을 증명하는 구절로 사용되고 있으며, 로마의 주교들이 베드로의 계승자임을 주장한 것은 주후 218-223년에 로마의 주교로 있던 칼릭스투스 때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천주교인들은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로서 초대 교황이라 하지만 모든 증거는 이것이 거짓임을 보여 준다.

또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곳의 주요 인사들에게 일일이 문안을 하였다. 또한 그는 여러 서신을 로마에서 기록하였다. 하지만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들은 하나 같이 베드로가 로마에 간 적이 있음을 보여 주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결코 로마의 주교가 아니었으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온 지상 교회의 수장 노릇을 하지 않았다.



##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시몬(Simon)

1.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
2. 열두 제자 중 하나이며, 가나안 사람 혹은 셀롯
3. 예수님의 형제들 중 하나(마13:55; 막6:3).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셀롯 시몬이라 말한다.
4.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마27:32)
5.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눅7:36-50)
6. 베다니의 나병 환자이며,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사람(마26:6; 막14:3, 요12:1-11 비교)
7. 읍바에 살던 무두장이. 베드로는 그의 집에 거함(행9:43; 10:6, 17, 32)
8. 사마리아의 마법사. 그는 보통 시몬 마구스(Simon Magus)라 불린다.
9. 가롯 유다의 아버지(요6:71; 13:2, 26)



## 제35과 빌립

복음 전도자<sup>41)</sup> 빌립(Philp)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 기적을 행한 인물이다(행6:5; 21:8; 엡4:11). 그는 사막에서 에티오피아 출신의 내시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침례도 주었지만, 사도는 아니었으며(행8:1, 14, 16), 아스돗<sup>42)</sup> 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해안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빌립의 이름에는 ‘용사’ 혹은 ‘말(horse)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사도행전 6장, 8장

▶ 사도행전 2:17; 6:5; 21:8-16

▶ 에베소서 4:11

3. 인물배경

빌립은 한때 가이사랴(caesarea)에 살았으며 대언의 선물(은사)을 가진 네 딸을 두었다(행 2:17; 21:8-9).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스테반이 죽은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와 사막에서 그리고 아스돗 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선포하였으며, 이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묵기도 하였다(행21:8-16). 복음전도자 빌립은 교회행정에서 사도들을 돕기 위한 일곱 명 중 한사람으로 지명되었는데, 그의 배경이나 가족에 대한 것은 성경에 특별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는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좋은 신망과 평판을 받고 있었기에 사도들을 돕기 위한 일곱 명의 자리에 쓰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 날의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이들 일곱 사람을 ‘집사’(Deacon)라고 부르는데, 집사는 ‘종’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스테반이 제일 먼저 소개되며, 두 번째로 빌립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러한 일곱 명의 집사를 뽑게 된 이유는 초대 교회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날 때 그리스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받게 되는 배급에서 빠지

41) ‘복음 전도자’(Evangelist)는 글이나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초기에는 지금의 선교사들과 비슷하게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무데나 가서 복음을 선포한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으며 빌립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행21:8; 엡4:11).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권하는데(딤후4:5), 그 이유는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스라성경사전>

42) 블레셋의 다섯 개 주요 도시 중 하나. 이곳은 유다에게 지정되었으나 그들은 그곳을 정복하지 못했다(수13:3; 15:47; 삼상5:1; 6:17; 느4:7). 여기에 다곤의 전이 있었으며 에벤에셀에서의 싸움 이후에 여기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다(삼상5:1). 그리스 사람들은 이곳을 아소도라 불렀으며 그리스도 시대에 이곳은 유대에 속했다. 전도자 빌립은 사막에서 이집트 내시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 성령님께서 그를 들어 올려서 기적적으로 아소도로 데려가셨다(행8:39-40). -<에스라성경사전>

게 되므로 이와 관련해 히브리 사람들과 발생한 교회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인들로 하여금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 사람을 찾아내도록 하였는데, 이 일꾼 명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빌립이다.



## 신약성경이 말하는 빌립

### 1.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 교회의 문제로 유대 지방 밖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 성도들과 아람어를 말하며 유대 지방에서 태어난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 사이의 갈등이 나옵니다. 이러 이유로 열두 사도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serve tables)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에 자신들의 본연의 책무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 정직하고 성령님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일꾼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사도들은 이들에게 기도하고 안수 하였고,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자라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열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사도들의 사역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쓴 사람 중의 하나가 바로 빌립<sup>43)</sup>입니다.

### 2. 복음 선포자 빌립(행8:1-15)

사도행전 8장에는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파괴되고 성도들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스테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큰 핍박을 받았고, 사도들을 제외하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교와 재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때에 빌립은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빌립은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마비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걸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사마리아인들은 북 왕국 이스라엘의 열 지파와 이방인들의 결합으로 생긴 혼혈 민족을 가리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민족적 감정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다(눅9:52-53).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란 수치스런 이름이었으며(요8:48) 그들과의 모든 관계는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요4:9).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고대하였으며(요4:25)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행8:1; 9:31; 15:3).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경멸과 증오의 대상으로 보았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사마리아 안에서 사법권이 없었지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43) 성경에는 여러 명의 빌립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복음 전도자 ‘빌립’과 벳새다 출신의 ‘사도 빌립’은 다른 인물입니다. 참고로 사도 빌립은 처음에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으나 후에는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중 하나가 되었으며(마10:3; 요1:43-48; 행1:13), 여러 차례 복음서에 등장하면서 시리아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생을 마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에스라성경사전>

### 3. 사도들의 복음사역 길을 예비해 놓은 빌립(행8:14-17)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을 듣게 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님을 받도록 합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일을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행하시는데,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새 시대를 여는 입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들부터 이방인들까지, 유대주의에서 기독교로, 유대로부터 땅 끝까지,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증인된 삶의 진행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의 맨 끝 지역

### 4.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행8:26-40)

주의 천사에게 명령을 받은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의 사막으로 가게 될 때,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내시<sup>44)</sup>는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궁금해 하는 성경기록의 한 부분을 알려주고, 자신의 입을 열어서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내시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내시는 빌립과 함께 물속으로 내려가서 빌립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 에티오피아(Ethiopia)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큰 왕국 중 하나로, 구스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자주 나온다. 또 구스(Cush)는 구스의 후손들이 거하던 지역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이집트 남쪽의 에티오피아라고 불리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에티오피아는 나일 강을 따라 이집트 남부에 위치하였는데(사18:1-7; 습3:10), 시바라는 이름은 에티오피아의 북부 지역을 가리키며 구스의 맏아들이 정착한 곳으로 판단된다(창10:7). 이 지역은 산과 모래가 많으나 대개는 물이 많고 비옥한 곳이었으며 흑단, 상아, 향료, 금, 각종 보석이 많이 났다. 이곳의 역사는 이집트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그래서 이 두 곳은 종종 함께 성경에 등장한다(사20:3-6; 43:3; 45:14; 겔30:1-26; 단11:43). 역대하 14장 9-15절에는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의 아사 왕을 공격하는 대목이 나오며, 신약성경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Candace)의 국고를 맡

44) 동방의 왕국에서는 여자들과 내부 일을 내시들에게 맡겼고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왕정의 일을 맡은 시종을 뜻했으며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종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왕의 여인들을 담당할 내시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거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에스라성경사전>

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 기사가 나온다(행8:27-40). 참고로 전통적으로 에티오피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수용하였다. 그래서 4세기 초에는 신약성경이 그리스말에서 고대 에티오피아말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 집사(Deacon)

집사<sup>45)</sup>를 가리키는 그리스말은 본래 종을 뜻하며 여러 곳에서 사역자, 종 등으로 번역되었다(마20:26; 고후6:4; 엡3:7). 사도행전 6장 1-15에는 비록 집사라고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대개 집사로 생각하는 일꾼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들은 구제물을 거두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과부와 고아와 박해받는 자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하였다. 바로 이 일꾼 사람 중에서 특별히 스테반과 빌립은 전도자가 되었다.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딤후3:8-12절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목사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집사는 반드시 남자여야 한다(딤후3:12). 이렇게 ‘집사’라는 단어가 ‘종’을 의미한다고 볼 때, 집사는 겸손히 지역 모임을 섬기는 자로 특별히 회중의 재정이나 물질적인 필요를 맡는 사람이며, 교회에는 집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목양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온전히 자신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드릴 수 있다(행6:1-7). 또한 성경의 ‘집사’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었고, 이는 스테반과 빌립이 집사였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행6:5). 결론적으로 빌립은 집사의 직분과(행6:5) 함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은사)인 복음 전도자라는 사역도 감당하게 된 것이다(행21:8, 엡4:12 비교).

참고로 목사는 감독으로서 교회를 감독하며(빌1:1) 장로로 위엄 있게 치리하고(딤후1:5) 목자로 꼴을 먹이는 의무를 수행한다(엡4:11).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요10:11), 큰 목자(히13:20), 우리 혼의 목자와 감독(벧전2:25), 목자장(벧전5:4)이시며 따라서 목사는 하늘에 계신 그분을 대신해서 땅의 성도들을 먹이는 작은 목자 혹은 보호자를 뜻한다(목사의 자격은 딤후3:1-7과 딤후1:6-9에 나와 있다). 어떤 이들은 엡4:11을 잘못 해석해서 목사, 교사 등이 직분이 아니라 선물(은사)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문맥을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다. 성경은 그 말씀에서 분명하게 목사, 교사 등의 선물을 교회에게 주셨음을 말하며 결코 개인의 선물(은사)을 말하지 않는다. 목사는 집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교회에게 주신 직분(office)이다(딤후3:1-7).

## 바로 알기-여자 목사? 여자 집사?<sup>46)</sup>

초대 교회부터 성경에는 이름 없이 주님을 섬긴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는 여자 성도들의 활동이 아주 왕성한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나 보기에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창조와 질서가 잘 지켜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딤후2:11-12).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사 교회의 두 직분인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45) [http://www.cbck.org/bbs/board.html?board\\_table=sermon3&write\\_id=788](http://www.cbck.org/bbs/board.html?board_table=sermon3&write_id=788)

46) [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154](http://www.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2_02&write_id=154)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 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딤후3:2)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혈통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지니라.”(딤후3:11-12).

여기서 나오는 감독은 교단의 감독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교단이 나오지 않으며 성경의 교회는 모두 독립/자치 교회입니다. 여기서 감독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bishop’ 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주교’라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 교단들의 감독 체제는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교’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감독은 한 지역 교회의 감독을 말합니다.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 밖에 없으며 이들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즉 여자는 이런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이 창조 질서를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개역성경도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12절은 잘 번역했으나 11절에서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개역: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딤후 3:11)

개역성경은 이곳을 ‘여자들도’라고 번역함으로써 마치 여자들도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번역하였지만, 심지어 NIV 같은 현대 번역본들도 킹제임스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곳을 ‘그들의 아내들도’ 즉 ‘집사들의 아내들도’라고 정확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역성경은 여자 집사를 인정하기 위해 이런 번역을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혈통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딤후3:11)

**참조-신약시대의 땅**



## 제36과 스데반

스데반(Stephen)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을 위해 처음에 선택된 일곱 사람 중 하나이며, 그는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맞추면서 순교하였으며(행 7:1-60) 그의 순교로 인하여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다(행 8:1-4; 11:19-21).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스테반의 이름에는 '왕관'이라는 의미가 있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사도행전 6:5-15

▶ 사도행전 7장

▶ 사도행전 8:1-2; 11:19

3. 인물배경

스데반의 이름을 볼 때 그는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으로 그리스 사람들의 말과 의견과 관습에 능하였던 것 같다(행 6:1-6). 그의 강력한 말과 논박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꿈쩍 못하게 되었고 결국 그를 산헤드린으로 데리고 가서 신성모독과 이단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하였다. 그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행한 연설은 기독교 박해자들이 결국 참 신앙을 반대해 온 사람들을 모방하는 자들임을 잘 보여 준다. 결국 그의 말을 듣던 그들은 분노하여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요 18:31 비교). 스테반의 순교 당시에 그곳에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며 사람들의 옷을 지켜 주던 다소의 사울 역시 그의 말에서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되었는데, 행 22:19-20에는 이런 것이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사울은 그리스도를 직접 보기 전까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의해 기독교로 회심하지는 않았다(행 9:1-43).

☞ 순교자(Martyr)는 교회 역사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을 말한다. 비록 이 말이 성경에 단지 세 번 나오지만(행 22:20; 계 2:13; 17:6) 스테반 이후에(행 7:59; 22:20)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켰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보다 엄청난 시련과 죽음을 스스로 택하였으며 이렇게 죽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수 있지만(고전 13:3) 지금까지의 기독교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권능과 귀중함을 증언한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들이 흘린 피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원수들을 향해 증언하고 있으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거짓 교회를 향해 증언하고 있다(계 17:6).



## 신약성경이 말하는 스테반

### 1.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행6:3-10)

스테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였고, 그와 논쟁을 벌이게 된 사람들은 스테반의 지혜와 영을 능히 반박하지 못하였습니다.

### 2. 공회 앞에 선 스테반(행6:9-15)

스테반과 논쟁을 벌인 자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한다고 하였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스테반을 잡아 공회(Council)<sup>47</sup>로 데려갔으며,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스테반을 모함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은 스테반을 똑바로 쳐다보는 가운데 마치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거짓 증언자들은 스테반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가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치려는 자라고 모함했지만, 그곳에서 스테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가 두 증언 판을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자기 얼굴의 피부가 빛나게 된 것처럼, 스테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 3. 복음을 변호하는 스테반

스테반에 대한 거짓 고소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상 아브라함으로 부터 시작하여서 야곱과 열두 족장, 요셉, 모세의 이야기와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거침없이 선포합니다(행 7:1-47). 스테반은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공회에 모인 자들을 향하여 ‘목이 뻗뻗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라고 외치며, 이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겼으며, 살인한 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스테반은 이들이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강하게 책망합니다(행7:51-53).

### 4. 순교하는 스테반

결국 이러한 말들을 듣게 된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여 스테반을 향해 성난 개들처럼 이를 갈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행7:54-60).

행7:55-56절을 보면 스테반이 순교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 장면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 구절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는 달리 유일하게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서는 초대 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테반을 영접하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 계셨던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7) 공적인 일로 모이는 집회

결국 스테반의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그들의 분노는 극에 달았고, 그들은 로마정부는 물론이요, 어떤 법정기관과도 의논 하지 않고, 스테반을 체포하여 그를 도시 밖으로 내던지며 유대 관습에 따라 돌로 처형하였습니다. 한편 스테반이 죽게 될 때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게 되는데(행7:58), 이때 사울은 스테반의 죽음에 동의하였고, 그는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는 일들을 하였던 사람입니다(행8:3).

###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스테반

사도행전 말씀	구약성경
-사도행전 6:8	-미가 3:8
-사도행전 6:15	-출애굽기 34:30
-사도행전 7:3	-창세기 12:1
-사도행전 7:2-50	-아브라함에서 솔로몬까지
-사도행전 7:33	-출애굽기 3:5, 여호수아 5:15
-사도행전 7:37	-신명기 18:15; 18:18
-사도행전 7:49	-이사야 66:1-2

### 자세히 알아보기

#### 1. 산헤드린(Sanhedr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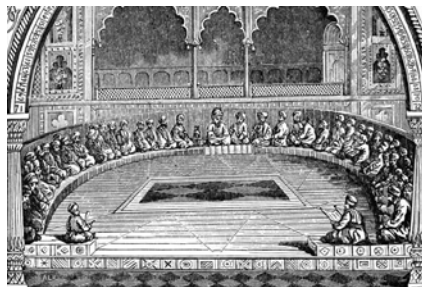
재판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의 70인 회원들의 모임이다. 여기에는 대개 민족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추가되었다. 요세푸스는 주전 69년 요한 히르카누스의 통치 때에 있던 산헤드린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둘째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대언자들의 대언이 없던 때에, 모세가 세운 70인 회의를 모방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민 11:16-24). 랍비들에 따르면 그들이 모인 장소는 동근 원형 집으로 이곳의 반은 성전 내부에, 반은 성전 외부에 있었으며 재판관들은 성전 외부 방에 앉았다고 한다. 의장인 대제사장은 방의 끝에 앉았으며 그의 양 옆에는 보좌관이 있었다. 공회의 회원들은 대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었으며, 산헤드린의 권위는 광범위하였는데 산헤드린은 하위 재판소에서 올라온 문제들을 처리하였고 왕이나 대제사장 혹은 대언자들도 이곳의 결정에 순종하였다. 또 종교나 경배 등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중요 문제들이 이곳에 상정되었고(막14:55; 15:1; 행4:7; 5:41; 6:12)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종교에 관한 한 산헤드린의 결정에 따랐다(행9:2). 이러한 산헤드린은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얼마 전까지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으나 로마 사람들은 이 권한을 박탈하였다(요18:31). 결국 우리 주님이 말한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일 것이며(마5:22), 모든 마을에는 7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있어서 조그만 문제들을 처리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5:22의 심판은 이런 곳에서의 재판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유대인들의 구전 토라 ‘미슈나’에 따르면, 산헤드린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 그 법정의 판결을 무시하는 재판관들의 처리, 거짓 예언자들에 관한 재판 등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사법권을 가졌다. 따라서 예수님과 스테반은 신성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베드로와 요한은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혐의로 산헤드린 법정에서 서게 되었다(막 14:64; 행 4:15-17; 6:11; 23:1; 24:6).

## 2. 회당(Synagogue)

이 말은 원래 집회를 뜻하지만 교회와 비슷하게 후에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집회를 갖는 장소를 뜻하게 되었으며, 구약성경에는 이 말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 과거 유대인들은 야외에서 혹은 대언자들의 집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시74:8에 나오는 회당은 집회가 열리는 장소를 뜻하며 신약시대의 회당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보통 나이가 들고 경건하며 학식이 있는 사람 열 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고, 큰 마을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우리 주님 당시에는 회당이 매우 많았다. 또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으므로 회당이 마치 지역 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회당을 세우는 일은 매우 경건한 행위로 간주되기도 하면서(눅7:5) 이 일이 천국의 열쇠로 생각되기도 하였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회당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한때 예루살렘에만 460-480개의 회당이 있었다. 회당은 대개 높은 곳에 지었으며 건물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서쪽 편은 율법서가 담긴 궤가 있으므로 신전이라 불렸고, 동쪽 편은 사람이 모이므로 회당의 몸이라 불렸다. 회당 안에서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앉았고 장로들은 사람들을 마주 보고 반대편에 앉았는데, 장로들이 앉는 곳은 좀 더 귀한 곳으로 생각되어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마23:6), 여인들은 격자창 등으로 구분된 발코니에 앉았다. 모든 회당에는 직분을 가진 열 사람이 있었고 그 중 회당의 처리자는 모든 것을 주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회당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회중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기도와 말씀 선포 등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목사들은 이런 연유로 천사로 불린 듯하다(계2:3). 보통 사람들이 앉으면 회당의 천사가 강단에 올라가 공중 기도를 하고 이때에 사람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하였다(마6:5; 막11:25; 눅18:11, 13). 결국 유대인들의 회당은 경배 장소요, 재판 장소이기도 하기에, 성경에는 종종 회당에서 사람들이 매를 맞는 모습도 나오며(마10:17; 막13:9; 행22:19; 26:11; 고후11:24), 회당에서 내쫓기는 출회는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이었다(요9:22; 12:42; 16:2).



<산헤드린>

## 제37과 사도 바울

이방인들의 사도였던 바울은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하였으며 대부분을 걸어서 다녔다. 그가 여행한 지역과 개종시킨 사람과 세운 교회와 참고 이겨 낸 고난과 노력과 수고와 행한 기적과 기독교를 변호하고 알리기 위해 기록한 편지들과 받은 계시와 그가 이룩한 선한 일과 순교의 죽음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범한 사람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바울(Paul)의 이름에는 '작은'이라는 의미가 있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                     |               |            |
|---------------------|---------------|------------|
| ▶ 사도행전 9장-28장       | ▶ 로마서 7:15-25 | ▶ 고린도후서 4장 |
| ▶ 갈라디아서 1:10-24, 3장 | ▶ 에베소서 4장     | ▶ 디모데후서 4장 |

3. 인물배경

바울은 히브리말로 '사울'이었으며, 행13:13에 처음으로 로마 이름, 바울로 나온다. 아마도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은 당시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으며, 어쩌면 그의 친구이자 처음에 개종한 서기오 바울 총독을 기념하기 위해 그 이름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행13:7). 바울은 기적적으로 회심하였는데, 후에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부가 되었다(행9:22, 26).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학문을 다 배웠고 그리스 문학에도 익숙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그리스말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그리스 철학자들과 변론하며 그리스 시인들의 시를 인용한 것 등에서 잘 드러난다(행17:28; 고전15:33; 딤후1:12). 그러나 그리스 교육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는 않았으며, 그에게는 그리스도 신앙의 영적 본질과 전 세계적인 우주관 등이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그러한 신앙은 신실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성격을 다 순화시키고 고상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갈1:11-12). 대부분의 사도들과 교사들은 유대교와 의식과 예식과 교리 등을 굳게 붙들었고 그런 교리 안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기독교를 자기들이 간직한 토양 위에 접붙이려 한 것으로 보이며, 그들에게는 유대교가 기독교라는 '새로 접붙여진 가지'를 지탱하는 그루터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같은 좁은 견해에서 벗어나 기독교가 전 우주적인 신앙 체계임을 처음으로 보인 듯하며, 다른 이들은 기독교를 새로 접한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 준수 등을 부여하려 하였지만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 주었다(엡2:11-22). 그의 모든 수고는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그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베드로를 서슴지 않고 책망하기도 한 것이다. 결국 그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와 로마에서 근 5년 동안 옥살이를 한 것도 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 바울의 일생

### 1. 다소 출신 바울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출생하여 자기 아버지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물려받았으며, 그의 부모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는데 그를 히브리 사람 중의 히브리 사람으로 양육하였다(빌 3:5). 그 당시 다소는 학문과 문화로 유명하였으며 바울은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 뒤 그는 합당한 나이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당시 최고의 학자라 불리는 가말리엘의 지도하에 교육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다소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 장막 만드는 일을 한 것 같다(행 18:3; 20:34; 살후3:8). 그 뒤 그는 30세쯤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이끌게 되었다.

### 2. 인생의 변화를 가진 바울

그는 가말리엘에게 교훈을 받고 율법을 알게 되어 바리새파의 엄격한 제자가 되고 열렬한 유대교 수호자가 되었으며 동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다(행8:3; 26:9-11). 이러한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나타나셨고(행26:15; 고전15:8), 이후에 그는 그분에게 자기의 온 마음과 혼과 힘을 드리게 되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으며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며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일을 하였다. 그는 기독교 정신이 순수하고 고상하며 그 안에서의 경배와 그로 인한 영향력이 실제로 강하고 분명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의식과 예식과 경배를 반대하고 이로 인해 자기 동포로부터 심한 고통과 핍박을 받았다. 그들의 고소로 인해 그는 가이사랴에서 약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그 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갔으며, 그 이후의 재판 결과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가 2년 뒤 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옥에 갇혔고 결국 네로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전한다. 참고로 바울의 성격은 그가 기록한 서신서에 잘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이 편지들에서 열정적인 한 사람을 변화시켜 후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게 만든 힘 즉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된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남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며 자신을 희생하였다. 결국 이러한 바울은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14편의 서신을 기록하였고 그 안에서 기독교의 원리와 본질을 잘 설명하게 된 것이다.

## 사울의 회심(행9:1-25)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치기위해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서 그를 둘러 비추자 곧 땅에 쓰러지게 되었고, 이러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며,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는 환상 중에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였고, 이 일로 바울은 다시금 시력을 받고 침례를 받았으며, 음식을 받게 되면서 강건해지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보낸 뒤 즉시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는데, 그 선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있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회심한 바울은 곧바로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처럼 바울이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켰지만, 바울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바구니에 실려 성벽을 통해 달아 내려져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에게 계시 되었는데, 바울은 아나니아와 만난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울에게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네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고,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행22:17-21). 또 바울의 선교는 예루살렘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스데반으로 인해 일어난 핍박은 성도들을 널리 흩어지게 하여서,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행11:19). 그리고 이들 중에서 키프로스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선포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서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행11:20-21). 이제 이러한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합니다. 이후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되었고, 그들은 만 일 년 동안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지역입니다(행11:22-26).

☞ 안디옥(Antioch)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도시의 이름으로 시리아의 오론텐스 강 근처에 위치한 대도시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셀레우코스 니카토르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로 명성과 영화가 대단해서 한때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위치적으로 알렉산드리아와 콘스탄티노플의 중간에 있었고 수목이 많아 아름다웠으며 그래서 동서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처가 되어 니카토르는 그들이 이곳에 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으며(행11:19, 26; 13:1; 갈2:11), 이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성경을 바르게 필사하여 후대에 넘겨주었고 그들의 사본은 안디옥 계열의 사본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 사도 바울은 독신을 선호하였습니까?<sup>48)</sup>

고린도전서 7장은 주로 결혼 문제를 다루는데, 바울은 여기서 결혼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7-8절은 얼핏 독신 선호 사상으로도 비쳐질 수가 있으므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바울의 대답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감안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네로는 로마의 황제가 되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 하였습니까(고전7:26; 29-31). 이러한 핍박과 박해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재림의 임박함을 느끼게 해주었는데, 그 결과 바울은 독신을 선호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고전7:7-8). 그러나 바울은 결코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딤후4:1-4; 5:14, 히13:4).

결혼에 대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명해보면,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혼해야 합니다(창1:26-28; 2:18).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바울은 독신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결혼한 적이 없다면, 그의 결혼에 대한 대답은 무척이나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버넌 맥기’<sup>49)</sup>박사의 “하나님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써서 중요한 문제를 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은 고전7:7에 근거해서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8절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unmarried)과 과부들(widows)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unmarried)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자들인가요?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그리스어 아가모스(agamos)는 고전7:11에도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떠난 뒤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는 것을 ‘아가모스’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어 아가모스(agamos)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되고, 배우자와의 헤어짐 이후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됩니다.

결국 고전7:8의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문맥상 ‘홀아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산헤드린 회의(10-12절)의 경우에서도, 바울은 여기의 멤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멤버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대인 청년들은 18세까지 결혼할 것을 종용받았으며, “장가가지 않은 자는 어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그의 말대로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며(빌3:5), 전통에 열심을 가졌었다는 것을 볼 때에(갈1:14; 행22:3), 그가 결혼을 했었다는 것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참고-고전9:5, 엡5:25, 31-32의 표현). 그리고 여러 주석가들도 ‘결혼과 사랑’에 대한 그의 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결혼했지만 아내가 일찍 죽었거나, 다시 장가가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독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와 같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였기에(고전7:7), 독신은 명령이 아니라 허용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48) 정리-[http://www.cbck.org/bbs/board.html?board\\_table=sermon2&write\\_id=868](http://www.cbck.org/bbs/board.html?board_table=sermon2&write_id=868)

참조-[http://www.cbck.org/bbs/board.html?board\\_table=spe&write\\_id=903#c\\_907](http://www.cbck.org/bbs/board.html?board_table=spe&write_id=903#c_907)

49) 존 버넌 매기(영어: John Vernon McGee, 1904년 6월 17일 ~ 1988년 12월 1일) 박사는 정식으로 임명된 장로교 목사였다가 나중에는 초교파 교회의 목사로 사역하였으며, 성경 교사이자 신학자였고 Thru The Bible 이라는 제목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디오 사역을 하였던 인물이다.-<위키백과>

참고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초기 기독교에는 결혼을 영적 방해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19:12). 그러나 바울은 결코 독신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독신으로 사는 것은 좋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만이 더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세시대에는 독신 및 빈곤 등을 강조하는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바울이 독신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는 전 삶을 주님을 위해 쓰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딤후2:3-4; 고전9:6-19)).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만 적용된 특별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결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고전7:2, 9절이 적용됩니다. 다만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도 된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 1. 사도 바울의 1,2차 선교 여행(행13:1-14:28, 행15:36-1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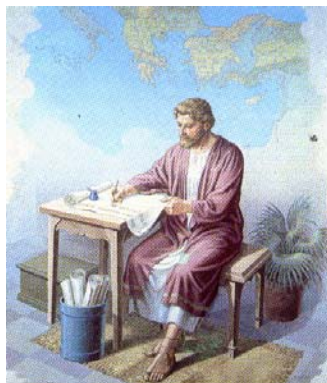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크게 불어나게 되면서,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의 대언자들과 교사들은 성령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성령님께서 시키실 일을 위해 그들을 성령님께로 구별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이에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는 이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떠나 키프로스로 향해하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2.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행18:23-21:17)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하면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내린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얼마 동안 지내게 됩니다(행18:21-22). 그리고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와 브루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의 내륙지방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 에베소에 도착하여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 부근에서 선교한 뒤에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이 선교 여행에서 지중해 연안에 몇 개의 교회를 설립하였고, 신약성경에 포함된 바울서신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였습니다(행18:23-21:14).



## 제38과 바나바

바나바는 초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름으로, 사도들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받기까지 '요세(Joses)'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는 사도 바울의 동반자로서 원래 레위 사람이고 키프로스 출신이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정도로, 자기 자신을 수고와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께 바친 인물이었다(행4:36-37).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바나바(Barnabas)의 이름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사도행전 4:32-37

▶ 사도행전 11-15장

▶ 갈라디아서 2:1-18

3. 인물배경

성경은 바나바가 레위 사람이라는 사실 외에 그의 배경이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렇게 바나바는 키프로스(Cyprus)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으며, 그는 키프로스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부요하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키프로스는 포도즙과 기름과 무화과와 꿀과 밀이 많이 생산되는 비옥한 지역이다.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한 지 3년 후인 AD 38년경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을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시켰으며(행 9:26-27), 그로부터 5년 후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의 복음의 진전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기도 하였다. 바나바는 거기서 큰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이적들을 보게 되었으며(행 11:20-24), 그 후에 그는 다소로 가서 바울을 찾고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 후 2년을 함께 지내면서 많은 사람을 회심시켰다. 또한 주후 45년경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물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다시 요한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행 11:28-30; 12:25). 한편 성령님께서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그들을 따로 분리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새로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로 인해 그들은 키프로스와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 3년 뒤에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다(행 13:2-14).

☞ 키프로스(Cyprus): 지중해의 큰 섬으로 이 섬은 길리기아와 시리아 사이 바다의 북동쪽에 위치했으며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0, 8-80킬로미터이다. 이곳의 거주민들은 각종 사치와 방탕에 빠졌고 비너스를 섬겼으며, 바보(Paphos)에는 이 여신을 위한 대규모 신전이 있었다. 이 섬은 아주 비옥했으며 포도즙, 기름, 꿀, 나무, 구리, 수정 등이 많이 났고, 여기에는 삼나무가 많았는데, 섬의 도시들 중에는 서해안의 바보와 동해안의 살라미가 신약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곳은 초기에 복음이 선포된 곳이며(행 11:19), 바나바와 므나손과 기타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 키프로스 출신이었다(행 11:20; 21:16). 주후 44년경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을 지나며 선교 여행을 했다(행 13:4-13; 참조 행 15:39; 27:4).





## 신약성경이 말하는 바나바

### 1. 바울을 도운 바나바(행9:26-29)

바울은 회심한 이후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회당들에서 즉시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는데, 이 일로 인해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의논하였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구니에 담겨지고 성벽을 통해 달아 내려져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행9:19-25).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고 싶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다 바울을 두려워하였고,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행9:26). 바로 이때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다마스쿠스를 향해 길을 가다가 주(the Lord)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이후에 다마스쿠스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사도들에게 밝히 전하여 주었습니다(행9:27-28). 이렇게 바나바의 도움은 어려운 처지에 있던 바울을 제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드나들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을 논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행9:29).

### 2.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은 바나바(행11:19-24)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널리 흩어진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 중 몇 사람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그곳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는데, 이러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면서, 그들 모두에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바나바를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하여 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새로운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대로 위로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 3. 바울을 찾아 나선 바나바(행11:24-30)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하여 지자, 바나바는 어쩌면 혼자서는 안디옥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에 영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일을 모두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생기는 교회적인 문제들을 한 사람의 힘으로 모두 처리하는 일이 너무나 과중하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이러한 힘든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다소로 떠나서 바울을 찾고 그를 만난 것입니다(행 11:25-26).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만 일 년 동안 안디옥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이 일로 인해 안디옥의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Christians)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행11:26).



## 바나바 그리고 바울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반복해서 말하였으며, 이곳에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행14:27-28). 그런데 이곳에는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형제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과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는 큰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행15:1-2), 결국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 보내졌으며,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게 되었습니다(행15:2-4).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결국 많은 논쟁이 있는 뒤에 베드로는 첫째, 이방인들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일과 둘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을 주신 일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으므로 오직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게 됩니다(행15:6-11). 결국 베드로의 선포 이후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를 조용히 듣게 되는데(행15:12), 잠시 뒤 사도 야고보는 베드로의 선포에 동의하며,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하였고,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자신들의 동료 가운데 하나인 유다와 실라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행15:13-22). 그리고 사도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편지를 쓰면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표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이들에게 내리면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강한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게 됩니다(행15:23-26).

☞참고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제시한 설명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회의 결과에 대한 내면적인 해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핵심구절이 됩니다. 또한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 하면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 문제로 격렬하게 다툰 뒤에 서로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아시아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키프로스로 떠나게 됩니다(행15:36-41). 그 이후에 바나바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한편 바나바 서신이라 불리는 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위조문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바나바의 실수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후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갈 무렵,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베드로)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를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교도들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할례자들에게 가고자 함이었는데(갈2:9),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해야 할 일이 발생했습니다(갈2:9-13). 이것은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도착하자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시킨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한 일이 아니었기에 베드로가 행한 위선은 마땅히 책망 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갈9:14-16).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함께 위선을 행하였는데, 그 중에는 바울과 함께 수년 동안 동행했던 바나바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고 정확히 보여주며(갈9:13), 이렇게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한 위선과 실수를 가감 없이 보여줍니다.

### 바나바 관련 구약성경 구절들

1. 사도행전 11:26절은 이사야 62:1-2절과 관계된다.
2. 사도행전 13:46-47절은 이사야 42:6절과 관계된다.
3. 사도행전 15:1절은 레위기 12:3절과 관계된다.
4. 사도행전 15:16-17절은 아모스 9:11-12절을 설명해 준다.
5. 바나바와 바울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 그들의 요점을 설명하는데 구약성경을 사용하였으며, 사도행전 13장 전체는 좋은 본보기이다.

### 이 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들

1. 바나바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었을 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바치고, 수고와 헌신으로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렸다.
2. 바나바는 바울이 비록 회심하였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의 회심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에게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호의를 표시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던 바울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었다. 이것이 실천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3.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바나바는 수고와 헌신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보여주었다.
4. 바나바는 바울에 대해 결코 시기하지 않았으며, 질투심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 그는 뒤로 물러서서 바울로 하여금 그의 길을 나아가도록 하였으며,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 주기를 원했다.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이라는 신앙의 거성을 만들어 내는데 숨겨진 조력을 이룬 사람이며, 이 모든 것들은 진실한 기독교인의 생활 특성으로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다.

## 바로 알기-그리스도인(Christian)

‘그리스도인’이란 주후 42년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안디옥 사람들이 붙여 준 호칭이며(행11:26), 아마도 이것은 경멸의 표시라기보다는 편리성 때문에 붙여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새로 일어난 종파를 묘사하는 데 그것보다 더 좋은 호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 ‘신실한 자’, ‘성도’, ‘신자’ 등으로 불렀고 이방인들은 그들을 ‘나사렛파’ 혹은 ‘갈릴리파’ 등으로 불렀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요, 주(Lord)요, 죄에서 구속하는 자요, 선생이요, 삶의 근원이요, 기쁨이요, 안내자로 믿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겁게 감당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 1.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본성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본성 즉 옛 본성(육체)과 새 본성(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다(고전 6:19-20; 롬7:15-25; 갈5:16-17).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육체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로서(롬8:1-4)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야 하며 그럴 때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롬6:11-13; 8:12-13; 갈5:16-23; 엡4:22-24). 육체 즉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현 세상에서 결코 뿌리 뽑을 수 없으며(갈5:16-17; 요3:6)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순례의 길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해서 존재한다(요3:6; 요일1:8, 10).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지속적인 성령님의 보호를 받으며 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누가 되는 삶으로 드러날 것이다(벧전1:14-16; 요일3:5-9).

### 2.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섬김의 능력과 선물(은사)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섬김의 능력과 선물(은사)을 공급하신다(롬12:6-8; 고전 12:4-11). 물론 은사는 다양하지만 공급하시는 분은 동일한 성령님이다. 성령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섬김의 은사를 받는다. 사도 시대에는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등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엡4:11-15).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도나 대언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복음전도자나 목사 및 교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 선포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섬김의 영역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복음전도자나 목사(장로, 감독)와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전 14:34-35; 딤후2:11-14; 3:2, 11-12).



## 제39과 디모데

디모데는 복음 사역에 전념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그를 섬기며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 바울은 그를 아들로 때론 형제로 불렀고 또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며, 그보다 자기에게 더 가까이 연합된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다(롬16:21; 고전4:17; 골1:1; 딤후1:2, 18). 또 디모데는 바울을 확신하고 사랑하였으며 그래서 바울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다(행16:1; 17:14-15; 18:5; 19:22; 20:4; 딤후3:10; 4:5).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디모데(Timothy)의 이름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2. 중요한 성경 구절

- ▶ 사도행전 16-17장, 20장      ▶ 데살로니가전서 3:1-8      ▶ 디모데전서 1장, 4:14
- ▶ 디모데후서 1, 3, 4장      ▶ 고린도전서 4:17      ▶ 고린도후서 1:19

3. 인물배경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 루가오니아<sup>50)</sup>의 더베(Derbe) 또는 루스드라(Lystra) 출신이며(행 16:1; 14:6),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딤후1:5; 3:15). 그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와 교육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선포를 통해 회심하게 되어 주의 군사로서 사역을 시작했으며, 사도 바울의 고난을 목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다(딤후1:2; 딤후3:10-11).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훗날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디모데를 발견하고는 그를 데리고 가려 하였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로 인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온다(행16:3). 결국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로마에서는 함께 옥살이도 하였으며(히13:23), 후에는 바울의 간청으로 에베소에 남아, 바울이 말한 것들을 신실하게 행하게 된다(딤후1:3; 3:14).

■ 유니게(Eunice)-디모데의 어머니이자, 로이스의 딸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리스 사람이었으나 그녀는 유대인이었다(행16:1; 딤후1:5). 그녀는 자기가 경건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진리의 교훈들을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바른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정착해 있음을 바울에게 보여주었다.

■ 로이스(Lois)- 디모데의 외할머니로, 경건한 유대 여인이다. 그녀의 거짓 없는 믿음은 딸 유니게에게 전달되었고 결국 이 믿음은 디모데에게 이르렀다(딤후1:5).

50) 북쪽으로 갈라디아, 동쪽으로 갑바도기아, 남쪽으로 길리기아와 맞닿고 있던 소아시아의 작은 지방. 이 지방은 평지였으나 비옥하지는 않았으며 여기에는 이고니움, 더베, 루스드라 같은 도시가 있었다(행14:6).-<에스라성경사전>



## 디모데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들

### 1. 바울

네로의 박해 앞에서 감옥에 갇힌 절박한 상황의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디모데를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 호칭에서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극진히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그의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였고, 그를 보기를 몹시 원했으며, 그를 통해 고통가운데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 모든 바울의 고백은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의지하고 사랑하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딤후1:3-4).

또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믿음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던 것임을 강력하게 확신했습니다(딤후1:5).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꾸밈없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강력하게 발휘하여, 예수님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자신(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딤후1:6-8). 또한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디모데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신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신(디모데)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키라는 따뜻하고 진심어린 사랑의 권면을 주게 됩니다(딤후1:13-14).

### 2. 어머니 유니게 & 외할머니 로이스

디모데는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기록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꾸밈없는 믿음’을 가진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선하게 이루어진 아름다운 신앙 유산의 결실이요, 바른 교육의 열매이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성경기록들(the holy scriptures)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딤후3:15).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디모데와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었습니다(딤후3:16-17).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 빠르게 살펴보기-디모데

1.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갔다가 거기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다(행14:5-6).
2. 디모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기독교로 회심하여 신실한 제자가 되었고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후에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에 왔다가 사역을 위해 그에게 할례를 주고 그를 데리고 떠났다.

3.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었으며(딤후1:2), 그는 목회자로 임명되었고(딤후4:14, 딤후1:6), 따로 세워져서 복음 전도자로 부름 받았다(딤후4:5).
4.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와 함께 동행했는데(행17:14), 그는 바울과 함께 루스드라를 떠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베뢰아까지 바울과 동행하였다.
5. 디모데와 실라는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하여 바울에게 왔고,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머물렀다. 당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으며,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고 있었다(행18:1-5).
6.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이 일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3년)에 일어났으므로, 디모데가 다시 보냄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일은 다루기 힘든 과제였다(고전4:17).
7. 디모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알기를 원한다면, 고린도전서 4, 5장을 읽어보면 된다.
8. 디모데는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여정 중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는 사도 바울을 호위하는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으로도 언급되고 있다(행20:4).
9. 디모데는 바울이 처음 감옥에 있었을 때, 그와 함께 로마에 있었다(빌1:1, 골1:1-2).
10. 디모데는 분명히 로마에까지 바울을 뒤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바울과 가장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sup>51)</sup> 중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다.
11. 디모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 안에서 바울을 섬겼다(빌4:22).

### 디모데전.후서 살펴보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서신들은 오늘날의 교회에 중요한 것이다. 만약 디모데에게 보내진 목회서신이 없었다면 교회의 질서와 조직은 끊임없는 문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도는 목사들을 위한 모델로서 이 편지를 기록하여 그들이 무엇을 가르칠지 또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지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사람의 지식으로 다른 성도를 인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 1. 디모데전서

- a.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디모데에게서 유래되었다(1:2).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갔다가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는데(행14:5-6),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기독교로 회심하여 신실한 제자가 되면서,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후에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에 왔다가 사역을 위해 그에게 할례를 주고 그를 데리고 떠났다.
- b. 서신의 주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가르침과 행동이며, 목적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내와 경고를 주어 바르게 교회를 이끌게 하는 것이다.

51) 바울사도가 옥에 갇혀 쓴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여기 속한다. 여기에는 갇힌 자(엡3:1; 골4:10; 몬23), 결박당한 것(빌1:13; 골4:18; 몬13) 등의 표현이 자주 나온다.

c. 서신의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갔다가 그를 사역자로 남겨 두고 떠난 후에 젊은 목사의 사역을 위해 조언을 줄 필요가 있어 이 글을 기록한 것이다. 사도는 그에게 자기의 교리와 생활 방식 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처신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사도는 교회의 유일한 두 직분인 목사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 가르치고, 과부를 돌보며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목사가 될 것을 권면하였다.

## 2. 디모데후서

- a. 서신의 주제는 말세에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권위이며,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보여 주는 것이다.
- b. 서신의 내용은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에 가지 못한 이유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알려 주면서, 디모데가 자기를 방문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다. 더불어 사도는 디모데가 복음의 사역자로서 신실하게 의무를 감당할 것을 촉구하며 복음을 위해 늘 고난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함을 가르쳤다.
- c.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있을 거짓 가르침과 교사들의 특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끝으로 그가 속히 로마에 와서 자기와 함께 있어 줄 것을 요청했다.



### 박해를 이겨낸 꾸밈없는 믿음<sup>52)</sup>

바울은 무서운 박해 상황 가운데서 로마 감옥의 죄사슬에 묶인 채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그를 버리고 떠나갔으며, 남은 사람은 오랜 친구 누가와 오네시모 그리고 디모데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간혀 있는 깊고 어두운 동굴 감옥은 앞으로 닥쳐질 교회의 운명만큼이나 어두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역사가 타키투스(Publius Cornelius Tacitus, 56~117년)는 A.D. 64년 로마의 절반 이상을 태운 대 화재에 대해 기술하면서, 당시에 네로는 로마를 불태운 범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목하였으며, 이후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박해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껍질이 입혀진 채 굶주린 개들에게 온몸이 찢기며 죽어갔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으며 산 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A.D. 68년 네로의 자살 이후에도 박해는 계속되었는데 이후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핍박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둡고 캄캄한 시기, 바로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디모데와 같이 꾸밈없고 거짓 없는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최악의 핍박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 내었고, 비록 자신의 생명은 산 채로 불태워졌으나 그들은 교회의 생명력을 불려일으키며, 로마 총독의 심문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당당히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참된 믿음이야말로 초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거룩한 밑거름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딤후2:11-12)

52) 중고등부주제별성경공부-<신약편 p464> 요약



## 제40과 예수님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인데, 구속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후자는 구약성경 안에서 예시되었고 신약성경 안에서 확증되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며, 모든 대언의 중심 주제로서 구약시대에는 모형으로 혹은 예표로 그 모습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족장들은 한결같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바랐으며 이분이야말로 이방인들의 소망이요 구원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영광과 행복이며 위로가 되십니다.

### 인물 연구

1. 이름의 뜻: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Jesus)는 히브리말로 여호수아<sup>53</sup>이며, 이것은 “여호와가 구원 하신다”는 뜻이다.

#### 2. 예수님의 이름

a.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신의 백성의 죄들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여 ‘예수’라는 호칭을 받은 적이 없으며 오직 그분만이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피를 통하여 천국을 선물로 주실 수 있다.

b.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직접 주신 이름이며(마1:21) 이분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구원자이셨다. 구원받아 천국에 이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분만을 자신들의 구원자요 구속자로 시인하고 영원토록 영화롭게 그분을 높일 것이다.

c. ‘예수’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보통 이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는 그분의 공식 호칭이다. 이 두 이름은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구분되어 사용되었으나 ‘예수’는 그분의 생애를 서술한 복음서에서 보통 홀로 쓰였다. 반면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 사역을 기술하는 서신서에서 그분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등으로 불렸다.

d.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으므로 마술사 엘루마의 아버지도 이 이름을 가졌고(행13:6) 바울의 동역자요 친구인 유스도(Justus)<sup>54</sup>도 이 이름을 가졌다(골4:11). 에스라 당시의 대제사장과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 대장 여호수아 역시 히브리말로 예수라는

53)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히브리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끈 훌륭한 지도자였다. 그는 처음에 호세야로 불렸으며(민13:8, 16)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라 불렸다(행7:45; 히4:8). 여호수아와 예수는 둘 다 구원자 혹은 구출자를 뜻한다.-<에스라성경사전>

54) 바울의 동역자. 바울은 그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보냈다(골4:11).

이름을 가졌다(삼상6:14; 왕하23:8 참조). 한편 구약시대의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장으로 표현된 곳에서 그리스말로 두 번 예수라고 표현되어 중요성을 더해 주고 있다(행7:45; 히4:8).

### 3. 인물배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참된 메시아요, 야곱의 실로요, 율의 구속자요, 언약의 천사이시며, 이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하다.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의 출현 시기는 이미 창49:10; 단9:20, 25; 학2:7; 말3:1에 예언되었고, 메시아의 탄생 장소(미5:2; 눅2:4), 메시아의 처녀 탄생(사7:14; 마1:18), 메시아가 성령님으로 기름부음을 받는 것(사61:1; 요1:32-34) 등도 예언되었으며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또 구약의 메시아 예언 중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두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며,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분께서 갑자기 임하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성품, 고난, 죽음, 매장, 부활, 승천, 왕국 등에 관한 여러 대언의 말씀들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성취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은 재림 때에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요1:41; 4:25).



###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인간적 이름 '예수'에는 그분의 인성과 지상에서의 그분의 생애가 잘 묘사되어 있으며, 이것은 특히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1. 복음서에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람의 혼과 몸을 가진 예수님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영원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육체에 관한 한 이스라엘 사람이셨는데(롬9:5), 그분은 자신 위에 완전한 인성을 지니심으로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으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확고함과 온유함과 위엄과 겸손과 열정과 고요함과 지혜와 단순함과 거룩함과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동정심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그분의 인성 안에는 어떤 것도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았으며 이 세상은 그와 같은 인물을 상상해 보거나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 2.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분의 모습은 복음서가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영원한 희생으로 인해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으며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친구요 우리를 위해 희생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 3. 구원자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사복음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분의 공생애는 그분께서 약 서른 살 정도 되었을 때 시작되었으며 3년 반 정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눅3:23). 비록 여러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그분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배열하려 하였으나 복음서들이 시간 별로 기록되지 않았고 그 안의 내용 중 시기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으므로 연대기적으로 그것들을 완전하게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 1.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빛과 같이 투명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어떤 혼란이나 주저함도 없었다. 그분은 가장 심오한 진리를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자신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관여했던 일과 사물들에 대해 말씀하셨고 떠나신 후에 일어날 일들과 자신이 어느 것에 관여하실지 예언하셨다. 그분은 결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지 않았으며 마치 세상의 온갖 지혜가 그분 안에 집중된 것처럼 보였다.

### 2. 사람들을 완전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다룬 모든 주제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끝내셨으며 실로 그분의 비유들은 더 이상 향상시킬 수 없는 완벽한 것들이었다. 그분은 결코 추측하거나 추론하지 않았고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자신이 의도했던 것으로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질문하셨을 뿐이다. 그분은 사람들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성을 간파하고 그들의 생각을 읽으셨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리 하지 않았다.

### 3. 허물이 없고 완전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물이 없었고 완전함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결코 자신을 질책하거나 자신이 행하고 말씀하신 어떤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셨으며 담대하게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셨지 결코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 4.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메시아이고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며 안식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주장하셨다. 그분은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하셨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생명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만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기꾼이요 신성 모독자요 따라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 능력의 예수님

### 1. 능력의 치료자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수술하기 위해 칼을 사용한 적이 없고 처방전을 준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를 다 치료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케 하셨으며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셨다.

## 2. 능력의 문학가

예수님께서서는 집필가가 아니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분께서는 단 한 줄의 글만 쓰셨으며 심지어 그 글마저도 모래 위에 썼기 때문에 바람이 다 지워 버렸다. 그러나 그분이 선포한 복음은 제자들의 마음을 극도로 감동시켜 그들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였고 이 글은 시대를 타고 내려 오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간주되었다.

## 3. 능력의 연설가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설가가 아니었다. 그분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으나 보통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모든 종류의 연설의 대가였으며 어느 누구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연설을 능가한 적이 없다.

## 4. 능력의 예술가(시인, 음악가, 미술가)

예수님께서서는 비록 시인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시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성도들에게도 훌륭한 찬송을 주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음악가가 아니었으나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들이 그분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그분은 예술가가 아니었으나 만일 그분이 없었다면 위대한 미술 작품들이 화폭 위에 그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단지 겸손한 갈릴리 목수로 나무를 깎고 도끼자루를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인 건물들이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그분에게 봉헌되었다.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분은 결코 없었다. 어떤 작가도 그러한 인물을 만들어 낼 수 없었다.

그분은 이 세상이 낳은 사람이 아니었으며 다른 영역으로부터 온 분이였다. 그분은 우리를 친족으로 삼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본성을 지닌 채 자신의 왕국으로 되돌아가셨다.

## 그리스도(Christ)

그리스도는 히브리말 메시아에 해당하는 그리스말이며, 이것은 보통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1. 고대의 유대인들은 대언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메시아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점차 그 개념이 희박해져서 정작 유대 땅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그리스도를 향해 잘못된 개념을 가진 채 로마를 쳐부수고 자기들을 그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이 세상의 정복자 혹은 군주를 고대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의 겸손한 모습과 별것 아닌듯한 외적 모습에 분개했고 현재의 유대인들 역시 그리스도 당시의 그들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옛 조상들이 구약시대에 알고 있던 메시아와는 다른 모습의 메시아를 꿈꾸고 있다.

2.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고 존귀를 받기도 하며 비천해 지기도 하고 주인이며 종이고 제사장이며 희생물이고 통치자이며 종이고 죽음에 빠지지만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이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며 왕이며 동시에 슬픔을 아는 자로 알고 있었다. 실로 이와 같은 모순들은 모두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3.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가 없지만 대언자나 사도들이 말하는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내적/영적 기름 부음이다. 비록 구약시대에 제사장이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은 다 상징이요 비유에 지나지 않았고 실체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4. 그리스도는 구속자의 공식 호칭이며 단순히 우리 주님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 아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성경의 많은 구절이 힘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그리스도 대신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생각하면 그 의미가 확실히 살아난다. 마2:4에서 헤롯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고 다그쳐 물었는데, 실로 그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해 물은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때에도 그는 그분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라고 말한 것이다(마16:16). 이 점에서는 마귀들도 마찬가지이다(눅4:41). 참고로 신약성경의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라는 이름은 덜 쓰이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5. 우리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분을 깊이 살펴보고 제사장, 왕, 대언자로서의 그분의 직무와 겸손과 영광의 상태에 계신 그분을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계시는지 볼 수 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밝혀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언약과 규례 등과 관련된 그분의 관계와 성도들의 특권과 의무와 섬김 등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히 그분을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골3:11).

### 메시아(Messiah)

1. 메시아는 그리스말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히브리말이며,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한다. 이 호칭은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구출자를 높이기 위한 말이다. 유대인들은 왕에게 기름을 붓곤 하였으며 제사장들에게도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었다. 그러므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직책을 위해 부르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2. 페르시아 왕국을 설립한 고레스(Cyrus)<sup>55)</sup>는 사45:1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불리며 겔28:14에서는 사탄 마귀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온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메시아는 위에서 밝힌 대로 히브리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들의 대언자들이 자기들에게 약속한 구원자<sup>56)</sup> 즉 구출자를 뜻하는 호칭이다.

---

55)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왕의 아들. 그는 자기 삼촌인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와 소아시아를 정복했고 후에는 바빌론을 점령하고 아시리아 왕국을 초토화시켰다. 그는 자기의 삼촌 누이와 결혼하여 오랫동안 페르시아와 메대의 왕으로 통치하였다. 이사야는 메대 사람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구출하고 회복시킬 것을 대언했으며(사44:28; 45:1-7) 그는 실제로 이것을 성취했고(대하36:22-23; 스1:1-4) 다니엘은 그의 신하 중 하나였다(단6:28).-<에스라성경사전>

56) 이 용어는 대부분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천사가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러 오신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마1:21).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고 이는 곧 구원자를 뜻한다(요4:42; 행5:31).-<에스라성경사전>

3.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과 다가올 메시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기능을 다 수행하는 인물이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4. 특별히 예수님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므로(요1:12), 우리의 구원자요, 구출자가 되실 수 있다.



### 창조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연대

그리스도의 출생은 기원을 가르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분은 기원전(BC)과 기원후(AD)의 주님으로서 첫 사람 아담의 창조 이후 약 4000년 뒤에 이 땅에 마지막 아담(혹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초림 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오셨으므로 재림 때에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즉 '육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셨으므로(딤후3:16) 그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사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런 사건이다.

창조부터 그리스도까지		
4000 AM	4 BC	예수님이 봄에 태어나고 헤롯이 죽음
3418 AM	586 BC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세 번째로 최종적으로 멸망함
3283 AM	721 BC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감
3029 AM	975 BC	왕국이 분단됨(겔4:4-5의 586+390년)
	+ 40	
2989 AM	1015 BC	솔로몬이 40년간의 통치를 시작함(왕상11:42)
	- 3	솔로몬이 자신의 통치 제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함
2992 AM	1012 BC	둘째 달 둘째 날에(왕상6:1, 37-38; 대하3:1-2; 5:1-5)
	+ 480	이집트 탈출로부터의 기간(왕상6:1, 480년째 되는 해=479년)
2513 AM	1491 BC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함
	+ 430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때부터 이집트 탈출까지의 기간
2083 AM	1921 BC	아브라함이 떠돌기 시작함(창12:4; 출12:40; 갈3:17)
	+ 427	노아의 홍수로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때까지의 기간
1656 AM	2348 BC	노아 홍수가 생긴 해
	+ 1656	창조의 시작부터 노아의 홍수까지의 기간(창세기 5장)
0 AM	4004 BC	창조가 시작된 해

AM(Anno Mundi): 창조가 시작된 해부터 센 햇수

● AD(Anno Domini): 주후 525년 스키티아 출신의 연대사가/신학자인 디오니시우스엑시구스가 저술한 「부활제의 서(書)」에서 그리스도의 기원(Anno Domini)이 비롯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는 BC 4년에 출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시므로 AD는 보통 주후(主後)로 쓰인다.

● AM(Anno Mundi): 창조가 시작된 해 즉 아담의 출생을 기원으로 계산한 연도

● BC(Before Christ): AD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이전을 뜻한다. BC는 보통 주전(主前)으로 쓰인다.



## 그리스도의 부활(Resurrection of Christ)

### 1. 교회의 기초이며, 성도들의 소망의 근원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교회의 기초이며 성도들의 소망의 근원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도 헛것이며 믿음도 헛것이다(고전15:17).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셨다. 예수님은 다섯 번에 걸쳐서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될 것과 장사될 것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마12:39-40; 20:17-19, 26:30-32; 눅18:31-33; 요2:19-22).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께서 주장하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분께서 거룩함의 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사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다고 말한다(롬1:4).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때가 다 차자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어떤 권세도 그분을 거기에서 단 한 순간도 붙잡아 두지 못했다(시16:10; 행2:24; 29-32)

### 2. 사망을 정복했음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

사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부가된 형벌이며(창2:17; 3:19) 그의 모든 후손은 범죄자이고 따라서 그에게 부과된 저주를 공유한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므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생명을 공유한다. 부활 때에 마지막으로 정복되어 발밀에 깔릴 원수는 사망이다(롬5:12-21; 고전15:1-58).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께서 사망을 정복했음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이며 그래서 그분께서는 “나는 살아 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이라고 선언하셨다(계1:18).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면서 사망을 폐기하고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다(딤후1:10). 그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셨으며 우리가 몸의 부활에 의해 죽음의 올라미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준비하셨다(히2:14-15).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계21:4). 이러한 까닭에 무덤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고 그분의 성도들 역시 붙잡아 둘 수 없을 것이다(롬8:11).

### 3. 그분과 연합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고전15:49; 살전3:13).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므로(요11:25) 그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입을 것이다(살전4:13-17; 5:10). 그들의 생명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졌는데(골3:3) 그 이유는 그분께서 살아계시므로 그들 역시 살 것이기 때문이다(요14:19).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sup>57)</sup>에게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고 있다.”고 책망하셨다(마22:29).

57)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던 전통과 기록되지 않은 법규를 다 무시하였으며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 유대교의 근원이고 규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마귀론을 거부하고 천사나 영의 존재를 부인하며 몸이 죽을 때 혼도 죽고 따라서 부활이나 보상 등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다(마22:23).-<에스라성경사전>

#### 4.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다섯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가장 먼저는 마리아 막달라에게 나타나셨고(요20:11-18) 그 다음에는 여인들에게(마28:9-10), 베드로에게(눅24:34), 늦은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눅24:13-35), 저녁에 다락방에 있는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요 20:19; 눅24:36-48)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다시 일주일 후 같은 다락방에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20:24-29) 나중에 갈릴리 해변에서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요 21:1-25) 그 후에 갈릴리에 있는 산 위에서 일곱 명의 사람들과(마28:16-20)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전15:6). 그 후 그분은 야고보에게 보이셨고(고전15:7)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뒤 올리브 산으로부터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들려져서 올라 가셨다(눅 24:50-53). 그 뒤 그분은 자신의 가장 큰 원수들 중의 한 명인 바리새인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했다. 또한 부활 후 60여 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밤모 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다.

#### 5. 제자들의 삶을 바꾸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께 대한 제자들의 전체적인 태도를 바꾸어 버렸고 그들의 삶에 완전한 혁명을 일으켰으며 그들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표준은 ‘이집트 탈출’(출애굽)이지만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절정이었다. 참고로 기독교회가 안식과 경배의 날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주의 첫날에 모이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증표이다.

### 바로 알기-독생자(The only begotten Son)

#### 1. 독생자는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는 말이다.

성도들도 요1:12와 롬8:14-15 말씀에 따라 양자 삼으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의 독생자이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아버지가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므로 과거의 언젠가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아들을 낳은 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삼위일체가 성립이 안 되며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창조물이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 2. ‘낳다’(beget)의 바른 의미

그러므로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낳다’(beget)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말에서는 ‘beget’을 ‘낳다’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beget’은 ‘get’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I got the book.” 혹은 “I got the cold.”라는 말은 “내가 책상을 손에 넣었다”, “감기 들렸다”를 뜻한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손에 넣게 되면 그것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get’의 원래 의미는 ‘소유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마1:2) 등에서 ‘낳고’를 모두 ‘beget’으로 표현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낳지 않았다. 단지 이삭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미묘한 것을 모두 표현할 수 없으므로 'beget'을 어쩔 수 없이 '낳다'로 번역한 것이다. 다시 말해 'beget'은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get'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낳다'(beget)는 결코 사람이 사람을 낳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며 더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낳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옥스퍼드영어사전은 "삼위일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 beget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과 다시 태어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쓰인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준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리켜 '아버지의 독생자' 즉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곧 아버지와 유일하게 특별한 관계를 맺는 분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 3. 내가 너를 낳았도다(I have begotten thee)의 바른 의미

따라서 시2:7 말씀 즉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I have begotten thee)." 역시 아버지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낳았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행13:32-37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건을 가리킨다. 즉 아버지께서 그분을 부활시킴으로써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롬1:3-4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신성으로는 아들 하나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였으며 인성으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님에 의해 수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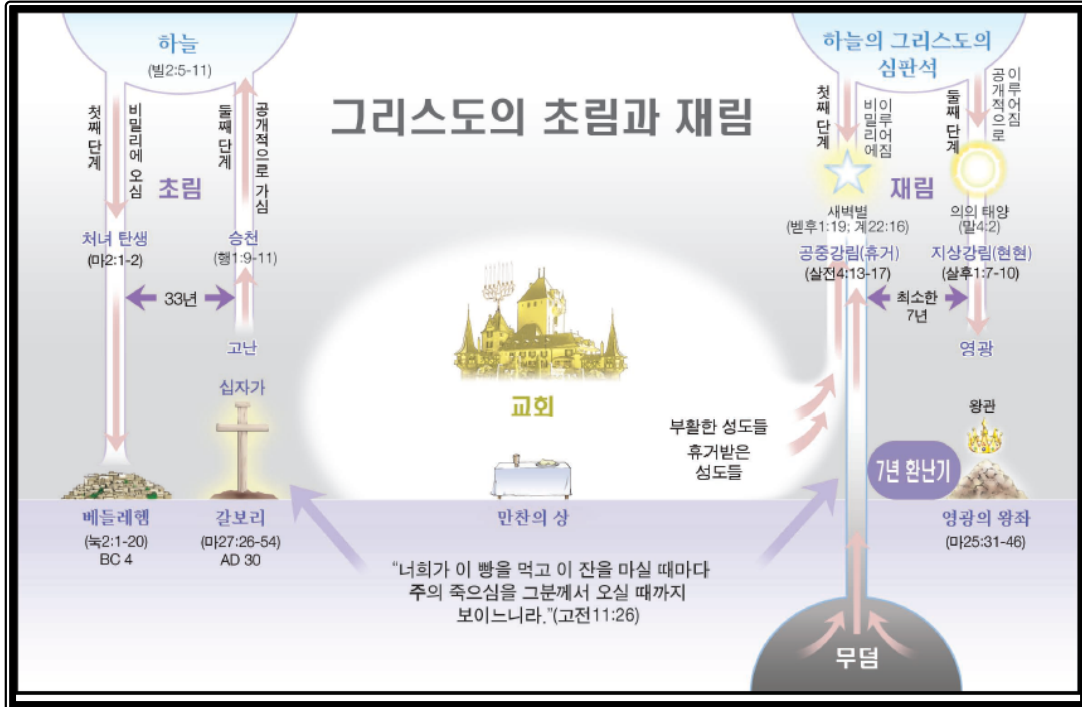
### 바로 알기-임마누엘(Emmanuel)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복합 히브리말이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을 지닌 채 사람들과 함께 거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다(사7:14; 8:8; 마1:23).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상태를 나타내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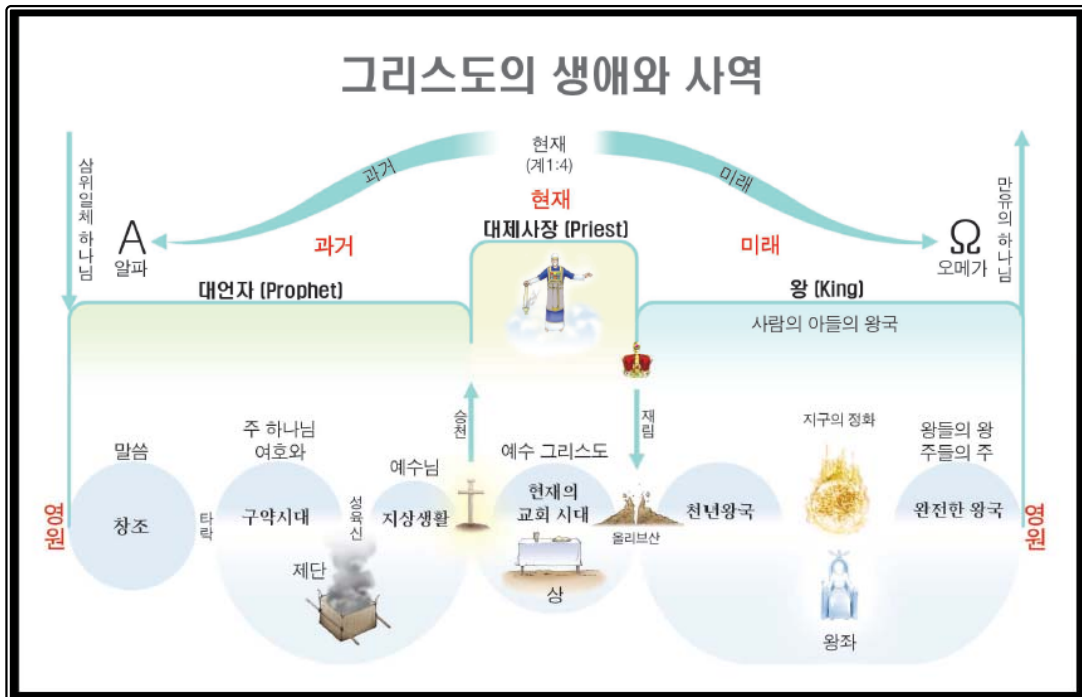
성경	구절
KJV	Behold, a virgin shall be with child, and shall bring forth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which being interpreted is, <u>God with us.</u>
흠정역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u>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u> 이라는 뜻이라.
개역 성경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u>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u> 이라

예수님 관련-선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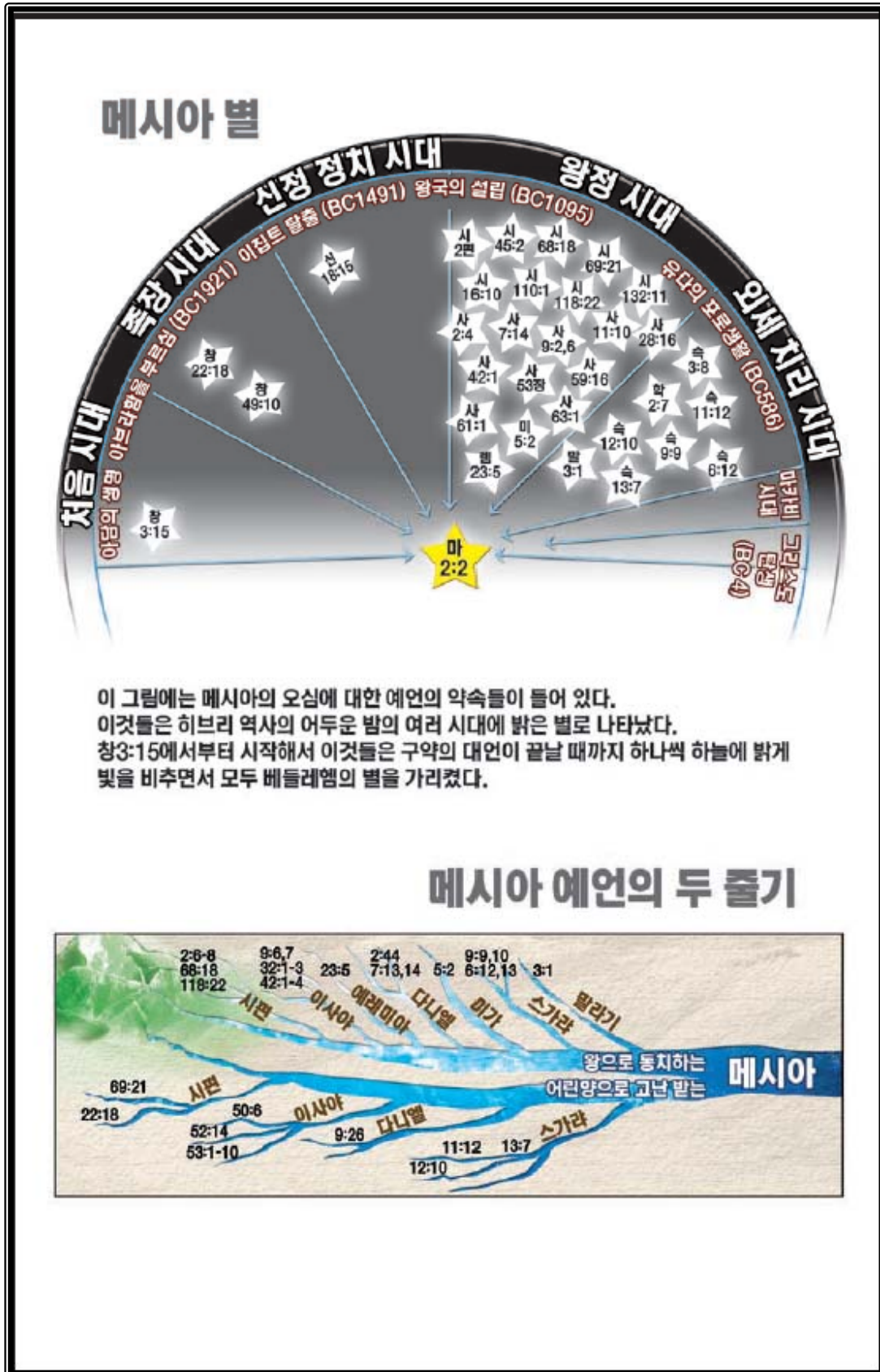
1.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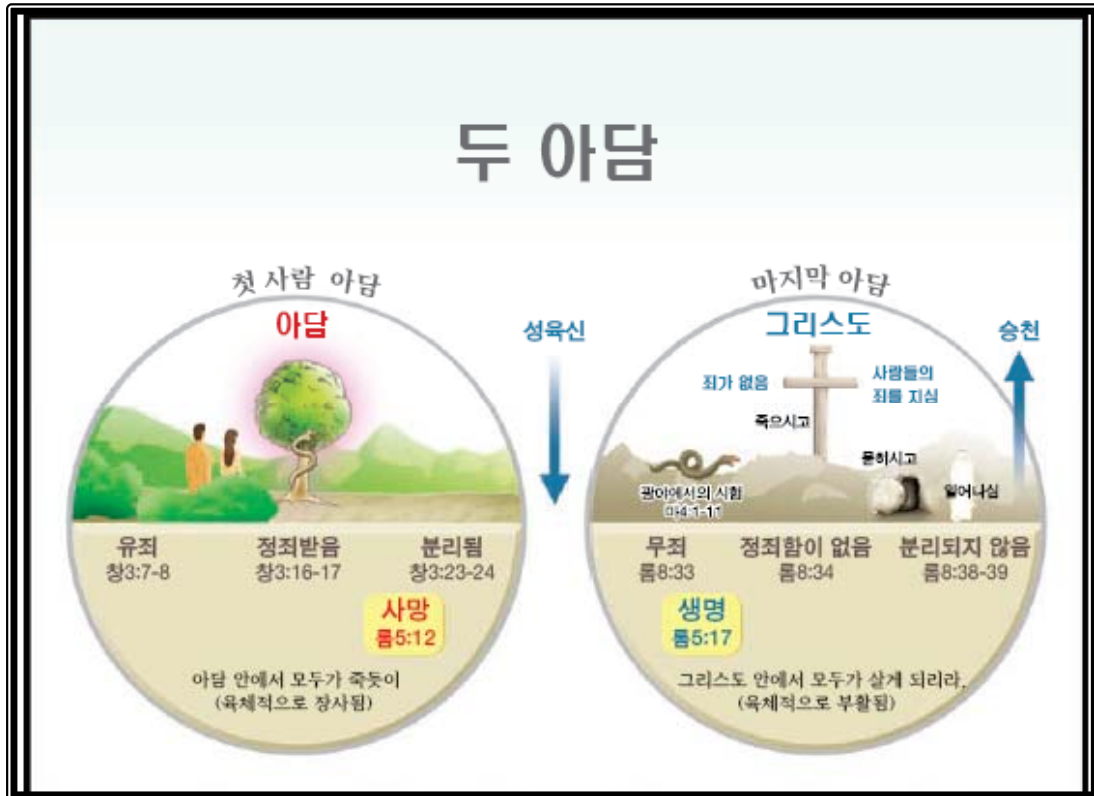
2.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3. 메시아 별과 메시아 예언의 두 줄기



4. 두 아담



5. 이사야서 61장 대언과 그리스도

